

국립국어원 2012-01-20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93-01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장소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NU R&DB Foundation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연구책임자: 장소원(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관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연구진>	
책임 연구원	장소원(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이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최인철(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신지연(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윤희(인하대학교 인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민병곤(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연구 보조원	이수연(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혜영(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요약문

본 연구는 <국어기본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2013년에 시행 예정인 국립국어원의 ‘국민 국어 능력 평가’의 실시 계획을 목표로, 객관적 평가 도구와 평가 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행함과 더불어, 향후 국어능력 평가 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국내와 국외의 국어 능력 평가 정책 및 현황 조사

국내에서 지금까지 행해진 대표적인 국어능력 평가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OECD국가의 언어능력 평가 2종의 평가 시스템을 비교 검토하였다.

(2)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이론적 기반의 구축

국어 능력의 개념 정의
국어 능력 평가의 목표, 평가 유형 제시
국어 능력 평가 영역, 내용 및 평가 척도 마련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수립

(3) 국어 능력 평가 도구 (질문지) 개발

(4) 국어 능력 평가 척도 마련 및 평가 척도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평가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고안된 국민의 국어능력평가 문항을 제안하고 이 정책의 시행 시 고려하여야 할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Basic Research for the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ased on article 9 of <Fundamental Laws on Korean Language> that stipulates for the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Koreans, and with the goal of a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for Koreans' to be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n 2013, the present study has conducted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evaluation tool and index for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for Koreans', and makes propositions that will help to formulate policies for the continuous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henceforth.

The present research is made up of the following contents :

(1) research conducted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its current state regarding the evaluation of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The present paper chronicles all the major researches that have been made on the evaluation of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in Korea. It also compares language proficiency evaluation systems in English, French, Chinese and Japanese and two other kinds of evaluation systems developed by the OECD countries.

(2) theoretical basis for the evaluation of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the definition of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the purpose of evaluating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and various evaluation methods

determining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test, and developing an index for its evaluation

establishing specific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3) the development of the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Test'

(4)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Test' and the assessment of its validity, reliability and objectivity

(5) conclusion

We propose test questions for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for Koreans" that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present research. We have also suggested solutions for possible problems that might occur while administering this policy.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3

제2장 기존 연구

1. 국내 기존 연구	7
1) 김성규 외 『국어능력 조사방법 연구 1』 (2006)	7
2) 김동완 외 『국어능력검정모의시험 방법 연구』 (2008)	8
3) 장경희 외 『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2009)	9
2. 국외 기존 연구	11
1)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	11
2) OECD의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22
3) 언어능력 평가: ‘유럽공통참조기준’	26
4) 프랑스의 자국어 평가	30
5) 중국어능력평가 ‘PSC(普通話水平測試, PUTONGHUA SHUIPING CESHI)’	39
6) 일본어 능력평가: ‘일본어 검정’, ‘일본 한자 능력 검정’, ‘국어력 검정’, ‘실용 일본어 어휘력 검정’	43
7) Cill (Competencies in Later Life)	48

목 차

제3장 문항 개발

1. 사전 준비	53
1) 읽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53
2) 문법 능력 평가 사전 준비	55
3) 쓰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57
4) 듣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59
5) 말하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61
2. 문항 소개	63
1) 읽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63
2) 문법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97
3) 쓰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107
4) 듣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116
5) 말하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135
3. 예비 조사	140
1) 예비 조사 과정	140
2) 피험자 정보	140
3) 예비 조사 결과	143
4. 평가 결과	144
1) 읽기 능력 평가 결과	144
2) 문법 능력 평가 결과	172
3) 쓰기 능력 평가 결과	172
4) 듣기 능력 평가 결과	187
5) 말하기 능력 평가 결과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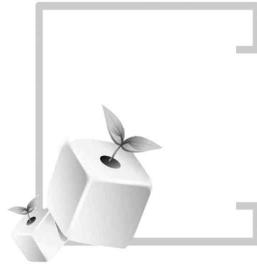
목 차

제4장 문항 분석

1. 영역별 문항 분석	211
2. 학력별, 연령별 문항 분석	216
3. 쓰기 능력 평가 측정 영역별 채점자간 신뢰도 및 상관관계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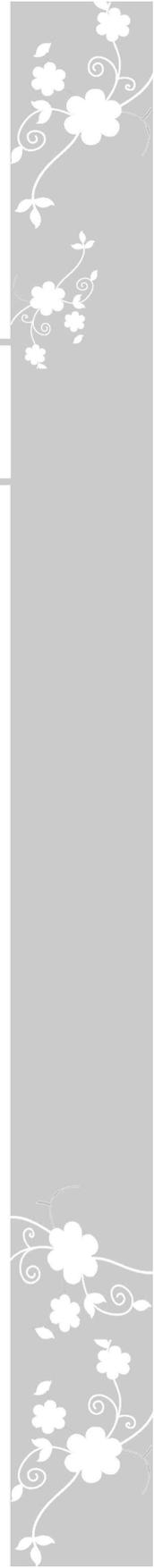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예비 조사 분석 결과	227
2. 영역별 제언	227
1) 읽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227
2) 문법 능력 평가 관련 제언	232
3) 쓰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237
4) 듣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244
5) 말하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248
6) 문항의 구성	255
3. 정책 제언	255
1) 평가의 절차	255
2) 조사 기간 및 범위	256
3) 기타 제언	256
참고문헌	260
부록1. 예비 조사 검사지	263
부록2. 외국의 언어 평가 국가별 사례 조사	306
부록3. 영역별 문항 분석 통계 자료	412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국어기본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2013년을 목표로 하는 국립국어원의 ‘국민 국어 능력 평가’ 실시 계획을 목표로 하여 객관적 평가 도구와 평가 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시행과 함께 평가 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의 국어 능력 평가 정책 및 현황 조사

국어능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범위 설정,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위한 사전 연구로, 영어권, 유럽의 OECD 국가의 언어 능력 평가 제도,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외국의 언어 능력 평가 제도와 평가 방법의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이어 그 조사 결과를 우리의 기존 국어 능력 평가 방식의 내용, 형식, 시행 실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체계가 지니는 효과를 검증하고, 국어 능력 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시 기준과 방향의 설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이론적 기반의 구축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국어 능력’의 범주를 규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작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평가 항목의 범주 분석
- ② 각 제도의 배경이 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조건의 검토
- ③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이론적 기반 구축
- ④ 국어 능력 평가의 목표, 평가 유형 제시

3) 국어 능력 평가용 문항의 개발

국어 능력 평가의 영역별 질문 문항을 개발하는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 ① 사전 준비
- ② 문항 소개 및 해설
- ③ 예비 조사
- ④ 평가 결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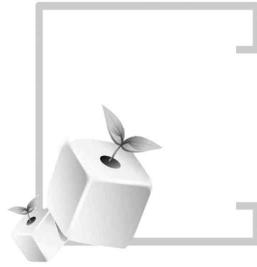
4) 문항 타당도 분석

영역별 문항 타당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조하였다.

- ① 정답률: 이상적 범위: .3 - .7 (숫자가 작을수록 어렵고, 숫자가 클수록 쉬운 문항임)
- ② 변별도: 최소 범위: .3이상
- ③ 오답지: 최소한의 매력도 기준= (1-정답률)/(선택지 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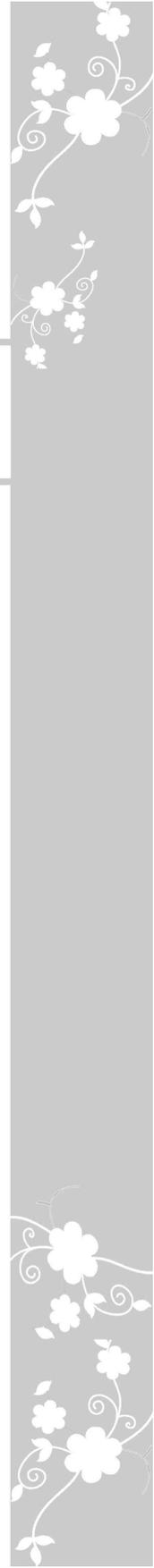
5) 국어 능력 평가 체계의 운용을 위한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먼저 2013년에 시행할 국어 능력 평가용 문항을 제시한 후, 국어 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를 구체적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어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기존 연구



1. 국내 기존 연구

1) 김성규 외 『국어능력 조사방법 연구 1』 (2006)

이 연구는 자국민 중에서도 특히 성인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말하는데, 이 연구에서 말하기 능력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성인의 국어 능력 평가의 의의로서는 기업의 신입사원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업무능력에 대한 조사에서 국어능력이 컴퓨터나 외국어능력보다도 높게 나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능력 평가는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일 수 있다. 이러한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PISA)를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국어능력 평가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직업군별 표본 추출 방법을 연구한다. 이어서 조사 방법 연구, 조사 점수 체계 연구가 뒤따른다. 조사 점수 체계로는 100점 만점 점수, 백분위 점수, 표준화 점수, 준거지향 점수, 특정 기준 점수에 근거한 편차 점수, 변화 점수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점수 체계를 선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수 산정 방법의 연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국어능력 측정 도구 틀을 개발한다. 이 연구에서 돋보이는 것은 “가정의 설정과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 표본 추출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가정 1 (평가 목표와의 관련성)

- 국어 능력은 개인차를 보일 것이다.
- 국어 능력은 변화(향상 또는 감소)할 것이다.
- 국어 능력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 국어 능력은 사용자(개인)의 자발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국어 능력은 대체로 잠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 국어 능력의 발현은 계기나 동기,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 가정 2 (평가 도구와의 관련성)

- 교과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국어 능력의 형성 과정에 고려할 만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중요한 시험을 통해 경험한 언어적 감각이나 지식이 성인의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근거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 성인의 국어 능력의 변별적인 자질들은 직업의 성격이나 직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 고도의 국어사용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개인들(국어 교사, 아나운서, 학원 강사, 세일즈맨, 관광 가이드 등)을 국어 능력의 정점군에 속한 구성 인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김동완 외 『국어능력검정모의시험 방법 연구』 (2008)

이 연구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평가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국어 능력 평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구조화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출제 지침, 시행 절차,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의 평가 결과를 통한 문항 분석을 개괄해 보면, 우선적으로 읽기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학술문이나 시사 교양문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용문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선택하였으므로 수험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최신의 시사 교양 관련 정보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다. 수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법한 다양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물음에는 별 어려움 없이 정답을 찾았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듣기 영역은 시각 정보가 병행 제시되지 않아 수험자들의 집중도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모의 평가에 임하는 수험자들의 성실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답화 방식 파악이나 추론을 요하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낮게 나왔는데, 이들은 내용을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능력 및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시각 자료를 병행 제시하여 답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쓰기 영역 평가 문항은 선택형 9문항과 서술형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형 문항의 경우 자료의 선정과 해석 3문항, 단락 및 글의 구성 3문항, 표현 및 퇴고 3문항 등으로 구성하였고, 서술형의 문항의 경우 작성해야 할 답안의 분량에 따라, 1문장 2문항, 3문장 1문항, 150자 내외 1문항, 200자 내외 2문항, 300자 내외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된 제안으로서, 표본 수집의 수월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행정적 협조를 위해서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위 사업을 통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물을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어원의 요구사항 및 모의 평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3) 장경희 외 『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2009)

이 연구는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국어능력검정시험 개발 연구의 한 하위 연구로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하기 능력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와 당시까지 시행 중인 말하기 능력 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평가 초안을 설계하고, 실험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방법 시안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말하기에 관한 지식이나 방법에 대한 지필 평가가 아니라, 시험 장소에서 수행한 말하기 활동을 평가한다.
- 말하기 능력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으면서도 대규모 평가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
- 말하기 유형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개발한다.
- 이론 연구 이외에 모의 실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말하기 평가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실무 능력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발표와 인터뷰에 한정하였다. 또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에 관한 시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론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근거한 실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둔 세부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평가 목표 설정
- 평가 내용 확인
- 평가 준거 및 평가 항목 설정
- 평가 지표 설정
- 평가 기준 및 과제 설정

이들 과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국어말하기능력 시험은 개인의 말하기 능력 진단을 평가 목표로 삼는다.
- 국어말하기능력 시험은 국어 말하기 능력(구성 능력, 표현 능력, 수행 능력)을 평가 내용으로 한다.
- 말하기 능력을 어떤 준거에 비추어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말하기 능력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특성을 평가 준거로 삼았고, 평가 준거는 문법성, 논리성, 다양성, 유창성, 명료성, 적절성, 상호작용성이라는 7개 평가 항목으로 상세화하였다.
- 평가 준거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및 근거 자료로는 7개의 평가 항목에 부합하는 말하기 활동에 관한 기술들은 모아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지표를 2개씩 제시하였다.
- 평가의 기준은 범위와 점수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요약 설명, 의견 제시,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말하기 수행 결과를 평가 항목별 지표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이분 척도로 측정한다.

이를 전수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 제안하는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 모형은 개인의 말하기 능력 진단을 주된 평가 목표로 하였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평가는 자국민의 실제 말하기 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구성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어 능력 측정을 통해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국어 생활을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의 국어 능력 검정의 한 영역으로 활용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평가의 목적을 반영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언어 능력의 차이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국외 기존 연구

1)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

□ 개관

역사/사회 과목, 과학 및 기술 교과에서 사용하는 언어(English Language Arts)와 문해력(literacy)에 대한 CCSS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과 직무 생활에서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을 돕고자 차세대 초, 중, 고등학교(K-12) 기준을 마련하려고 각 주가 발표한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절정체이다.

CCSS를 위한 작업은 공립학교 수석임원 위원회(CCSSO)와 전국 주지사 협회(NGA)가 양질의 교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주가 마련한 초석 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CCSS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모델과 연구결과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자, 부모님, 학생들의 생각과 자료에 근간을 두고 있다. 설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수차례 안이 제시되고,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이전의 작업을 수정하고 개선한다.

CCSS는 (1) 연구와 증거에 기반을 두고 (2) 대학과 직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3) 엄격하고, (4) 국제적으로 벤치마킹된다. 새롭고 보다 나은 증거가 나타나면 기준은 이에 따라 수정된다.

CCSS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언어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CCR(College and Career Readiness, 대학과 직업준비)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CCSSO와 NGA가 주도했던 이전 발의를 확대한 것이다. 2009년 9월 초안 형태로 공개된 CCR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 기준이 현재 문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언어의 각 학년별 기준은 CCR 기준의 폭넓은 기준을 연령과 성과에 적합한 용어로 해석하고 있다.

CCSS는 언어뿐 아니라 역사/사회, 과학 및 기술 교과목에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필요한 것을 설정한다. 학생들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배우고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듯이, CCSS는 여러 교과 영역에서 대학과 직업 준비(CCR)에 필요한 읽고 쓰는 능력과 이해를 명기해야 한다.

CCSS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및 언어, 수학에서 CCR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사실상 학생들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능력과 이해는 교실이나 직장 밖에서 폭넓게 적용된다. CCSS를 충족시키는 학생들은 주의 깊게 읽는 활동과 복잡한 문학 작품을 즐겁게 읽는 활동을 수행한다. 활자와 디지털로 이용가능한 상당량의 정보를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비판적인 독서를 한다. 양질의 문학 및 정보전달 텍스트를 폭넓고 깊이 있게 접하여 지식을 구축하고 경험을 확대하며 세계관을 확장시킨다. 민주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설득력 있는 추론과 증거의 사용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CCSS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은 창의적이며 의도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근간이 되는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 능력을 개발한다.

□ 주요 설계 고려사항

○ CCR(College and Career Readiness)과 학년별 기준

CCR 기준은 학생이 대학과 노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전체 교과영역에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치로 정의된다. K-12 학년별 기준은 한 학년이 끝날 때 달성해야 하는 기대치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쯤 CCR 기대치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발전 과정을 정의한다. CCR과 고등학교 9학년~12학년 기준은 대학과 직업 준비의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데, 전자(CCR)는 폭넓은 기준을, 후자(9~12학년)는 추가적으로 명기해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년이 끝날 때 구체적인 학년별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전 학년에서 습득한 능력과 이해를 더욱 발전시키고 CCR 기준이 기술한, 보다 일반적인 예상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합적 모델

CCSS는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 언어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쓰기 기준 9는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것에 관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말하기와 듣기의 기준 4는 학생들이 연구의 발견물을 공유할 예상치를 설정한다.

□ 2009 NAEP Reading Framework의 학년별 문해력과 정보 전달 글의 분포

학년	문해력	정보전달
4	50%	50%
8	45%	55%
12	30%	70%

CCSS는 NAEP에서 제시한 문해력과 정보전달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 2009 NAEP Reading Framework의 학년별 의사소통 목적 분포

학년	설득	설명	경험 전달
4	30%	35%	35%
8	35%	35%	30%
12	40%	40%	20%

□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언어에서 대학 및 직업 준비(CCR)가 된 학생들의 특성

○ 독립성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형태와 교과영역에 걸쳐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주장을 구축하고 복잡하거나 다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혼자서 화자의 주요 요점을 구분하고 명확화를 요청하며,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해한 것을 확인한다. 프롬프트 없이 표준 영어 구사력을 보여주고 폭넓은 단어를 습득하고 사용한다. 대략적으로 말해, 자기주도적이며,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된다.

○ 강한 내용 지식을 구축한다.

양질의 작품에 관여함으로써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지식의 기반을 구축한다. 연구과 공부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대해 능숙하게 된다. 일반적인 지식과 특정 교과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둘 다 얻기 위하여 목적성을 갖고 읽고 주의 깊게 듣는다.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지식을 공유한다.

○ 독자, 과업, 목적, 교과영역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청중, 과업, 목적, 교과영역에 관계하여 조절한다. 과업에 따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및 언어 사용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고 조절한다. 말할 때 청중의 구성이 어떻게 어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단어의 함축된 의미가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미묘한 차이를 인식한다. 또한 서로 다른 교과영역은 다른 종류의 증거(예: 역사에서는 문서로 된 증거, 과학에서는 실험상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이해할 뿐 아니라 비평한다.

학생은 관심 있고 마음이 열린 독자와 청자이다. 저자나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자나 화자의 추정이나 주장의 기본 전제에 물음을 던진다. 또한 주장의 진실성과 추론의 견실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증거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텍스트의 구어적 혹은 문어적 해석을 제공할 때 특정한 증거를 인용한다. 쓰기와 말할 때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자신의 추론을 독자나 청자에게 명백하게 전달하며, 적절한 증거를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증거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건설적으로 평가한다.

○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활용한다.

기술을 사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및 언어 사용을 강화한다. 온라인에서 검색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배운 것을 오프라인에서 배운 것과 통합한다. 여러 가지 기술적 도구와 매체의 장점과 한계에 익숙해지고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관점과 문화를 이해한다.

21세기의 교실과 직장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일해야 하는 곳이라고 학생들이 인식한다. 읽기와 듣기를 통해 다른 관점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평가한다. 여러 시대, 다양한 문화, 관점을 대표하는 고전과 동시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서 간접적으로 살아 보고 그 세계를 경험한다.

□ CCSS의 주요 특징

○ 읽기: 텍스트 복잡성 및 이해의 증진

읽기 기준은 읽기의 대상과 읽을 때의 기술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기준 10은 읽기를 시작할 때부터 대학과 직업 준비 수준까지 학년별로 점점 더 증가하는 텍스트 난이도에 대하여 정의한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텍스트를 연결하면서, 상당 범위의 텍스트 증거를 고려하고, 일치하지 않고, 모호한 것, 그리고 추론이 취약한 것에 보다 민감해지면서 텍스트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쓰기: 텍스트 종류, 읽기에 대한 반응 및 연구

계획하고 수정하고 편집 및 발행하는 능력과 같은 쓰기 기술은 많은 형태의 쓰기에 적합하지만, 다른 기술은 주장, 정보/설명문, 이야기 글과 같은 특정 쓰기 형태의 측면에서 더 적절하게 정의된다. 기준 9는 학생들이 문학 및 정보 텍스트에서 정보에 기초하여 글을 씀으로써 읽기와 쓰기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형태의 조사에 쓰기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연구 기준이 여기에 포함된다.

○ 말하기 및 듣기: 융통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말하기 및 듣기의 기준은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기술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은 말하기와 듣기 기준은 학생들이 일련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고,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듣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들은 것을 평가하고, 미디어와 시각적 자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고, 발화를 문맥이나 과업에 적용한다.

○ 언어: 쓰기 시의 규칙, 효과적인 사용 및 단어

단어 기준은 단어와 구, 단어 간 관계, 단어의 미묘한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언어(English)에 대한 기준(K-5)

○ 대학 및 직무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CCR): 읽기

K-5 기준은 각 학년 마지막에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CCR과 구체적인 학년별 기준은 학습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능력과 이해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CCR은 폭넓은 기준을 제공하고 각 학년마다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적으로 명기한다.

- 주요 개념과 세부사항

- ①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도록 상세하게 읽고, 쓰거나 말할 때 텍스트상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인용하여 결론을 지지한다.
- ② 텍스트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를 결정하고 전개를 분석한다. 나아가 주요한 세부적인 생각을 요약한다.
- ③ 개인, 사건 개념이 어떻게 그리고 왜 전개되는지 분석한다.

- 필요한 기술 및 구조

- ④ 텍스트에 사용되는 단어와 구를 해석한다. (예: 기술적이고,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
- ⑤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한다. (예: 특정 문장, 문단이 서로 그리고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
- ⑥ 견해와 목적이 텍스트의 내용과 스타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평가한다.

- 지식과 개념의 통합

- ⑦ 여러 매체와 형식으로 제시된 내용을 통합하고 평가한다.

- ⑧ 텍스트의 논거와 구체적인 주장(추론의 타당성, 증거의 적합성 및 충분성)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 ⑨ 두 가지 이상의 텍스트가 유사한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분석한다.

- 읽기의 범위와 텍스트 복잡성의 단계

- ⑩ 복잡한 문학 텍스트와 정보전달 텍스트를 혼자서 읽고 이해한다.

○ 대학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College and Career Readiness(CCR) Anchor Standards): 쓰기

- 텍스트 유형과 목적

- ① 충분한 이유와 적절하고 충분한 증거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대하여 글을 써본다.
- ② 내용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구성하고 분석하여 복잡한 생각과 정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전달하는 설명문을 써본다.
- ③ 효과적인 기법, 잘 선택된 세부사항, 구조가 잘 갖추어진 사건의 순서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이야기 글이나 상상의 경험을 발전시키는 이야기 글을 써본다.

- 산출 및 발표

- ④ 글의 구성과 전개, 스타일이 과업, 목적, 독자에 적합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글을 완성한다.
- ⑤ 계획, 수정, 편집, 다시쓰기 혹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면서 쓰기를 개발하고 강화한다.
- ⑥ 인터넷을 포함한 기술을 사용하여 쓰기를 하고 인터넷에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여 글을 써본다.

- 지식을 구축하고 제시하는 연구

- ⑦ 집중적인 질문(focused questions)을 기반으로 짧은 연구 프로젝트 및 보다 지속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 ⑧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에서 적절한 정보를 모으고, 정보 출처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표절을 피하면서 정보를 통합하도록 한다.
- ⑨ 분석, 설명, 연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문학 텍스트나 정보전달 텍스트에서 끌어낸다.

- 쓰기의 범위

- ⑩ 연구, 고찰, 수정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투자하고, 일련의 서로 다른 과업, 목적, 독자에 대해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글을 쓰는 연습을 정기적으로 한다.

○ 대학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 말하기 및 듣기

- 이해와 협동

- ①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일련의 대화와 협동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그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 ② 다양한 매체로 제시된 정보를 통합하여 평가한다.
- ③ 화자의 관점, 이유 및 증거와 수사 사용을 평가한다.

- 지식과 아이디어 제시

- ④ 청자가 추리과정을 따라갈 수 있으며, 구성, 전개 및 스타일이 과업, 목적, 청자에게 적합하도록 정보, 결과 및 세부 증거를 제시한다.
- ⑤ 디지털 미디어와 데이터의 시각적 전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제시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킨다.
- ⑥ 필요하거나 적절할 때 공식적인 영어에 대한 구사력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상황과 의사소통 과업에 맞추어 발화를 연습한다.

○ 대학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 언어

- 표준 영어 사용법

- ① 쓰거나 말할 때 표준 영어 문법과 사용법 능력을 보여준다.
- ② 쓰기를 할 때 표준 영어의 대문자, 마침표, 철자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언어 지식

- ③ 언어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언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고, 의미와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며, 읽거나 들을 때 보다 완전하게 이해한다.

- 단어 습득 및 사용법

- ④ 문맥에서 단서를 찾아 사용하고, 유의미한 단어의 부분을 분석하고, 일반적이고 특별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알지 못하는 단어와 구를 결정하거나 명확하게 한다.
- ⑤ 은유적인 언어, 단어 관계, 단어 의미의 뉘앙스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 ⑥ 대학과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에 충분한 일련의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단어와 구 그리고 각 교과영역에 등장하는 단어와 구를 습득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학년별 언어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하는 기술

기준	3	4	5	6	7	8	9 -10	11 -12
주어-동사, 대명사-선행사를 일치시킨다.								
단어와 구를 효과를 위하여 선택한다.								
부적절한 구와 무종지문을 인식하고 고쳐서 완벽한 문장을 생성한다.								
빈번하게 혼동되는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단어와 구를 선택한다.								
마침표를 효과를 위하여 선택한다.								
동사 시제의 부적절한 변화를 인식하고 바로 고친다.								
마침표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대명사 수의 부적절한 변화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모호한 대명사를 인식하여 올바르게 사용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쓰기와 말하기에서 표준 언어 변이를 인식하여 전략을 사용하여 표현을 향상시킨다.								
마침표(쉼표, 괄호, 줄표)를 사용하여 계속적 요소를 시작한다.								
의미, 독자/청자의 관심, 스타일에 따라 문장 패턴을 변화시킨다.								
스타일과 논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잘못 놓인 수식어와 현수 수식어(dangling modifiers)								

를 인식하여 문장 내에 구와 절을 위치시킨다.								
장황하고 중복적인 것을 인식하고 제거하여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를 선택한다.								
동사의 태와 서법에서 부적절한 변화를 인식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병렬 구조를 사용한다.								

□ CCSS English Language Arts 6학년-12학년

○ 대학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College and Career Readiness(CCR) Anchor Standards): 읽기

- 주요 개념과 세부사항

- ①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도록 상세하게 읽고 쓰거나 말할 때 텍스트 상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인용하여 결론을 지지한다.
- ② 텍스트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를 결정하고 전개를 분석한다. 나아가 주요한 세부적인 생각을 요약한다.
- ③ 개인, 사건, 아이디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전개되는지 분석하여 텍스트와 상호작용한다.

- 필요한 기술 및 구조

- ④ 텍스트에 사용되는 단어와 구를 해석(예: 기술적이고,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하고 특정 단어 선택이 의미나 어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 ⑤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예: 특정 문장, 문단이 서로 그리고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한다.
- ⑥ 견해와 목적이 텍스트의 내용과 스타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평가한다.

- 지식과 개념의 통합

- ⑦ 여러 매체와 형식으로 제시된 내용을 통합하고 평가한다.
- ⑧ 텍스트의 논거와 구체적인 주장(추론의 타당성, 증거의 적합성 및 충분성)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 ⑨ 두 가지 이상의 텍스트가 유사한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분석하여 지식을 구축하거나 작가가 취하는 접근방식을 비교한다.

- 읽기의 범위와 텍스트 복잡성의 단계

- ⑩ 복잡한 문학 텍스트와 정보전달 텍스트를 혼자서 능숙하게 읽고 이해한다.

○ 대학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College and Career Readiness(CCR) Anchor Standards): 쓰기

- 텍스트 유형과 목적

- ① 타당한 이유와 적절하고 충분한 증거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대하여 글을 써본다.
- ② 내용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구성하고 분석하여 복잡한 생각과 정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전달하는 설명문을 써본다.
- ③ 효과적인 기법, 잘 선택된 세부사항, 구조가 잘 갖추어진 사건의 순서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이야기 글이나 상상의 경험을 발전시키는 이야기 글을 써본다.

- 산출 및 발표

- ④ 글의 구성과 전개, 스타일이 과업, 목적, 독자에 적합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글을 완성한다.
- ⑤ 계획, 수정, 편집, 다시쓰기 혹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면서 쓰기를 개발하고 강화한다.
- ⑥ 인터넷을 포함한 기술을 사용하여 쓰기를 하고 인터넷에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여 글을 써본다.

- 지식을 구축하고 제시하는 연구

- ⑦ 핵심 질문을 기반으로 짧은 연구 프로젝트 및 지속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조사 중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 ⑧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에서 적절한 정보를 모으고, 정보 출처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표절을 피하면서 정보를 통합하도록 한다.
- ⑨ 분석, 설명, 연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문학 텍스트나 정보전달 텍스트에서 끌어낸다.

- 쓰기의 범위

- ⑩ 연구, 고찰, 수정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투자하고, 일련의 서로 다른 과업, 목적, 독자에 대해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글을 쓰는 연습을 정기적으로 한다.

○ 대학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College and Career Readiness(CCR) Anchor Standards): 말하기 및 듣기

- 이해와 협동

- ①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일련의 대화와 협동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그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 ② 다양한 매체로 제시된 정보를 통합하여 평가한다.
- ③ 화자의 관점, 이유 및 증거와 수사 사용을 평가한다.

- 지식과 아이디어 제시

- ④ 청자가 추리과정을 따라갈 수 있으며, 구성, 전개 및 스타일이 과업, 목적, 청자에게 적합하도록 정보, 결과 및 세부 증거를 제시한다.
- ⑤ 디지털 미디어와 데이터의 시각적 전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제시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킨다.
- ⑥ 필요하거나 적절할 때 공식적인 영어에 대한 구사력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상황과 의사소통 과업에 맞추어 발화를 연습한다.

○ 대학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준(College and Career Readiness(CCR) Anchor Standards): 언어

- 표준 영어 사용법

- ① 쓰거나 말할 때 표준 영어 문법과 사용법 능력을 보여준다.
- ② 쓰기를 할 때 표준 영어의 대문자, 마침표, 철자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언어 지식

- ③ 언어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언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고, 의미와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며, 읽거나 들을 때 보다 완전하게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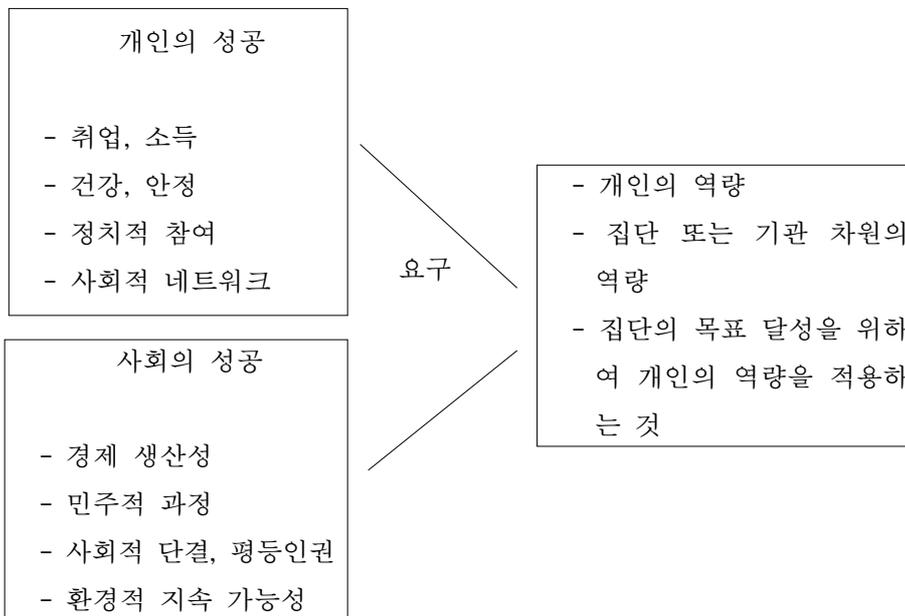
- 단어 습득 및 사용법

- ④ 문맥에서 단서를 찾아 사용하고, 유의미한 단어의 부분을 분석하고, 일반적이고 특별한 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알지 못하는 단어와 구를 결정하거나 명확하게 한다.
- ⑤ 은유적인 언어, 단어 관계, 단어 의미의 뉘앙스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 ⑥ 대학과 직무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에 충분한 일련의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단어와 구, 그리고 각 교과영역에서 등장하는 단어와 구를 습득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OECD의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 개관

1997년부터 시작된 OECD 후원의 DeSeCo 프로젝트는 스위스가 중심이 되어 시행한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능력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한 틀이다(OECD 2005: 5). 이 프로젝트는 OECD 국가들의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국 성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Murray, Kirsch and Jenkins, eds. 1998: 13) 을 마련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성인(또는 청소년)의 (자)국어 능력 평가의 토대가 되는 프로젝트에 속한다. DeSeCo에서 추구하는 기초능력은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기초능력은 다음의 도표에서 총체적으로 표시된다(OECD 2005: 6).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 능력과 국어 능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좀 더 세분화된 기초능력의 범주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양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이를테면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되는 DeSeCo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초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언어, 기술)
- (2) 이질적인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하기
- (3)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하위 기초능력은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1-A), 지식과 정보(1-B), 기술(1-C)을 사용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2-A),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2-B),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2-C)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논쟁의 역동을 이해하고 핵심 주제를 놓치지 않는 것, 구체적이며 유지 가능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 현상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분석하여 갈등의 근원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합의점과 불일치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재구조화하며, 요구와 목적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포기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가 급격한 다원화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3-A),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3-B),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3-C)이 필요하다. 큰 맥락에서 행위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의 직, 간접적 결과를 인식하며, 개인적 기준 및 목적과 집단의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고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더 보완해야 할 것을 평가하며, 다양한 목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적을 명료히 하고, 다양한 목적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들 간의 균형을 꾀하고, 과거의 행동과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며, 목표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하게 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문서화된 규칙과 원칙을 알며, 공인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ALL(Adult Literacy and Life Skill Survey)

이러한 DeSeCo 프로젝트의 틀이 기본이 되어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nmmnt)와 ALL(Adult Literacy and Life Skill Survey) 같은 기초능력 국제 비교 조사가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기존의 학업성취도 조사와는 달리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 즉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ISA를 제외하고, 성인의 기초능력을 대상으로 한 ALL의 취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¹⁾

OECD가 기초능력을 나라별로 비교했던 첫 번째 시도가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²⁾이다. 그 후속사업이 ALL³⁾인데, 여기서는 독해력, 문서이해력, 수리력, 문제해

1) OECD의 ALL 사업에서 정한 성인의 범주는 만 16세-65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이다(이정표/박윤희/홍선이/나승일/이병욱 2004: 39 참조).

2) "OECD는 성인이 소유한 직업기초능력이 한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발전 및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OECD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3차에 걸쳐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성인의 문해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로 명명되었고, 이 조사에서는 '문해력(산문 문해력: prose literacy, 문서 이해력: document literacy, 수량 문해력: quantitative literacy)'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OECD & Statistic Canada, 2000). OECD는 IALS 종료 후에 성인의 문해력 이외에 '생애능력'(life skills)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존

결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정보통신 활용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후, ALL에서는 생애능력(Life Skill)이 추가되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해력과 생애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생애능력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동안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강경중/김중우 2002). 한편 유현숙 등(2002)은 생애능력을 ‘생애를 통해 육성시켜주어야 할 핵심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존의 직무수행 측면에서 강조한 능력의 개념을 지식사회에서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 능력의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능력은 기존의 능력에 대한 개념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해 오던 제반 능력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데, 생애능력은 개인의 생산성과 고용능력에 관련되는 능력요인을 더 반영한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그 자체의 고유한 목표와 가치를 지향해 왔으며, 산업시대의 인력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기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주요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생애교육은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통해 개인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애능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나 주요 기구에 따라 다소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의 경우, 성인의 기초문해(3R: reading, writing, arithmetic)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생애능력(life skill)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SCANS와 ASTD, 영국의 FEU, 독일의 PETRA, 호주의 FINN,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직업기초능력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독일이나 영국, 싱가포르의 생애능력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교육과학연구 및 기술부는 생애능력을 성인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 육성되어야 할 필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국가성인학습기구(NIACE), 싱가포르의 노동부는 생애능력을 성인학습 분야에서 육성되어야 할 필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김태준 외 2002). 각국에서 제시하는 생애능력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우선 독일의 성인교육법에서는 성인에게 육성되어야 하는 생애능력의 범주로서 일반교양문화, 민주시민성, 직업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NIACE의 경우는 기초문해능력, 핵심능력, 직업분야 능력, 구체적 직무능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SCANS의 경우는 성인의 생애능력을 기본능력과 직무환경능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하면, 생애능력은 성인이 직업생활을 포함한 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해력과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해력과 직업기초능력 사이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UNESCO(1951)에서는 문해력을 국가에서 정한공식 용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교육학용어사전,1994), OECD 역시 국가별 문해력 수준 조사 시 기초문해능력, 즉 3R에 대해서만 분류하고 있다. 즉 생애능력에 포함되고 있는 문해력과 직업기초능력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며 직업기초능력은 직업생활에, 그리고 문해력은 가정, 직장 및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생애능력은 직업기초능력, 문해력, 민주시민교육 및 일반교양문화, 직업전문능력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이정표/박윤희/홍선이/나승일/이병욱 2004: 21이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해력은 어떤 지표들을 갖는지 살펴보자. 지식기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고학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숙련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성인문해조사는 각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으로 성인교육

의 성인 문해를 포함하는 생애능력 조사로 영역을 확대하여 2단계 사업으로 ‘성인의 문해력과 생애능력 조사’(Adult Literacy & Life Skill Survey: ALL)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표/박윤희/홍선이/나승일/이병욱 2004: 3)

3) “일련의 직업기초능력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국제 조사 참여 연구의 수행 필요성에 입각하여 2002년 9월부터 OECD의 ALL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조사 수행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한 후 분담금을 지불해 왔다. OECD ALL 조사와 병행하여 성인의 직업기초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이정표/박윤희/홍선이/나승일/이병욱 2004: 2)

프로그램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문해기술이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문해능력 수준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소득과 이윤의 차이를 벌여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문해(literacy)의 정의를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OECD, 2000: x). 문해능력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①산문문해(Prose literacy)는 논설, 기사, 시, 소설을 포함하는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②문서문해(Document literacy)는 구직 원서, 급여 양식, 대중교통 시간표, 지도,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③수량문해(Quantitative literacy)는 금전출납, 팁 계산, 주문양식 완성, 대출이자 계산 등 인쇄된 자료에 포함된 숫자를 계산하거나 수학기공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규정하였다. 문해능력은 각 영역에서 0에서 500점까지의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ETS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문해능력 수준을 1-5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20여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갖는 북유럽 국가들은 학습에 대한 노력, 특별히 성인 학습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문해력이 낮은 성인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국제성인문해조사’(IALS)를 통해서 성인의 문해력과 기타 생활기술이 근로 현장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후속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기존의 성인 문해를 포함하는 생애기술 척도로서 영역을 확대시켰다. ‘국제성인문해조사’(IALS)는 국제생애능력조사(ILSS: International Life Skills Survey)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문해능력에 추가적으로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practice cognition), 협동(teamwork),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능력이 추가되었다. 후속적으로 사업명칭이 다시 변경되어 이 조사를 ‘성인문해생애능력조사(ALL: Adult Literacy and Lifeskills survey)’로 지칭하게 되었다. 성인문해생애능력조사(ALL)는 당초 실행가능하고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12개국(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벨기에, 버뮤다, 네덜란드, 중국)이 참여하였으며, 2002년에 한국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기존에 조사된 산문문해능력(prose literacy), 문서문해능력(document literacy)과 함께 ALL 조사에서 조사된 능력 영역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수리능력(numeracy)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학적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컴퓨터 기술이나 문제해결 전략을 통해 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컴퓨터 활용능력(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literacy)은 컴퓨터 접속, 컴퓨터 관련 능력에 관한 자기평가, 컴퓨터 활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③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skill)은 크게 분석적 판단력과 팀워크로 구분되는데, 분석적 판단력은 문제해결의 판단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이해, 메타 인지, 문제해결전략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팀워크는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적응력, 문제 상황 인식 및 적절한 대응법, 의사소통, 정보교류, 협력, 기한 내의 조직의 임무 완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평가에 부적절한 항목은 제외하고 태도 관련 항목만 준거로 포함되었다. 산문과 문서 문해력은 수리능력과 분석적 판단력의 측정처럼 인지적 평가를 통해 측정된다. 팀워크와 ICT 능력은 배경설문조사(Background Questionnaire)에서 행위 기술 형식을 통해 측정된다(이희수 외 2001: 31; 정태화 외 2003: 11-12). 이와 같이 OECD가 지속적으로 국가 간 성인문해 및 생애능력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직업기초능력이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능력이며 정부 차원에서 성인의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나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이정표/박윤희/홍선이/나승일/이병욱 2004: 51이하).

3) 언어능력 평가: ‘유럽공통참조기준’

□ 개관

유럽 평의회(Europarat, the Council of Europe)가 유럽 연합(Europäische Union, European Union)의 언어문화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언어 교육의 큰 방향을 정하여, 유럽 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향의 언어 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 기존의 제도권 내외의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럽 평의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 언어 교육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운 후에 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 공동 작업을 해왔으며, 그 결실로 2001년에 「언어 학습·교수·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lernen, lehren, beurteilen; A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각 나라마다 유럽 언어 포트폴리오(Europäisches Portfolio der Sprachen, EPS)를 만들어 언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47개 회원국과 8억의 회원을 갖고 있는 유럽 평의회가 오래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인 다중언어적이고 다중문화적인 유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능력 수준을 기술하기 위한, 6단계로 세분화한 척도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이미 유럽의 현존하는 어학 증명서, 어학 강좌 단계 구분, 평가 수준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이미 유럽 전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교육 체계에서도 다양하게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다(유럽평의회 2010: 47이하, 김한란 2007: 96이하 참조). 또한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의도는 유럽 내의 교육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벽이나, 현대 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이 「참조기준」이 교육기관 책임자, 교재 집필자, 교사, 교사 양성자, 시험 출제자 모두에게 자신의 노력을 확인하고 조정하며 또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학습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활동을 성찰하는 방법을 제공”(유럽평의회 2010: 1)해 준다면, 국어능력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데에도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다양한 방법론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⁴⁾

□ 사용 목적

「유럽공통참조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용 목적을 가지는데, 이에 기대서 국어능력평가의 평가 목적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볼 수 있다(유럽평의회 2010: 8).

○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사용 목적

-아래 항목을 고려한 언어학습 프로그램 계획

- ① 특히 초등교육단계, 중등교육단계 I, 중등교육단계 II, 대학교육 그리고 그 이후의 평생교육과

4) 그러나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엄밀히 말하면 자국민을 위한 평가기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을 위한 언어평가와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모든 인구집단이 다른 회원국들(또는 자국 내의 다른 언어공동체)의 언어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사용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 특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다른 나라에서 무난히 생활을 하고, 자국 내의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한다. 1.2-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과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도록 한다. 1.3-다른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도록 한다.” (유럽평의회 2007: 3)

성인교육 분야 사이의 경계면에 있는 선행 언어학습과 선지식

- ② 각 단계의 학습목표
- ③ 각 단계의 학습내용

- 아래 항목과 관련된 어학인증서 계획

- ① 시험 내용
- ② 평가 기준: 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능력에 대해 진술한다.

-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학습자 주도 학습 계획

- ① 학습자가 도달한 지식 수준에 대한 의식의 발전
- ② 학습자가 스스로 선정한 유용하고 실현 가능한 학습 목표 설정
- ③ 학습 자료의 선택
- ④ 자가 평가 수단의 이용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전형적인 행위 중심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언어사용자와 언어학습자를 무엇보다 ‘사회적 행위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위자란 일정한 상황 또는 특수한 환경과 행위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적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까지 해결하는 사회구성원을 말한다. 개개의 언어행위는 언어활동의 범주 내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시 넓은 사회적 맥락의 구성요소가 되며,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언어활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언어사용 방법과 습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언어사용(언어학습 포함) 인간이 개인으로서 또 사회적 행위자로서 일반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특히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을 발전시키는 행위이다. 인간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 텍스트를 산출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언어처리과정이 관여되는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언어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에서 얻는 경험으로 능력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유럽평의회 2010: 11). 이것은 국어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에서 민현식(2001, 2002)가 말한 문법 중심의 국어능력평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언어능력 수준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언어교수학습평가에 있어서 국제 규격에 맞는 기준을 제시한다.⁵⁾ 이러한 총괄적인 기준은 언어능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 가장 기초단계(A1 수준)부터 모국어의 수준에 가까운 숙련도(C2 수준)까지의 폭넓은 언어숙달도를 포괄하고 있다.
- 모든 유럽 언어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요목과 평가는 다른 나라, 다른 언어에서 성취한 언어능력을 투명하게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 행위 중심으로, 학습자의 실제적인 요구에 중점을 둔다. 학습자가 어떤 언어로 성공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지식과 능력을 학습하고 개발해야 하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 긍정적이며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가장 기초 단계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능력 수준단계에서, 학습자가 해당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Can Do’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 수업 내용 및 목표, 그리고 능력증명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의 자율성을 높인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성취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유럽평의회 2010: VII 이하).

5) http://www.coe.int/t/dg4/linguistic/Source/List_Cadre_traduc.doc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유럽언어평가협회(The 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ALTE)의 평가 수준 단계와 연계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수준을 아래의 표와 같이 6단계(A1, A2, B1, B2, C1, C2)로 분류하였다. 각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Can Do Statements’ 형식으로 기술하고, 이 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공통참조수준의 6단계⁶⁾〉

A		B		C	
기초적 언어사용		자립적 언어사용		숙달된 언어사용	
/	\	/	\	/	\
A1	A2	B1	B2	C1	C2
(Breakthrough)	(Waystage)	(Threshold)	(Vantage)	(Effective Operational Proficiency)	(Mastery)

위 표에는 6단계 스칼라가 제시되어 있지만 「유럽공통참조기준」의 기본의도에 따르면 이를 다시 A1.1, A1.2, A2.1, A2.2 등으로 필요에 따라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단계 언어교육을 강화 하고 싶으면 A1에서 B1까지의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기초단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 공통 참조수준: 총괄 척도

다음의 표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의 6단계 참조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총괄척도이다. 이 총괄척도는 비전문가들도 그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와 동시에 교사와 교육과정 계획자 등 전문가에게는 명확한 분류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통 참조수준: 총괄 척도⁷⁾〉

숙달된 언어 사용	C2	읽거나 듣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근거와 설명을 조리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아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C1	수준 높은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확연히 드러나게 어구를 찾는 일이 별로 없다. 사회생활, 직업생활,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텍스트 연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6) 유럽 평의회 편, 김한란 외 옮김(2007):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30쪽. 서울: 한국문화사.

7) 위 책, 32쪽.

자립적 언어 사용	B2	<p>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p> <p>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p>
	B1	<p>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p> <p>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p> <p>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p> <p>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짚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p>
기초적 언어 사용	A2	<p>매우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p> <p>반복적이고 단순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교환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p> <p>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변 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할 수 있다.</p>
	A1	<p>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 묻고(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p>

4) 프랑스의 자국어 평가

□ 프랑스 정부의 언어 방침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상 겪게 되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얼마나 습득하였는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학생 시절 때부터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단계별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방법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프랑스에서 모국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자.

- 프랑스어 학습: 절대적으로 학교 기관을 통해 학습
- 교육구(우리나라의 교육청 단위)별로 학생들의 문제점 파악
-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우선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어 교육활동에 힘써 줄 것이 요구된다.
- 유치원 단계부터 새로운 어휘를 매일 습득하게 한다.

□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프랑스어 습득 수준

이번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프랑스어 습득 수준에 대해 알아보자.

○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이수 후 요구되는 프랑스어 습득 수준

프랑스어 능력 평가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을 달리 할 수 없으면 시차를 두어 시간적으로 다른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통의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습을 고착화시키려는 연습문제 풀이식과는 다르다.

- 쓰기

학년 과정 이수 후 기대되는 능력	3학년 과정 이수 후	평가를 위한 지시 사항
실수 없이 텍스트 베끼기	단어, 짧은 텍스트(시, 상송, 요약문 등)를 읽힐 수 있도록 베끼기. 철자와 구두점 규칙 지키기	개별 쓰기에서 교사는 학생의 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복사의 책략을 관찰하라.
받아쓰기 형태의 텍스트를 읽힐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르게 쓰기	최대 5줄 이하의 텍스트 받아쓰기. - 음성학적 특성 준수 - 명사구의 성과 수의 일치(한정사와 명사) - 주어와 동사의 변화 일치 - 관사, 전치사 등과 같이 혼한 단어들의 문법 규칙을 올바르게 쓰기	어휘 철자의 실수 또는 형용사의 일치와 같은 실수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는다.
짧은 텍스트 올바르게 쓰기	이미 알고 있는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문장 쓰기를 제안하기. 교실 활동의 일환으로 짧은 글(하	평가는 학습의 목표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한다. 평가 전에 학

	나 내지 두 문장)을 자발적으로 쓰고 다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생과 함께 평가 기준을 정한다. 자발적으로 쓴 글은 글 쓴 학생이 다시 읽고 학급 동료와 교사에게 이해되게 한다. 평가는 규칙적으로 해서 학습 사항을 점검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을 안착시킨다.
	철자 및 문법의 알고 있는 규칙에 비추어 교사가 지적인 철자상의 오류를 고치기	교실에서 쓴 모든 유형의 글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적어도 3문단 되는 앞뒤 문맥이 맞는 텍스트 쓰기. 글의 독자가 지정되고 글의 유형(이야기, 보고서, 편지, 묘사, 설명, 논증) 지정하기	하나 또는 두 문장의 텍스트 쓰기. 마침표와 문두 규칙을 준수하면서 통사적, 의미적으로 앞뒤 연결이 맞는 텍스트 쓰기	있을 수 있는 철자 실수를 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신자에게 짧은 편지 쓰기	평가는 학생에게 일정한 특성의 실제적이거나 허구적인 수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가 지표가 된다.
	받아쓰기에서 텍스트의 문맥을 좋게 만들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설명하게 한다.	평가는 교실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에 관찰 내용이 지표가 된다.
텍스트 요약하기	자신이 들었거나 읽은 이야기에 해당되는 요약을 선택하게 한다.	

- 말하기

학년 과정 이수 후 기대되는 능력	3학년 과정 이수 후	평가를 위한 지시 사항
대화 상황에 적응하며 대중 앞에서 말하기	사건을 전달하기, 이야기하기, 정보 전달하기, 관찰 내용 전달하기,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언어의 수준을 맞추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게 한다.	평가는 보통의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학생이 하는 말의 주제성, 명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회사의 사장에게, 도시의 시장에게 등과 같은 대화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교사가 말로 한 지시 사항이나 설명을 학생이 자신의 말로 다시 구성한다.	평가는 보통의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교실에서 흔히 일어난 활동 사항을 고려한다.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의사 교환의 상황을 견지하기	교실 활동의 틀 내에서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대화에 참여한다.	평가는 보통의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말의 주제성과 적절성을 고려한다.
개인적이거나 단체로 일한 결과를 설명하기	교사 또는 학급 전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한다.	교사는 이러한 능력을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서 실행하게 한다. 그리

	<p>- 앨범 개인 또는 단체로 한 작업</p>	<p>고 평가의 기준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자(교사 또는 학급 전체)에게 보고한다. -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앨범 또는 작업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지시 사항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 앨범에 대해서는 목적을 말하지 말고 그대로 내용을 제시한다든가 이야기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등)
--	--------------------------------	---

○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이수 후 요구되는 프랑스어 습득 수준

- 읽기

학년 과정 이수 후 기대되는 능력	5학년 과정 이수 후	평가를 위한 지시 사항
<p>내용 파악과 함께 알고 있는 단어들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p>	<p>철자와 음운 관계를 잘 알고 있다.</p>	<p>언어학습의 특별 프로그램 후에 평가 (잘 안 쓰이는 철자 및 음운을 내포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단어 읽기. 단어가 아닌 단어 읽기 등)</p>
<p>산문이나 운문의 텍스트를 감정을 넣어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다.</p>	<p>자주 쓰이는 도구 단어들을 즉각 알아 볼 수 있다. 교실에서 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흔한 단어들을 즉각 알아 볼 수 있다. 5학년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쉽게 읽을 수 있다.</p>	<p>교실에서의 활동을 통해 구성되며 평가 기준은 사전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과목의 분야에서 큰 소리로 읽기를 시켜본다.</p>
<p>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배운 지식을 이용한다.</p>	<p>알고 있는 텍스트에서 열 줄 정도의 문구를 기쁨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읽을 수 있다.</p>	<p>읽기의 목표가 구체적이며 학생들은 그 목표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p> <p>평가는 학급에서 흔히 일어나는 활동을 관찰하여 수행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에 나타나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의미 중에서 고른다. - 이어서 사전을 통해 확인해본다. <p>학생은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p>

	<p>두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p>	<p>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한다.</p>
	<p>한정사에 의해 주어진 의미적 지시 사항을 이용할 수 있다.</p>	<p>학생은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p>
	<p>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구두점을 이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단위들을 찾아낼 수 있다. - 남의 말을 인용할 때에 인용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문장의 의문 또는 감탄 가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p>본 능력은 보통의 읽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은 어조와 대화의 인물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어 가며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다. 학생은 인용부분을 말할 때 원래 표현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표시할 수 있다.</p>
	<p>읽기에서 명사와 대명사 표현이 텍스트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p>	<p>학생은 명사와 대체 단어의 관계를 말로 또는 색깔로 밀줄 그어 구별할 수 있다.</p>
	<p>텍스트의 논리관계 파악을 위해 연결사를 알아 볼 수 있다.</p>	<p>학생은 텍스트에서 연결 단어의 가치를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p>
	<p>쉬운 텍스트의 시간 논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동사의 시제를 알아 볼 수 있다.</p>	<p>예를 들어, 사건의 전개를 시간 연속 관계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p>
<p>텍스트의 주요 아이디어를 추출할 수 있다.</p>	<p>텍스트를 읽기 후에 텍스트의 주요 주제를 찾을 수 있고 주요 아이디어들을 추출할 수 있다.</p>	<p>평가의 기준은 사전에 교사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p> <p>평가는 몇 가지 질문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p> <p>예를 들어,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 등.</p>
	<p>읽은 텍스트의 줄거리를 잡아낼 수 있다.</p>	<p>학생은 예를 들어 문단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지적할 수 있다.</p>
	<p>혼한 지시사항을 혼자서 읽고 요구된 작업을 홀로 수행할 수 있다.</p>	<p>모든 활동 분야에서 교실 수업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p>
<p>고전 문학과 같은 것은 작품 전체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읽은 것의 설명할 수 있다.</p>	<p>시, 콩트, 아동 문학에 속하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야기를 소개하려면 특색이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p>	<p>보통 수업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목표는 사전에 교사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평가 기준도 사전에 알려져야 한다.</p>

- 쓰기

학년 과정 이수 후 기대되는 능력	5학년 과정 이수 후	평가를 위한 지시 사항
실수 없이 베끼기	최소 5줄의 텍스트를 철자, 구두점, 페이지 구성 등의 실수 없이 읽힐 수 있도록 베낄 수 있다.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사전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받아쓰기 형태로 텍스트를 읽힐 수 있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	<p>최대 10줄의 텍스트를 받아쓰기 형태로 쓸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와 동사 및 형용사의 일치를 할 수 있다. -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할 수 있다. - 혼한 어휘의 단어를 정자로 쓸 수 있다. - 동사를 시제와 법에 맞추어 정자로 쓸 수 있다.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사전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짧은 텍스트를 올바른 언어 형식(철자, 문장 구성, 동사 시제 등)으로 쓸 수 있다.	2개 정도의 문단 또는 10 줄 정도 되는 텍스트를 쓸 수 있다. 문법적 규칙이나 구두점, 철자, 어휘 등에 있어 올바르게 쓸 수 있다.	사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문장의 올바른 구성을 요구하라. 평가는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글쓰기의 특성을 준수하는 것에 있다. 평가 기준은 사전에 학생과 함께 만들 수 있다.
	수업 활동으로 텍스트를 자발적으로 쓸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일상 수업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사전에 구체화된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다른 과목에서는 통사적으로 맥락에 맞도록 해서 글로 대답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일상 수업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사전에 구체화된다.
최소한 3개의 문단에 해당되는 글을 수신자에게 맞추어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서 글로 쓸 수 있다. (이야기, 보고서, 편지, 묘사하기, 설명하기, 논쟁하기 등)	개인적인 텍스트에서 철자와 문법 지식에 맞게 오류를 고칠 수 있다.	학습 내용이 고착화되도록 규칙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과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의 부분으로 반영된다.
	문장 첫머리는 대문자, 문단의 끝은 마침표, 의문부호, 감탄부호 등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	본 능력은 글쓰기의 평상시 활동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연구 결과와 연구과정을 학급에서 표현하기 위해 텍스트를 쓸 수 있다.	평가는 특정의 실제 또는 허구적 수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며, 표현의 논리 관계도 중시한다.
	읽은 텍스트와 연결되는 이후의 이야기 또는 한 문단의 끝부분을 글로 쓸 수 있다.	평가는 출발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본다. (사건, 인물, 사용 언어의 연속성 등) 평가 기준은 사전에 학생과 정한다.
	최소 두 문단의 글을 구체적인 수신자에게 맞추고 주어진 지시 사항을	평가는 학습의 목표에 해당되는 기대되는 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

	준수하면서 논리적 관계가 맞도록 쓸 수 있다.	는지 본다. 평가기준은 사전에 학생과 함께 정한다.
텍스트를 요약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읽고 2 내지 3개의 주요 아이디어들을 취해서 글로 다시 쓸 수 있다.	주요 아이디어들이 사전에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본 능력은 약간 복잡하다. 텍스트를 학습할 때에 공동으로 주요 학습 포인트들을 다시 지적할 수 있다. 평가는 학기당 적어도 한번 보통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 말하기

학년 과정 이수 후 기대되는 능력	5학년 과정 이수 후	평가를 위한 지시 사항
대화 상황에 적용시키면서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다.	교실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할 수 있다. 집단 앞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감동시키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말할 수 있다. 교실에서 읽고 공부한 대화를 연극 형태로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다.	평가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은 정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대중 앞에서 말을 잘 하도록 학생과 함께 평가 기준을 구성한다. 평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학생, 학급, 교사에게 유익하다.
대화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대화를 견지할 수 있다.	학급이나 학교 안에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릴 수 있다. -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 대화의 주제를 견지한다. - 자신의 생각이나 선호하는 것을 표현한다. - 정보를 제공한다. -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반응을 말할 수 있다.	평가는 보통의 대화 상황이나 교실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은 사전에 구체화된다. 평가는 말의 주체성과 적절성을 고려한다.
개인이나 집단 작업을 보고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으로 경험한 것이나 작업한 결과를 교사나 학생들 앞에서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근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며 평가 기준을 밝힌다. - 누구에게 말하는지 구체화한다. -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 계획서나 노트를 준비하여 말한다.

□ 중학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프랑스어 습득 수준 (프랑스 교육부 지침, 2009년 9월)

의무교육의 종료 시점에 해당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프랑스어 습득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 프랑스어 제어 능력 (Maîtrise de la langue)

학생이 다양한 평가 상황(한 가지 과목에서만 해서는 안 되며 여러 과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총체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언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우선적으로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 제어> 능력을 적절하다가 판단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된다.

그리고 평가는 모든 과목에서 보통의 수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몇몇 능력은 오로지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서 평가된다.

- 읽기

중학교 이수 시점에 요구되는 기초 요소	평가 지표
산문이나 운문으로 된 텍스트를 감정을 넣어서 큰 소리로 읽기,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문학 텍스트나 일반 텍스트를 의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장의 문법적 요소들을 분석하기.	문학텍스트나 일반 텍스트에서 어려운 부분의 이해를 위해 언어에 대한 지식(문법, 철자법,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해는 학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읽거나 들은 텍스트의 주요 아이디어를 추출하기.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기.	텍스트를 읽은 후에 골자들을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학생이나 교사가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분량의 텍스트를 읽어준 후에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 파악 - 주요 아이디어 추출 - 짧은 이야기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기
말로 된 언어표현이나 지시 사항을 이해하기.	수행해야 할 일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지시 사항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시 사항들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
문학 작품, 특히 고전 문학 작품을 전부 읽기. 그리고 자신이 읽은 것을 설명하기.	이 능력 평가는 프랑스어 수업시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을 읽은 후에는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주요 사건들을 엮으면서 요약할 수 있다. 작품 전체를 읽은 후에는 독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여기서 작품 전체는 소설의 한 장 chapitre에 해당될 수도 있다.)

- 쓰기

중학교 이수 시점에 요구되는 기초 요소	평가 지표
실수 없이 텍스트를 베끼기	철자법과 문장 배열법을 준수하면서 텍스트와 서류의 전체를 베낄 수 있다. 문법과 어휘 규칙을 준수하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텍스트를 쓸 수 있다.
질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기	단어나 몇 개의 단어군이 아니라 완전한 의미를 갖춘 문장과 같은 언어 표현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부과된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짧지만 맥락이 맞는 텍스트를 만들기- 이야기, 보고서, 편지와 같은 흔한 글쓰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글쓰기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문단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스스로 쓸 수 있다.
텍스트 요약하기	문학 작품이나 사실 이야기를 전체적인 의미와 구성을 복원시키면서 요약할 수 있다. 능력평가는 교육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와 문법적인 주요 규칙을 이용하기	이 능력 평가는 글쓰기의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신자에게서 받고자 하는 효과를 유발하면서 말을 가다듬기	이 능력 평가는 글쓰기의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말로 자신을 표현하기

중학교 이수 시점에 요구되는 기초 요소	평가 지표
대중 앞에서 말하기	대중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할 수 있다. 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능력평가는 3시간 또는 6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문 활동 시간이나 문화 활동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 표출하기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들 간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비판할 수 있다.
제 삼자가 말한 텍스트나 말을 재구성하기	사실적인 이야기. 말로 간접하는 일, 또는 일정 상황을 개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개인적이거나 집단의 일을 설명하기 (발표문, 경험문, 제시문 등)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에 대답할 수 있다.
문학 텍스트나 유명한 문구를 암기하여 말하기	이 능력평가는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텍스트를 알아들을 수 있고 감정을 섞어서 말할 수 있다. 이 능력 평가는 이미 배운 텍스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적용시키기 (말하는 태도와 언어 수준을 고려하기)	이 능력 평가는 모든 활동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의 논리적 관계, 청중에 대한 배려,

	통사 규칙 준수 등을 평가 지표로 삼는다.
--	-------------------------

- 도구 사용하기

중학교 이수 시점에 요구되는 기초 요소	평가 지표
인쇄 사전 또는 디지털 사전	단어의 철자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동의어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단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사용할 줄 안다.
문법 서적이나 철자 교정 소프트웨어	이 능력 평가는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사 활용이나 일치 또는 통사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문법 서적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안다.

5) 중국어능력평가 ‘PSC(普通話水平測試, PUTONGHUA SHUIPING CESHI)’

본 시험은 중국 교육부와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에서 자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普通話’는 중국 내에서 ‘표준어’를 의미하며 ‘방언’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 평가 목적

- (1) 자국민의 표준어 능력 평가
- (2) 자국민의 표준어 능력 향상
- (3) 국내 표준어 보급

□ 평가 등급

- (1) 1급 甲등 : 97점 이상(97점 포함).
- (2) 1급 乙등 : 92~97점 미만.
- (3) 2급 甲등 : 87~92점 미만.
- (4) 2급 乙등 : 80~87점 미만.
- (5) 3급 甲등 : 70~80점 미만.
- (6) 4급 乙등 : 60~70점 미만.

□ 평가 체계

<PSC의 평가 체계>

평가 항목	문항 수	평가시간	배점
단음절 단어 낭독	100음절	3.5분	10점
다음절 단어 낭독	100음절	2.5분	20점
선택 판단	단어 선택	3분	10점
	양사, 명사 선택		
	어순 및 표현상 오류 판단		
텍스트 낭독	1문항	4분	30점
주제별 말하기	1문항	3분	30점

□ 평가 방식

시험문제는 지면으로 제시하고, 답변은 구두로 진행한다.

- 단음절 단어 읽기 : 시험지에 100개의 단음절을 제시한다. 응시생은 정확한 발음으로 3.5분 안에 낭독한다.
- 다음절 단어 읽기 : 시험지에 100개의 음절을 제시한다. 응시생은 정확한 발음으로 2.5분 안에 낭독한다. 예를 들어 45개의 2음절 단어, 2개의 3음절 단어, 1개의 4음절 단

어를 제시한다.

○ 선택 판단

- 단어 선택 : 시험지에 한 문항당 4~5개의 단어를 제시한다. 문항별로 제시하는 단어는 의미가 상응하는 표준어와 방언을 포함한다. 응시생은 이 중 표준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하여 낭독한다.
- 양사, 명사 선택 : 10개의 양사와 10개의 단어를 제시한다. 응시생은 표준어 규범에 부합하도록 양사와 그에 해당하는 명사를 선택하여 ‘—+양사+명사’ 순으로 낭독한다.
- 어순 및 표현상 오류 판단 : 시험지에 한 문항당 1~2개의 문장을 제시한다. 응시생은 이 중 표준어 규범에 부합하는 문장을 선택하여 낭독한다.

○ 텍스트 낭독 : 시험지에 400개의 음절로 구성된 텍스트를 제시한다. 응시생은 해당 텍스트를 낭독한다.

○ 주제별 말하기 : 시험지에 1~2개의 주제를 제시한다. 응시생은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한다.

□ 평가 내용

평가 내용은 음성, 어휘, 문법을 포함한다.

< PSC의 평가 내용 >

평가 항목		언어요소	언어기능	언어 능력
단음절 단어 낭독		음성	읽기	발음
다음절 단어 낭독		음성	읽기	발음
선택 판단	단어 선택	어휘	읽기	단어 표현
	양사, 명사 선택	어휘/문법	읽기	구절 표현
	어순 및 표현상 오류 판단	문법	읽기	문장 표현
텍스트 낭독		음성	읽기	발음
주제별 말하기		음성/어휘/문법	말하기	텍스트 표현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PSC는 읽기와 말하기 능력만을 평가하고, 듣기와 쓰기 능력은 평가 내용에서 제외한다. 읽기는 이해 능력에 해당하며, 말하기 능력은 표현 능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읽기 활동에 해당하는 낭독과 독해 중 낭독만을 평가하므로, 이는 이해 능력보다는 표현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현 능력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쓰기 중 말하기만을 평가하므로 구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SC는 ‘구어의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 평가 목표

- 단음절 단어 읽기 : 성모(한글의 초성에 해당), 운모(한글의 중성 및 종성에 해당), 성조 독음의 표준 정도를 평가한다.
- 다음절 단어 읽기 : 성모(한글의 초성에 해당), 운모(한글의 중성 및 종성에 해당), 성조뿐만 아니라 음의 변화, 경성, 兒化音 독음의 표준 정도도 평가한다.
- 선택 판단 : ‘단어 선택’ 과 ‘양사, 명사 선택’ 은 표준어 어휘의 규범 정도를 평가한다. ‘어순 및 표현상 오류 판단’ 은 표준어 문법의 규범 정도를 평가한다.

- 단어 선택 : 시험지에 한 문항당 4~5개의 단어를 제시한다. 문항별로 제시하는 단어는 의미가 상응하는 표준어와 방언을 포함한다. 응시생은 이 중 표준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하여 낭독한다.
- 양사, 명사 선택 : 10개의 양사와 10개의 단어를 제시한다. 응시생은 표준어 규범에 부합하도록 양사와 그에 해당하는 명사를 선택하여 ‘—+양사+명사’ 순으로 낭독한다.
- 어순 및 표현상 오류 판단 : 시험지에 한 문항당 1~2개의 문장을 제시한다. 응시생은 이 중 표준어 규범에 부합하는 문장을 선택하여 낭독한다.
- 문장 낭독 : 텍스트를 읽는 발음의 규범 정도를 평가한다.
- 주제별 말하기 : 발음, 어휘, 문법의 규범 정도 및 표현의 유창성을 평가한다.

□ 배점 방식

- 단음절 단어 읽기
 - 음성 오류 : 음절 당 0.1점 감점.
 - 음성 결여 : 음절 당 0.05점 감점.
 - 시간 초과 : 1분 이내 초과 시 0.5점 감점/1분 이상(1분 포함) 초과 시 1분 감점.
- 다음절 단어 읽기
 - 음성 오류 : 음절 당 0.2점 감점.
 - 음성 결여 : 음절 당 0.1점 감점.
 - 시간 초과 : 1분 이내 초과 시 0.5점 감점/1분 이상(1분 포함) 초과 시 1분 감점.
- 선택 판단
 - 음성 오류 : 음절 당 0.1점 감점.
 - 시간 초과 : 1분 이내 초과 시 0.5점 감점/1분 이상(1분 포함) 초과 시 1분 감점.
 - 판단 오류 : 항목별 감점 방식은 아래와 같다.
 - ① 단어 선택 : 문항 당 0.25점 감점.
 - ② 양사, 명사 선택 : 문항 당 0.5점 감점.
 - ③ 어순 및 표현상 오류 판단 : 문항 당 0.5점 감점.
- 문장 낭독
 - 음성 오류 : 음절 당 0.1점 감점.
 - 음성 첨가 및 오류 : 음절 당 0.1점 감점.
 - 성모 및 운모의 결여 : 오류 정도에 따라 0.5점/1점 감점.
 - 어조 오류 : 오류 정도에 따라 0.5점/1점/2점 감점.
 - 끊어 읽기 오류 : 오류 정도에 따라 0.5점/1점/2점 감점.
 - 낭독의 유창성 결여 : 결여 정도에 따라 0.5점/1점/2점 감점.
 - 시간 초과 : 1분 감점.
- 주제별 말하기
 - 음성 표준 정도 : 20점 만점. 오류 정도를 6급으로 분류.
 - ① 발음 표준 혹은 극소한 오류 : 0점/0.5점/1점 감점.
 - ② 발음 오류 10회 이하, 방언 색채 있으나 두드러지지 않음 : 1.5점/2점 감점

③ 발음 오류 10회 이하, 방언 색채 두드러짐/10~15회, 방언 색채 두드러지지 않음 : 3점/4점 감점.

④ 발음 오류 10~15회, 방언 색채 두드러짐 : 5점/6점 감점.

⑤ 발음 오류 15회, 방언 색채 두드러짐 : 7점/8점/9점 감점.

⑥ 발음 오류 횟수 많음, 방언 심함 : 10점/11점/12점 감점.

- 어휘 및 문법의 규범 정도 : 5점 만점. 오류 정도를 3급으로 분류.

① 어휘 및 문법 규범에 부합 : 0점 감점.

② 어휘 및 문법 가끔 규범에 어긋남 : 0.5점/1점 감점.

③ 어휘 및 문법 여러 번 규범에 어긋남 : 2점/3점 감점.

- 유창성 정도 : 5점 만점. 오류 정도를 3급으로 분류.

① 자연스럽게 유창함 : 0점 감점.

② 기본적으로 유창하나 문어체 혹은 외운 느낌이 있음 : 0.5점/1점 감점.

③ 텍스트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어조가 어색함 : 2점/3점 감점.

- 시간 배정

① 3분 부족 : 상황에 따라 감점.

② 1분 이내(1분포함) 부족 : 1점/2점/3점 감점.

③ 1분 이상 부족 : 4점/5점/5점 감점.

④ 30초 부족 : 0점 감점.

6) 일본어 능력평가: ‘일본어 검정’, ‘일본 한자 능력 검정’, ‘국어력 검정’, ‘실용 일본어 어휘력 검정’

일본 국내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모어로서의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십 수 종류가 존재한다. 여러 유형의 시험이 있으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본어 전반의 종합적인 운용능력을 평가
- 일본어 운용의 특정한 부분을 평가
- 일본어의 특정한 사용양상을 평가

일본어 전반의 종합적인 운용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어 검정’ 과 ‘국어력 검정’ 이며, 일본어의 특정한 부분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 한자 능력 검정’ 과 ‘실용 일본어 어휘력 검정’ 그리고 ‘일본어 문장 능력 검정’ 이며, 일본어의 특정한 사용양상을 평가, 에 해당하는 것이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이다.

□ 일본어 검정

○ 개요

일본어 검정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본어 검정 위원회가 주최한다. 일본어 지식과 운용 능력을 측정하는 검정이다. 2007년부터, 대체로 6월, 11월 년 2회 실시되고 있고, 수험자 수는 연간 약 10만 명. 동종의 검정 중에서는 수험자 수가 최대 규모이다. 2011년 7월에 문부과학성의 후원을 받았다. 일본어 검정은 일본어의 종합적인 운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한자 뿐 만 아니라 경어, 어휘 등 폭넓은 영역에서 출제된다. 주요 수험 대상은 일본인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능력시험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검정이다. 또한, 일본 한자 능력 검정과도 관계가 없고, 주최 단체인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본어 검정 위원회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재단 법인 일본 한자 능력 검정 협회와는 일체 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다. 인정자를 입시 등에서 우대하는 학교나, 각 종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매 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인과 동등 레벨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어 능력 시험 합격자들이 일본어 검정에 응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 특징

- 일본어의 종합적 능력을 측정한다. 한자나 어휘 등 특정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어의 종합적인 운용 능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6개의 영역으로부터 폭넓게 출제하고 있다(1.경어 2.문법 (말의 규칙) 3.어휘 4. 말의 의미 5.표기 6.한자).
- 생활 장면을 상정한 문제로, 현실감을 가지고 시험에 몰두할 수 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검정은, 각 급 수험자의 세대나 사회적인 역할을 상정하여, 시험 내용을 각각의 생활 장면에 맞추어 출제하고 있다.

- 잘하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일본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수험자 한 명 한 명에게 작성되는 개인 카르테(성적표)에는, 각 문제마다의 맞고 틀림 표시 외에도, 영역별 득점률 등도 기록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잘하는 영역과 보충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일본어를 재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시험 내용

1급을 수험하기 위해서는 2급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수험시간이 다른 급수라면 복수 수검도 가능하다.

급	수험의 기준	시험시간	수험료
1급	사회인	60분	6000엔
2급	사회인 • 대학생	60분	5000엔
3급	사회인 • 대학생 • 고등학생	60분	3500엔
4급	고등학생 • 중학생	50분	2000엔
5급	중학생 • 초등학교 고학년	50분	1500엔
6급	초등학교 중 • 고학년	50분	1500엔
7급	초등학교 저 • 중학년	50분	1400엔

○ 인정의 기준

득점률에 따라 급 별로 2 종류의 인정이 있다. 단, 6개 영역을 균형 있게 득점하는 것이 필요하고, 득점률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7급 제외).

급	종합 득점률	인정
1급	80% 이상	1급
	70~80%	준 1급
2급	80% 이상	2급
	70~80%	준 2급
3급	70% 이상	3급
	60~70%	준 3급
4급	70% 이상	4급
	60~70%	준 4급
5급	70% 이상	5급
	60~70%	준 5급
6급	70% 이상	6급
	60~70%	준 6급
7급	70% 이상	7급
	60~70%	준 7급

□ 국어력 검정

○ 개요

국어력 검정은, 「읽기 능력」 「쓰기 위한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위한 능력」 「종합적 국어력」의 5가지 능력으로 나누어서 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2007년에 시작된 검정이다.

- 국어력 검정으로 측정하는 5가지 능력

문제 전체를 「읽기 능력」 「쓰기 위한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위한 능력」 「종합적 국어력」의 5가지 능력으로 분석해서 출제하고, 각각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 ① 읽기 능력 : 한자, 어구, 문장을 바르게 읽고 의미를 파악, 이해할 수 있다.
- ② 쓰기 위한 능력 : 문자, 어구, 문장을 바르게 쓰고, 표현을 생각해 낼 수 있다.
- ③ 듣기 능력 :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말하기 위한 능력 : 장소를 분별하여 바르게 말하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 ⑤ 종합적 국어력 : 고전이나 동시대의 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어」의 공통기반을 이해할 수 있다.

- 출제 내용

2009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시험을 2개의 레벨로 나누어, 각각의 연령에 따라 국어력의 도달도를 측정한다. 출제 문제의 종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매 회,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지식」 분야와 「이해」 분야.

- ① 일문일답식
- ② 해답형식 : 마크 시트, 해답시간 50분

○ 평가항목과 레벨

- 「능력별 도달도」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종합적 국어력」이라는 5개의 능력을 각각의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 각각의 능력의 도달도를 나타내는 것이 능력 별 도달도이다. 하나의 설문으로 복수의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득점이 아니라 도달도(=득점률)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는, 5개 능력의 도달도 100%를 오각형으로 하여 각 수검자의 도달도, 전체 평균 도달도, 학년 별 평균 도달도를 나타내고 있다.

- 「능력세목 별 도달도」

국어력 검정에서는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각각의 능력을 구성하는,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진 능력도 측정하고 있다. 이 세밀하게 나누어진 능력을 「능력세목」이라고 한다. 각각의 「능력세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① 「읽기 능력」

- * 한자력 : 한자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 * 어구력 : 단어나 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 * 독해력 : 문이나 문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 * 분석 • 비판력 : 문이나 문장이 적절한지 아닌지 비평할 수 있다
- * 독서력 : 적극적으로 독서에 몰두하고 있다

② 「쓰기 능력」

- * 서사력 : 문자를 바르게 쓸 수 있다
- * 전달력 : 목적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다
- * 구성력 : 논리적인 문장을 쓸 수 있다
- * 표현력 : 표현을 생각해 낼 수 있다.
- * 정사력 : 문이나 문장을 더욱 적절하게 고칠 수 있다

③ 「듣기 능력」

- * 사항의 청취력 : 올바른 청취가 가능하다
- * 의도의 청취력 : 화자의 의도를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다
- * 공감적 청취력 : 화자에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다
- * 분석적 청취력 : 자기 사고의 재료로서 들을 수 있다
- * 의욕적 청취력 :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다

④ 「말하기 능력」

- * 진술력 :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 * 관계성 파악력 :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말투로 대화할 수 있다
- * 발표력 : 공식적인 장소에서 복수의 사람을 상대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 * 회화력 :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다
- * 대화력 : 결론을 향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상 각각의 능력의 도달도를 나타내는 것이 능력세목 별 도달도이다. 하나의 설문으로 복수의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득점이 아니라 도달도(득점률)로 나타내고 있다.

- 「다음 수검에 대한 어드바이스 메시지」 :

수검자의 수검 결과에 관한 코멘트와 다음 수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게재한다.

- 인정급

국어력 검정에서는, 종합득점과,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종합적 국어력」의 5개 능력 각각의 도달도를 바탕으로 급을 인정한다. 인정급을 명기한 카드식 인정증을 성적표와 함께 보내고 있다.

○ 급인정의 기준

몇 번이라도 수험할 수 있다. 종합득점과 5개 능력 중 어느 쪽이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나 아래 급으로 인정받는다.

인정급	종합득점	5개 능력 각각의 도달도	레벨
특급	270점 이상	90% 이상	대학생~사회인 레벨
1급	240점 이상	80% 이상	고등 2~3학년 레벨
2급	210점 이상	70% 이상	중등 3학년~고등 1학년 레벨
3급	180점 이상	60% 이상	중등 1~2학년 레벨
4급	150점 이상	50% 이상	중학교 신입생 레벨
5급	150점 이상	50% 미만	

인정급	종합득점	5개 능력 각각의 도달도	레벨
기초특급	180점 이상	90% 이상	중학생 레벨
기초1급	160점 이상	80% 이상	초등 6학년 레벨
기초2급	140점 이상	70% 이상	초등 5학년 레벨
기초3급	120점 이상	60% 이상	초등 4학년 레벨
기초4급	100점 이상	50% 이상	초등 3학년 레벨
기초5급	100점 미만	50% 미만	

7) Cill (Competencies in Later Life)

□ 개요

Cill은 세계 25개국에서 성인의 일상적 생활능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OECD 프로그램인 PIAAC의 동반 프로그램이다. Cill 프로젝트는 66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노인들의 특별한 삶의 상황 내에서 노인들의 능력에 대한 질적인 연구이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에서 인구 통계적인 변천을 참작하고 있고, 노인들의 능력과 교육을 위한 중요한 결과들을 제공하는 있다.

○ 출발점

독일사회의 인구 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사회에서 위에서 언급한 나이의 노인들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각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Bildung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8 참조)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들과 사회의 적응력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노인들이 많은 잠재력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BMFSFJ 2005 참조) 그리고 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 (Baltes/Baltes 1992, Lehr 2005 참조) 따라서 실제로 노인들의 활동잠재력과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기의 삶은 자유시간과 소비라는 인생의 시간에서 사회적 참여라는 시기로 변화되어야 한다. 별이가 되는 노동에 참여하고 사회적인 무보수 명예직은 노인들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따라서 노년과 관련되는 발전과제들의 의미가 높아지게 된다. (Kruse 2008 참조) 동시에 독일에서 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생활환경과 활동성에 있어서 높은 개인 상호간의 차이가 강조된다. (Backes et al. 2004: 8을 참조)

독일에서 인구 통계학적 변천의 결과에 대한 답론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활동성과 능력을 위한 삶의 나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노인들의 잠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계속되는 평생 교육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Cill 프로젝트는 “노인의 교육”이라는 테마를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학문과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프로젝트 과정

첫 번째 작업과정에서는 노인들의 능력과 교육을 위한 연구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EdAge (Tippelt et al 2009를 참조) 프로젝트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시의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Cill에서 노인들의 교육을 위해 새롭게 이용될 수 있었다. 여기서 66세에서 80세의 노인 그룹에 대한 원래의 임의추출 견본이 만들어 졌고, 특히 노인들의 삶의 세계에 대한 물음과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극복담이나 성취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밖에 중점을 둔 사항은 매체의 이용, 교육태도와 학습태도, 교육의 참여에 대한 의견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PIACC 데이터들과의 관련점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성인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 AES)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보충되었고 노인의 교육태도에 대한 다른 근거들도 참고하였다.

두 번째 작업과정은 노인들 그룹을 위한 PIACC의 필드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젝트 그룹 Cill은 정보가 담긴 소책자 작업과 샘플링 준비 그리고 검증도구들을 통해서 필드테스트를 지원했다. 소책자는 글로 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들을 선별해서 노인들의 기호에 맞게 제작되었다. 66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의 설문조사는 PIAAC에서처럼 정확히 동일한 검증도구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40개의 대표

되는 샘플 포인트 내에서 주소들이 선별되었다. 접촉했던 사람의 45%는 처음부터 설문을 거부했고, 20%가 말을 거는 도중에 거부해서 결국 참가비율은 35%였다.

PIAAC에 참가한 노인들의 데이터는 광범위한 배경질문을 이용해서 수집한다. 이러한 배경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사회적-인구통계학적 사항, 실행되는 교육과정과 질자격을 (평생교육을 포함), 수입 상태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하고 있는 활동과 마지막으로 했던 활동, 직업적으로나 일상적으로 특정한 핵심능력의 존재여부, 개인적인 습관과 개인적인 견해. 이와 관련해서 PIAAC는 성인 능력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상정한다. 그것은 읽기능력 (문해력), 수학적 능력 내지는 계산력 그리고 의사소통 공학과 정보 공학의 도움에 의한 문제해결력이다. 비교적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관련 이 테스트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들의 기본적인 능력의 정도에 맞는 특별한 읽기 테스트를 가지고 연구하게 된다. 설문에 참가한 노인들의 다수(75%)는 테스트 노트에 의거해서 능력에 대해 대답했다. 평균적인 인터뷰 시간은 110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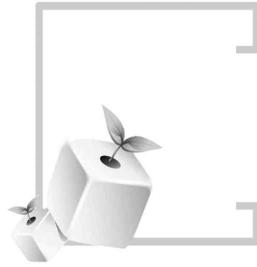
세 번째 작업과정은 42개의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 프로젝트 그룹은 노인들은 인터뷰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의 생활환경의 파악을 위한 배경질문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한다. 사례연구를 위한 피험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인구통계학적이고 교육 관련된 특징들을 고려한 대조의 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생활환경이 한편으로는 특정한 노인그룹을 대표하는 특징을 지닌 사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그룹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별했다. 사례 선택의 중요사항으로는 다양한 교육관습과 인생여정 그리고 다양한 생활환경이 토대가 된 다양한 능력을 기대될 수 있었던 그룹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가를 돕기 위해서 MAXqua라는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 자료 코드화가 실행되었고, 두 번째 코드화를 통해서 저장되었다. 결국 사례연구에서 나온 자료는 “네눈박이 원칙”에 따라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두 번로 코드화 되었다. 코드화의 도움으로 인터뷰들은 특정한 테마에 따라서 평가된다. 예를 들면, 학습동기/학습전략, 활동성, 이력서, 수리력, 독해력, 읽기능력, 문제해결력.

○ 연구 프로젝트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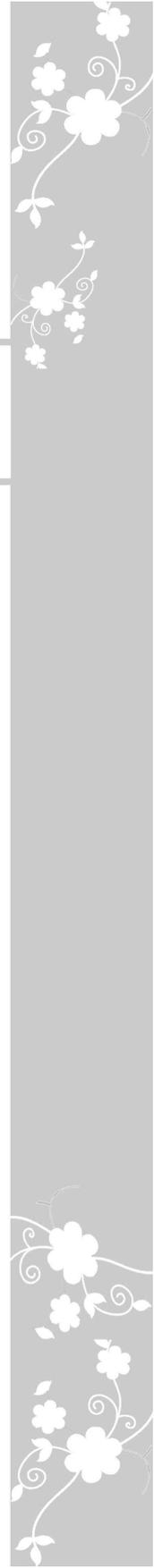
Cill 프로젝트의 두 번째 부분은 2011년 말에 시작되었고, 질적인 연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PIAAC의 핵심연구들과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PIAAC 연구와의 병행실시는 지금까지의 경험들 위에 구성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피험자들의 정보가 담긴 책자와 인터뷰하는 사람의 매뉴얼, 배경질문의 가치, 연습문제를 분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례연구는 Cill에서 대조적인 발상을 토대로 해서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교육수준 그리고 활동수준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Cill 2에서는 노인들을 특정한 생활환경에서 연구한다는 좀 더 확장된 연구가 선택되었다. 특히 특정한 소그룹을 가지고 시행하는 질적인 사례연구가 제시된다. (이주자, 무보수 명예직을 가진 노인, 수입이 있는 연금생활자,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



제 3 장

문항 개발



1. 사전 준비

문항의 개발은 읽기, 문법, 쓰기, 듣기, 말하기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수와 평가시간, 그리고 배점은 아래와 같다.

영역	문항수	평가시간	배점
읽기	25	50분	300점
문법	10	10분	100점
쓰기	8	50분	500점
듣기	12	15분	300점
말하기	4	20분	300점
누계	59문항	145분	1,500점

각 영역별 사전 준비 상황을 문항 구성의 원칙, 평가 요소 및 문항수, 문항 구성 계획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읽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 문항 구성의 원칙

읽기 능력 평가를 위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문항 구성 원칙** 아래 구성되었다.

- 가능한 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읽기 능력을 평가한다.
- 국어 능력에 있어서 취약층으로 예상되는 50대 이상의 일반인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정답률이 높도록 구성한다.
- 전체 문항의 수는 ‘사실적 읽기 능력 > 추론적 읽기 능력 > 비판적 읽기 능력’의 순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 평가 요소 및 문항 수

이러한 원칙 아래에 읽기 능력의 하위 능력에 따른 **평가 요소와 문항 수**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읽기 능력	평가 요소	문항 수	문항 비율
가. 사실적/축자적 읽기 능력	① 세부 내용 파악 능력	5	48%
	② 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	
	③ 글의 구조 파악 능력	2	

	④ 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3		
나. 추론적 읽기 능력	① 비명시적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	9	36%
	② 전제나 가정의 파악 능력	2		
	③ 글 쓴 목적이나 동기 파악 능력	2		
	④ 생략된 내용 파악 능력	2		
	⑤ 글쓴이의 태도나 입장 파악 능력	1		
다. 비판적 읽기 능력	① 구성의 적절성 파악 능력	1	4	16%
	② 표현의 적절성 파악 능력	1		
	③ 내용의 타당성 파악 능력	1		
	④ 내용의 효용성 파악 능력	1		
		25	100%	

□ 문항 구성 계획

이러한 평가 대상과 문항 수를 실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도량형 안내	가정 통문	사용 설명서	기사 문	민원 공문	전체 계서	논설사 실	추업 추천서	만행 (2)	공익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가①	●	●			●							●	●
가②							●				●		
가③				●				●					
가④			●			●			●				
나①									●	●			
나②					●			●					
나③		●				●							
나④											●	●	
나⑤							●						
다①	●												
다②									●				
다③				●									
다④			●										
총25	2	2	2	2	2	2	2	2	2	2	2	2	1

2) 문법 능력 평가 사전 준비

□ 문항 구성의 원칙

문법 능력 평가를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은 **문항 구성 원칙** 아래 구성되었다.

- 가능한 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선정하여 문법 능력을 평가한다.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은 담화 및 글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문법 능력은 이러한 언어 사용의 기초가 되는 문장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전체 문항의 수는 ‘어문 규범의 이해’, ‘어휘 능력’, ‘문장 능력’을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한다.

□ 평가 요소 및 문항 수

이러한 원칙 아래에 문법 능력의 하위 능력에 따른 평가 요소와 문항 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문법 능력	평가 요소	문항 수		문항 비율
가. 규범 (3문항)	① 맞춤법	1	3	30%
	② 띄어쓰기	1		
	③ 표준어	1		
나. 어휘 (4문항)	① 의미와 용법	2	4	40%
	② 의미 관계	1		
	③ 관용 표현의 의미	1		
다. 문장 (3문항)	① 경어법	1	3	30%
	② 호응 관계	1		
	③ 접속 관계	1		
		10		100%

□ 문항 구성 계획

이러한 평가 대상과 문항 수를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할 때에는 어휘, 문장, 담화/글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언어 자료 능력	어휘	문장	담화/글	계
가①		○		1
가②		○		1
가③		○		1
나①	○	○		2
나②		○		1
나③		○		1
다①		○		1
다②		○		1
다③			○	1
계	1	8	1	10

3) 쓰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 문항 구성의 원칙

쓰기 능력 평가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계획되고 출제되었다.

- 사적이거나 공적인 담화 상황과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인 모든 담화 유형 등을 포괄하는 쓰기를 유도한다.
- 쓰기 능력 평가는 쓰기의 길이를 고려하여 1문장짜리와 2~3문장짜리의 짧은 글 쓰기와 2~3단락 짜리의 긴 글 쓰기로 나누어 출제하여 평가하였다.
- 쓰기에 노출되는 빈도를 고려하여 1문장짜리를 4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하였고 2~3문장짜리 짧은 글 쓰기와 2~3문단짜리의 긴 글 쓰기는 각각 2문항씩 출제하였다.
- 쓰기 능력 평가는 총 500점 만점으로 하여 50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각 문항의 평가 항목은 ‘내용; 구조; 표현’ 측면이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용’ 과 ‘구조’ 측면을 충분히 살필 수 없는 한 문장의 짧은 글 쓰기의 경우에는 ‘내용; 표현’ 의 측면이 50%; 50%의 비율로 평가되도록 하였으며, 그보다 약간 더 긴 두 세 문장 쓰기의 경우는 ‘내용’ 측면의 평가를 60~70% 정도로 더 확대하였다.

□ 평가 요소 및 문항 수

이러한 원칙 아래에 말하기 능력의 하위 능력에 따른 평가 요소와 비중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문제 유형	평가 요소	문항 비율
유형① : 1문장 문항 (4문제×2분)	문항1. 읽고 요약한 것을 기초로 쓰기	50% (각 30점)
	문항2. 문체 바꾸어 쓰기	
	문항3.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문장 만들기	
	문항4.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쓰기	
유형② : 2~3문장 문항 (2문제×5분)	문항5. 단락 전개 - 구체화	30% (각 60점)
	문항6. 상황에 맞는 짧은 글 쓰기	
유형③ : 1~2문단 문항 (2문제×15분)	문항7. 상황에 맞는 논리적 긴 글 쓰기	20% (각 130점)
	문항8. 상황에 맞는 설명적 긴 글 쓰기	
8문제, 50분(예비 시간 2분 포함)		100% (총 500점)

□ 문항 구성 계획

이러한 평가 대상과 문항 수를 실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답화 상황	답화 유형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계
		소개서, 안내문 , 설명문 , 기사 문, 보고서, 공문서, 계약서 등	논설문 , 제안서/요청서, 추천서, 건의문/ 탄원서, 의견서, 비평문, 자기소개서 등	편지, 사과의 글, 감사의 글, 축하의 글, 격 려·위로의 글,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사 적	유형 ①	● 문항3		● 문항2	2
	유형 ②				0
	유형 ③	● 문항8			1
공 적	유형 ①	● 문항4	● 문항1		2
	유형 ②	● 문항5		● 문항6	2
	유형 ③		● 문항7		1
계		2	2	4	8

4) 듣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 문항 구성의 원칙

듣기 능력 평가를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은 **문항 구성 원칙** 아래 구성되었다.

- 가능한 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담화 유형을 대상으로 듣기 능력을 평가한다.
- 국어 능력의 취약층으로 예상되는 50대 이상의 일반인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출제한다.
- 전체 문항의 수는 ‘사실적 듣기 능력’ 과 ‘추론적 듣기’ 능력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비판적 듣기 능력’ 도 일부 포함한다.

□ 평가 요소 및 문항 수

이러한 원칙 아래에 듣기 능력의 하위 능력에 따른 평가 요소와 문항 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듣기 능력	평가 요소	문항 수		문항 비율
가. 사실적 듣기 (5문항)	① 세부 정보의 확인	2	5	42%
	② 핵심 정보의 파악	2		
	③ 지시의 이행	1		
나. 추론적 듣기 (6문항)	① 내용의 추리	3	6	50%
	② 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	2		
	③ 적용	1		
다. 비판적 듣기 (1문항)	① 내용 또는 형식의 평가	1	1	8%
		12		100%

□ 문항 구성 계획

이러한 평가 대상과 문항 수를 실제 담화 유형에 적용할 때에는 개인적 상황과 공적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담화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 적	계
	대화	면담	안내 방송	강연	방송 뉴스	대화	회의	토의 토론	광고	대화	
가①		●					●				2
가②					●			●			2
가③			○								1
나①	○							●		○	3
나②		●							●		2
나③				●							1
다①						○					1
계	1	2	1	1	1	1	1	2	1	1	12

※ ○: 개인적 상황, ●: 공적 상황

5) 말하기 능력 평가 사전 준비

□ 문항 구성의 원칙

말하기 능력 평가를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은 **문항 구성 원칙** 아래 구성되었다.

- 가능한 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말하기 상황과 과제를 선정하여 말하기 능력을 평가한다.
- 말하기 과제 수행은 검사 방법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조사자와 피험자 간 일대일 면대면 상황으로 가정하고, 말하기 과제는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여 말하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 전체 문항 수는 말하기의 상황, 목적, 내용을 고려하여 네 문항으로 하고, 각 문항별 평가 요소는 말하기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별로 비중을 달리하여 구성한다.
- 문항 중 일부는 듣기·말하기의 소통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듣기 문항과 연계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평가 요소 및 문항 수

이러한 원칙 아래에 말하기 능력의 하위 능력에 따른 평가 요소와 비중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말하기 능력	평가 요소	비중	
가. 내용 구성	① 내용 선정	40%	60%
	② 조직	20%	
나. 표현 및 전달	① 어휘와 문법	10%	40%
	② 반언어적 표현	10%	
	③ 유창성	10%	
	④ 시간 활용	10%	
		100%	

□ 문항 구성 계획

이를 실제 담화 유형에 적용할 때에는 개인적 상황과 공적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능력 담화 유형	설명적		설득적		계
	경험을 설명하는 말	개념을 설명하는 말	주장하는 말	요청하는 말	
	○	○	●	●	
가①	40%	40%	40%	40%	40%
가②	20%	20%	20%	20%	20%
나①	10%	10%	10%	10%	10%
나②	10%	10%	10%	10%	10%
나③	10%	10%	10%	10%	10%
나④	10%	10%	10%	10%	10%
계	100%	100%	100%	100%	100%

※ ○: 개인적 상황, ●: 공적 상황

2. 문항 소개

1) 읽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 다음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읽고 1번과 2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2]



전원

동작/일시정지

표준 코스

세탁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코스입니다.

- 1** 빨랫감을 넣고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 자동으로 표준 코스가 선택됩니다.
- 2** [동작/일시 정지]버튼을 누르세요.
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판이 돌아간 후, 빨래 무게를 자동 감지하여 적당한 물높이를 표시해줍니다.
- 3** 물높이에 맞게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

참고

- ▶ 작동중 뚜껑을 열면 안전을 위해 모든 동작이 멈춥니다. (단, 뚜껑을 열어도 급수는 됩니다.)
- ▶ 온수만 사용시 뜨거운 물에 의한 옷감손상 방지를 위해 초기 20초간 온.냉수가 급수됩니다.
- ▶ 세탁진행중 세탁시간, 행굼횟수, 탈수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통세척 코스 및 일부 코스 제외)

1. ‘표준 코스’ 로 세탁하고자 합니다. 위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동작/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 ② **2** 과정을 마친 뒤, 이에 따라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었다.
- ③ **3** 과정을 마친 뒤, 원하는 세탁 시간과 행굼 횟수를 설정했다.
- ④ 작동을 시작한 뒤, 세탁물을 더 넣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눌렀다.

문항 번호	1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각 내용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각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세탁기의 ‘표준 코스’ 세탁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대상으로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은 채 설명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시중 시판 중인 세탁기 사용 설명서				
정답	④				
선택지	① [전원]을 버튼을 누르는 것이 첫째 과정(1), [동작/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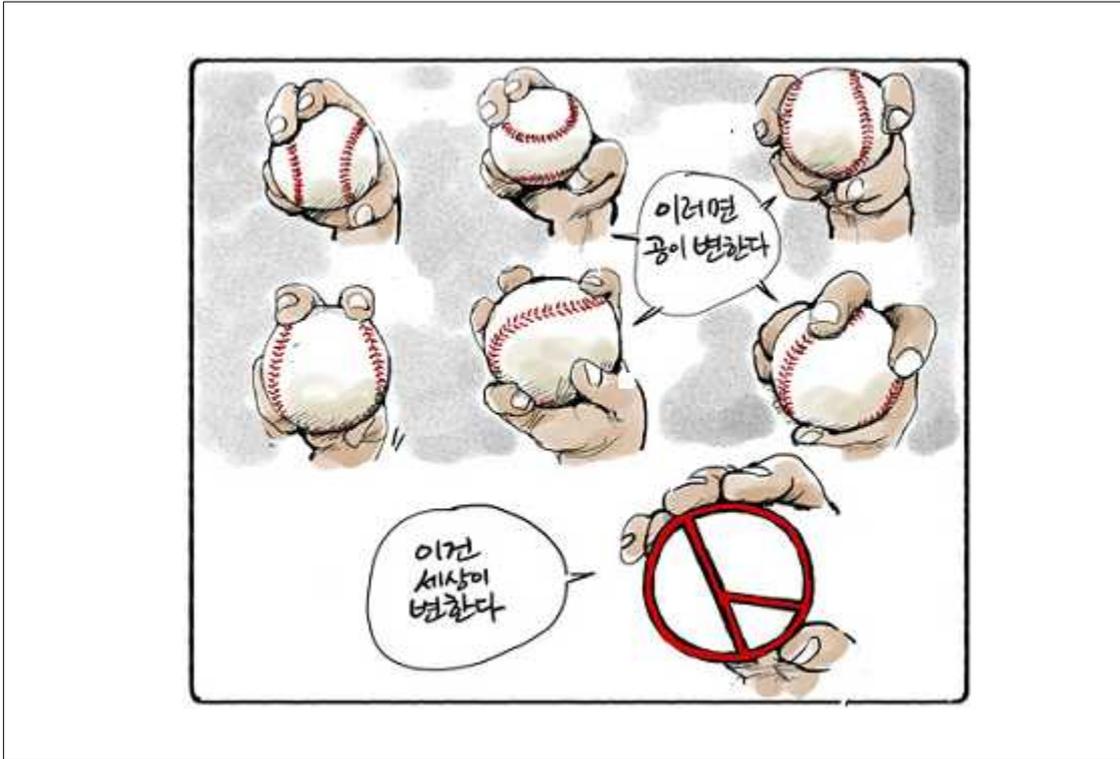
해설	<p>이 둘째 과정(2)로 제시되어 있다.</p> <p>② 과정 2에서 빨래 무게를 감지하여 표시해 주는 적당한 물높이에 따라서 적정량의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도록 설명되어 있다.</p> <p>③ 설명서의 내용상 ‘표준 코스’는 세탁 시간, 행굼 횟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참고’에서 세탁 중에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p> <p>④ 세탁물을 더 넣기 위해서는 동작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참고’의 설명에 따르면 작동 중 뚜껑을 열면 모든 동작이 멈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원]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다.</p>
-----------	--

2. 이 설명서를 보고도 알 수 없어서 제조회사에 문의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온수만 사용해서 세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② 세탁기 조작을 위한 버튼은 어디에 있나요?
- ③ ‘표준 코스’로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④ 빨래 할 때 물높이를 어떻게 맞추나요?

문항 번호	2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비판적 읽기 능력(내용의 효용성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우리가 접하는 텍스트 가운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세탁기의 ‘표준 코스’ 세탁 방법을 설명한 사용 설명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시중 시판 중인 세탁기 사용 설명서				
정답	①				
답지 해설	<p>① 설명서의 ‘참고’에는 온수만 사용할 때 옷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20초간 온, 냉수가 급수된다고는 설명하고 있으나, 온수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p> <p>② 설명서에서 그림을 통해 조작 버튼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있다.</p> <p>③ 설명서의 처음 ‘표준 코스’에서 ‘표준 코스’가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 코스라고 설명되어 있다.</p> <p>④ 설명서의 2에서 빨래의 무게를 자동 감지하여 적당한 물높이를 표시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p>				

3. 다음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만평입니다. 이 만평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공의 변화를 알기 어렵듯이 선거의 결과도 알기 어렵다.
- ② 선거를 통해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③ 선거에서는 정확하게 기표하는 일이 중요하다.
- ④ 구질을 변화시키듯이 선거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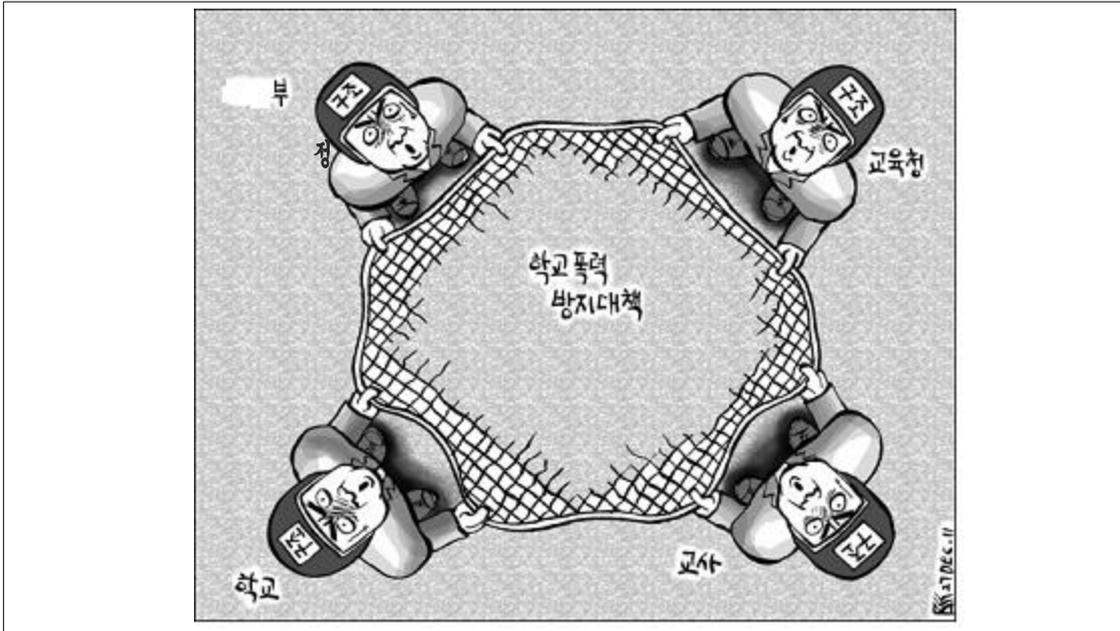
문항 번호	3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비명시적 중요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실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텍스트 중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비명시적인 중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신문 만평을 대상으로 비명시적인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내일신문 2011년 10월 25일자 만평(김경수 화백) http://www.naeil.com/news/table/Photo_ViewList_Cartoon.asp?mn_id=588&GotoPage=2				
정답	②				
답지 해설	<p>① 만평에서는 공을 쥐는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질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공의 변화를 알기 어렵다거나, 선거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p> <p>② 만평에서 공을 쥐는 방법을 바꾸어 구질을 변화시키듯이 선거에 의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p>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만평의 기표 표시는 ‘선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④ 구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4. 다음은 계속되는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만평입니다. 이를 보고 한 말 가운데 만평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실효성이 없는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을 찢어진 그물망으로 표현했구나.
- ② 학교 폭력 방지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네 명의 사람으로 표현했구나.
- ③ 학교 폭력 방지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함을 구조대원으로 표현했구나.
- ④ 학교 폭력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는 태도를 바라보기만 하는 표정으로 표현했구나.

문항 번호	4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중
평가 요소	비판적 읽기 능력(표현의 적절성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를 읽을 때 표현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고도의 읽기 능력이다. 표현의 적절성을 읽기 텍스트보다 만평에서 찾기가 수월하다는 고려 하에 실질적인 학교 폭력을 마련하지 못하는 관련 기관을 비판한 만평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히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1년 12월 27자 만평(배계규 화백).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112/h2011122620385475870.htm&ver=v002				
정답	③				
답지 해설	<p>① 만평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인물들이 들고 있는 그물에는 ‘학교 폭력 방지 대책’ 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그물 가운데가 뚫어져 있다는 것은 그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② 만평에 등장한 네 명에 대해 ‘정부, 교육청, 학교, 교사’ 로 밝혀주고 있는데, 이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직접적인 관련자라 할 수 있다.</p> <p>③ 만평의 네 인물이 구조대원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구조’ 해야 할 관련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기구에 소속된 인물이라는 정보는 찾을 수 없다.</p>				

<p>④ 만평에서 대책인 ‘그물’이 찢어졌으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물을 들고 위만 쳐다보기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p>
--

※ 다음 가정 통신문을 보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세요.[5~6]

○○ 가정통신문 ○○중 2012 - 17호	<h2 style="margin: 0;">학부모총회 안내</h2>	부서담당자: 교무지원부 심순애 전화번호: 02)503-1234 홈페이지: http://○○○.ms.kr														
<p>신입생의 입학과 재학생의 개학으로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입니다. 본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본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2012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며 학부모님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총회를 통해 학교에서 1년간 운영하려고 하는 교육방향과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2012학년도 ○○중학교를 함께 이끌어 주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 학부모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 시 : 2012. 3. 20(화) 14:00 2. 장 소 : 본교 대강당 3. 대 상 : ○○중학교 학부모 4. 일 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h style="width: 15%;">시 간</th> <th style="width: 55%;">내 용</th> <th style="width: 30%;">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30 ~ 14: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학부모 총회</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 </div> </div>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대강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00 ~ 14: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 ~ 15:30</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담임교사</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회 조직 </div> </div>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각 교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30 이후</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와의 시간</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 연간 운영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학생지도 상담 </div> </div> </td> </tr> </tbody> </table>			시 간	내 용	장 소	13:30 ~ 14: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학부모 총회</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 </div> </div>	대강당	14:00 ~ 14:50	15:00 ~ 15:3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담임교사</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회 조직 </div> </div>	각 교실	15:30 이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와의 시간</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 연간 운영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학생지도 상담 </div> </div>		
시 간	내 용	장 소														
13:30 ~ 14: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학부모 총회</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 </div> </div>	대강당														
14:00 ~ 14:50																
15:00 ~ 15:3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담임교사</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회 조직 </div> </div>	각 교실														
15:30 이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와의 시간</div> <div style="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 연간 운영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학생지도 상담 </div> </div>															
<p>2012년 3월 12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 0;">○○ 중 학교 장 홍길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절 취 선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2012학년도 학부모총회 참석 동의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bbdefb;"> <th rowspan="2" style="width: 8%;">학년</th> <th rowspan="2" style="width: 8%;">반</th> <th rowspan="2" style="width: 8%;">번호</th> <th rowspan="2" style="width: 25%;">학생성명</th> <th colspan="2" style="width: 51%;">해당란에 참석여부를 ○로 표시</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bbdefb;"> <th style="width: 25%;">참석희망</th> <th style="width: 26%;">참석불희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학부모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중학교장 귀하</p>			학년	반	번호	학생성명	해당란에 참석여부를 ○로 표시		참석희망	참석불희망						
학년	반	번호					학생성명	해당란에 참석여부를 ○로 표시								
			참석희망	참석불희망												

5. 이 가정 통신문의 내용을 잘 이해한 학부모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① 학부모총회에 참석해서 학부모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해야겠어.
- ② 학부모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으니 우리 아이의 반 교실로 가야겠어.
- ③ 학부모총회에 참석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승인해 줘야 하겠어.
- ④ 학부모회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학부모총회에도 참석할 필요가 없겠어.

문항 번호	5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상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세부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은 정확한 읽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학부모들이 많이 접하는 가정 통신문 가운데 학부모총회와 학부모회 조직에 참여를 요청하는 가정 통신문을 대상으로 그 안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과천 중학교 가정 통신문(변형)				
정답	②				
답지 해설	<p>① 가정 통신문의 내용 중 ‘4. 일정’의 표에 따르면 ‘학부모총회’에서는 ‘2012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와 ‘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고, ‘학부모회의 조직’은 ‘담임교사와의 시간’에서 하도록 했으므로 학부모회 일원으로 활동할 의향은 그 시간에 밝혀야 한다.</p> <p>②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담임교사와의 시간’은 ‘각 교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부모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실에 가서 의향을 밝혀야 한다.</p> <p>③ 가정 통신문의 내용에서 ‘학부모총회’에서는 ‘2012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와 ‘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을 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승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p> <p>④ ‘학부모총회’는 ‘학부모회’와는 무관하게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부모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하여 ‘학부모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				

6. 학교에서 이 가정 통신문을 보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학교의 교육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학교 운영 방식의 특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③ 학부모총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 ④ 학교 행사에 도움을 준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 번호	6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글 쓴 목적이나 동기 파악 능력)				
출제 의도	글을 쓴 목적이나 동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정확한 글 읽기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학부모총회 및 학부모회 조직에 적극 참여를 요청하면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 통신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과천 중학교 가정 통신문(변형)
정답	③
답지 해설	<p>① 가정 통신문의 첫 문단 첫째 문장의 내용은 학교의 홍보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행사의 안내나 행사 참여 요청 내용 등이 불필요한 것이 된다.</p> <p>② 이 가정 통신문에는 학교 운영 방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p> <p>③ 이 가정 통신문에서는 ‘학부모총회’ 등의 행사가 있음을 알리고 그 행사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마지막의 ‘동의서’ 역시 이러한 참여 의향을 묻고 있는 것이다.</p> <p>④ 이 가정 통신문은 앞으로 있을 행사 참여를 요청하고 있을 뿐, 이전의 행사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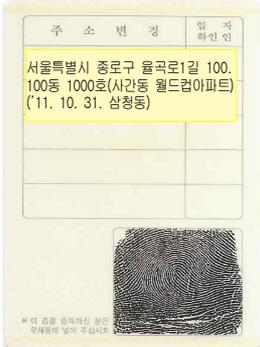
※ 다음 안내문을 보고 7번과 8번의 물음에 답하세요.[7~8]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새주소) 변경 사용 안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문서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번 주소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 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는 아래의 부착 요령을 참고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 전(A)	스티커 부착 후(B)	부착 요령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홍길동</td> <td style="padding: 5px;">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1길 100. 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컵아파트) ('11. 10. 31. 삼청동)</td> </tr> </table> <p>※ ‘성명’ 부분을 잘라 내어 스티커 뒷면을 떼어 내고 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그림(B)과 같이 붙이면 됩니다.</p>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1길 100. 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컵아파트) ('11. 10. 31. 삼청동)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1길 100. 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컵아파트) ('11. 10. 31. 삼청동)			

7. 이 안내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2011년 10월 3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써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네.
- ② 한 번 교부받은 스티커가 훼손되면 다시 교부받을 길이 없으니 조심해야겠어.
- ③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아서 내가 스스로 붙여야 하는구나.
- ④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으려면 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만 하는구나.

문항 번호	7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세부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은 정확한 읽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는 주민등록증 부착 도로명 주소 스티커 교부를 알리는 구청의 안내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및 광진구청 누리집 http://www.gwangjin.go.kr/_board-read.do?boardId=MIT038&boardNo=132244154749093&command=READ				
정답	③				
답지 해설	<p>① 안내문의 내용에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써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이해이다.</p> <p>② 안내문에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p> <p>③ 안내문에서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하면 이를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스티커 부착 방법을 그림으로 안내까지 하고 있다.</p> <p>④ 안내문에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p>				

8. 이 안내문의 작성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으니 제목을 ‘주민등록증용 도로명 주소(새주소) 스티커 교부 안내’로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 ② 첫째 문단 내용은 셋째 문단 내용과 유사하니 셋째 문단 자리에서 합쳐서 한 문단으로 만드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 ③ 그림은 둘째 문단 내용과 관련된 것이니까 둘째 문단이 끝난 뒤에 오도록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 ④ 안내문 내용의 흐름을 보면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문항 번호	8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비판적 읽기 능력(구성의 적절성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의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고도의 읽기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제목, 본문, 그림’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스티커 교부 안내문 구성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및 광진구청 누리집 http://www.gwangjin.go.kr/_board-read.do?boardId=MIT038&boardNo=132244154749093&command=READ				

정답	①
답지 해설	<p>① 이 안내문의 내용은 대부분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글이다. 그런데 제목은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새주소) 변경 사용’ 으로만 되어 있어 내용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p> <p>② 첫째 문단에는 도로명 주소 변경 경위가, 셋째 문단에는 ‘스티커 부착 방법’ 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내용상 서로 거리가 있다.</p> <p>③ 그림은 스티커 부착 방법 안내이므로 셋째 문단의 ‘스티커 부착 안내’ 와 관련된 내용이다.</p> <p>④ 둘째 문단은 스티커 교부 및 안내의 주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스티커 부착 방법을 밝힌 셋째 문단이 둘째 문단으로 오면 ‘도로명 주소 개정 경위 → 스티커 부착 요령 → 스티커 교부 안내’ 순서가 되어 둘째 문단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p>

※ 다음 기사를 보고 9번과 10번의 물음에 답하세요.[9~10]

“늘 줄 몰라” 한국 중장년 퇴직 후 하는 일이…
한국 중·장년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 … 64%가 “취미 없다”
복지부·연금공단 1035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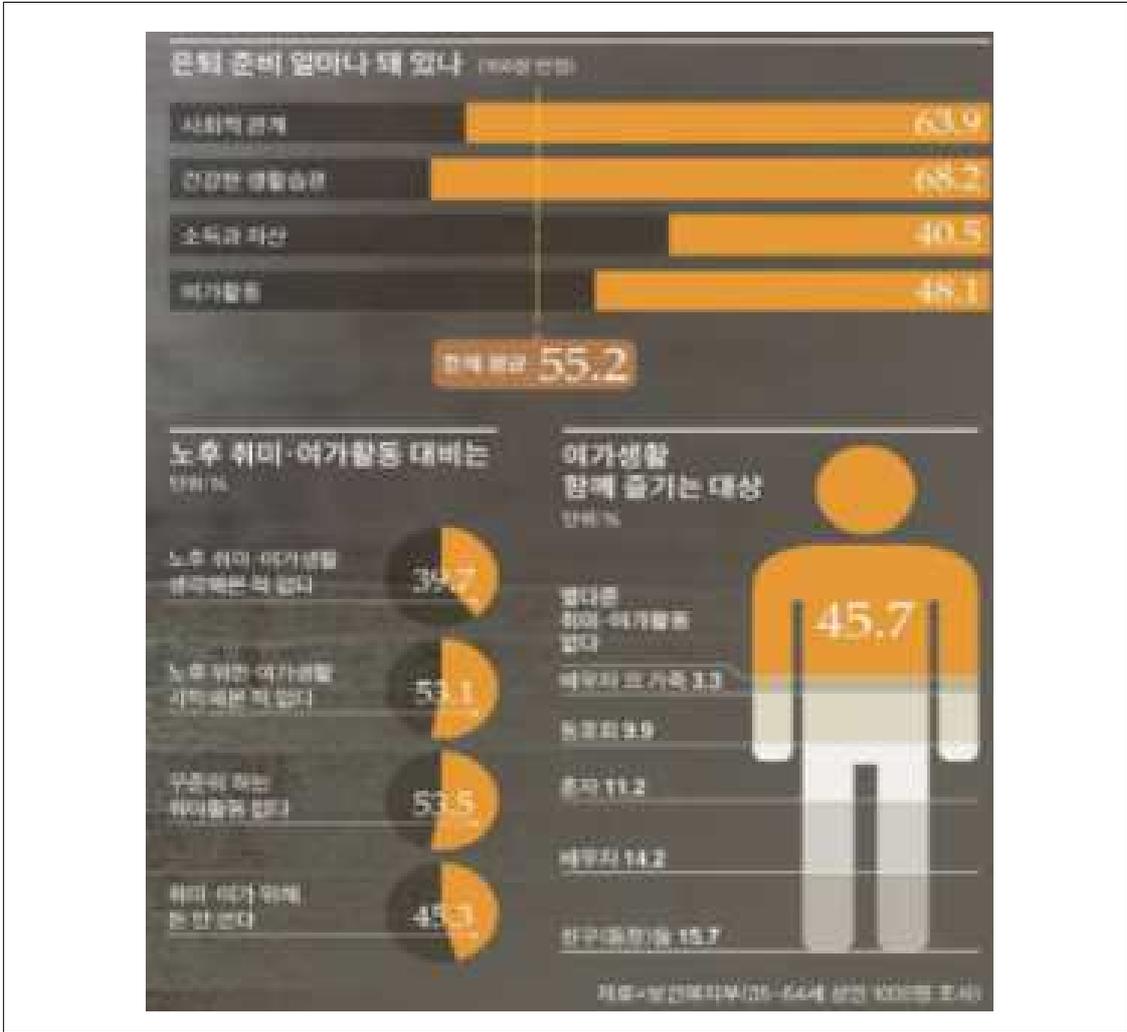
직장을 은퇴하면 경제 형편과 건강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즐길 게 있어야 하고 같이 즐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박 모(58) 씨는 지난달 32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 한 달여간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게 그의 유일한 여가생활이다. 취미 생활은 없다. 회사 다닐 때 평생 밤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 즐길 시간이 없었고 즐길 방법도 몰랐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책을 가끔 보는 정도였다. 사회적 관계도 그렇다. 회사 동료나 친구 몇몇 말고는 딱히 다른 모임을 갖고 있지 않다. 은퇴하고 나니 만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박 씨의 노후를 위한 여가생활 준비 점수는 21점.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가'에 해당한다. 박씨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은퇴 후 여가생활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모습은 한국의 중년 남녀를 상징한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35~64세)에게 적용해보니 여가활동 준비 점수가 48.1점(만점은 100점)에 불과했다(도표 참조). 소득과 자산이 40.5점으로 가장 낮았고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네 가지 분야 42개 지표를 따졌는데 평균 55.2점으로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득이나 건강 분야 준비 실태가 부실하다는 조사는 많았지만 여가나 사회적 관계를 따진 것은 처음이다.

여가생활 분야는 준비 현황과 의지 등 일곱 가지 세부 항목을 조사해 점수화했다. 응답자의 39.7%는 노후 취미나 여가생활을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거의 없었다. 53.1%는 노후를 고려해 취미·여가생활을 시작한 적이 전혀 없었고, 46.8%는 지금도 별다른 취미·여가 생활이 없다고 답했다. 일곱 가지 세부 항목을 종합하면 응답자의 64.1%가 노후 여가생활 인식과 준비에 관심이 적고 현재 여가생활에도 소극적인 유형에 속했다. 노후 여가 준비를 잘하고 지금도 적극적인 사람은 21.2%에 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직장에 다닐 때 일만 하다 보니 노후 여가활동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태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여가를 보낼지를 모른다. 봉사활동도 안 해본 것이어서 쉽게 발을 들여놓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 과장은 “시간을 쪼개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미리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9. 이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 주변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기사야.
- ② 실태 조사의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 조사의 배경을 소개한 기사야.
- ③ 도표를 적절히 활용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기사야.
- ④ 끝에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결론을 대신하고 있는 기사야.

문항 번호	9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글의 구조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정확한 읽기를 위해서는 텍스트가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의 직장인들이 노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전체의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중앙일보 2012년 7월 16일자				
정답	②				
답지 해설	① 이 기사에서는 중간에 ‘광주광역시 박 모 씨’ 실제 예를 들어 기사에서 문제				

	<p>삼고 있는 사실이 실재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p> <p>② 이 기사에서는 실태 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기도 하고 표로 보여주기도 하고 있으나 그 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p> <p>③ 기사가 줄글로 이루어지는 만큼 수치 등의 조사 결과는 쉽게 눈에 띄이지 않으므로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기 위해 표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p> <p>④ 기사의 마지막에는 ‘보건복지부’ 과장의 말로 기사를 맺고 있는데, 이 말은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p>
--	---

10.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의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 후 여가 생활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 ② 예로 든 박 모 씨의 경우는 기사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 ③ 퇴직 전에 여가 생활을 익힌다고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④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미리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항 번호	10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비판적 읽기 능력(내용의 타당성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를 읽을 때 대부분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읽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노후 여가생활 준비에 소홀한 실태를 밝힌 기사에 제시된 사실들의 현실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고 있는 사실				
자료 출처	중앙일보 2012년 7월 16일자				
정답	④				
답지 해설	<p>①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 후 여가 생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태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다.</p> <p>② 예로 든 박 모 씨의 경우가 노후 여가 생활 준비에 소홀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예이다.</p> <p>③ 보건복지부 과장의 말 속에 노후 여가 생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여가를 보낼지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실이 기사 전반의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다.</p> <p>④ 이 기사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의 여가 생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적절한 것이다.</p>				

※ 다음 계약서를 보고 11번과 12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1~1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입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 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 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 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

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화,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9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11. 계약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제1조의 “중도금” 이나 “잔금” 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7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구나.
- ② 제4조의 “해지” 시에는 제8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구나.
- ③ 제5조의 “종료” 시점은 제2조에서 분명히 기재하는구나.
- ④ 제9조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제8조에 있는 ‘과실’ 이 되는구나.

문항 번호	11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중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각 내용의 이해도 중요하지 만 각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 사이의 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대상으로 내용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http://blog.naver.com/flogjump?Redirect=Log&logNo=90150437384				
정답	②				
답지 해설	<p>① 제1조의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기한 등은 ‘계약 내용’ 에 해당하므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라 할 수 있으므로 제7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p> <p>② 제4조의 ‘계약의 해지’ 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인데, ‘제3조’ 를 위반했을 경우(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전대했을 경우)이므로 중개인의 개입 이후의 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개인의 개입 여지가 없으므로 제8조에서 명시한 중개 수수료의 문제와는 무관하다.</p>				

	<p>③ 제5조의 ‘계약 종료’ 시점은 제2조에서 명시하는 ‘존속 기간’, 곧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이 된다.</p> <p>④ 제9조에서 밝힌 ‘확인, 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등의 교부는 중개인이 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말한 ‘중개업자의 과실’에 해당한다.</p>
--	--

12. 주택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요?

- ① 제1조와 제2조
- ② 제3조와 제4조
- ③ 제6조와 제7조
- ④ 제8조와 제9조

문항 번호	12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글 쓴 목적이나 동기 파악 능력)				
출제 의도	글을 쓴 목적이나 동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정확한 글 읽기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대상으로 각 조항이 어떠한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http://blog.naver.com/flogjump?Redirect=Log&logNo=90150437384				
정답	③				
답지 해설	<p>① 제1조는 ‘계약 내용’, 제2조 ‘는’ 존속 기간 ‘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p> <p>② 제3조는 ‘용도 변경 및 전대 등’의 경우, 제4조는 ‘계약 해지’의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p> <p>③ 제6조는 ‘계약의 해제’, 제7조 ‘는’ 채무 불이행과 손해 배상 ‘을 위한 규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배상 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p> <p>④ 제8조와 제9조는 모두 중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p>				

※ 다음 공익광고를 보고 13번과 14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3~14]



뽑는 데 1초 자라는 데 20년

1톤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만 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uncil)

13. 이 공익광고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 ①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합시다.
- ② 일회용 종이컵의 판매를 금지합시다.
- ③ 일회용 종이컵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맙시다.
- ④ 일회용 종이컵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듭시다.

문항 번호	13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비명시적 중심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실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텍스트 중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비명시적인 중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말하고자 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중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중심 내용을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http://www.kobaco.co.kr)의 ‘공익광고자료실’ (인쇄 공익광고)				

정답	①
답지 해설	<p>① 이 공익광고는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해 사용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p> <p>② 이 공익광고는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줄이자는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p> <p>③ 일회용 종이컵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말자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p> <p>④ 이 공익 광고는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줄이자는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종이컵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렇게 본다면 공익광고의 그림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p>

14. 이 공익광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광고를 잘못 이해한 말은 무엇인가요?

- ① 광고의 글과 그림이 결합되어 광고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광고의 글 중 ‘뽑는 데’ 는 그림의 종이컵 인출 장치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 ③ 광고의 글 중 ‘자라는 데’ 는 그림의 나무 모양의 종이컵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 ④ 광고의 작은 글자로 된 글은 큰 글자로 된 글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항 번호	14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중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출제 의도	<p>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각 내용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각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글과 사진 등 여러 구성 요소들의 구성을 통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을 전하는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이들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p>				
자료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http://www.kobaco.co.kr)의 ‘공익광고자료실’ (인쇄 공익광고)				
정답	④				
답지 해설	<p>① 이 공익광고는 기본적으로 그림과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p> <p>② 광고의 글 가운데 ‘뽑는 데’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종이컵 인출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쉽게 ‘뽑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p> <p>③ 광고의 글 가운데 ‘자라는데’ 는 글의 다른 내용과 더불어 ‘나무’ 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쓰면 다시 나무가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이컵이 나무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관련지어 주고 있다.</p> <p>④ 광고의 큰 글자로 된 내용은 광고의 그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작은 글씨로 된 글의 내용이다.</p>				

※ 다음 사설을 보고 15번과 16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5~16]

주민들이 나서서 매듭지은 청주-청원 통합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네 번의 도전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청원군은 그 해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6.8%, 찬성률 77.2%로 통합을 결정했다. 청주시가 이미 시의회 의결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2014년 통합 청주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첫 사례인 이번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官)보다 민(民)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여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반발을 샀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두 자치단체는 주민단체를 통해 통합의 기반을 다져왔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원-청주 통합 시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9개 사항 7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합의를 일궈나갔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전제조건 가운데 가장 예민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실시해 요금 인하 효과를 보여준 것이 주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두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준비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청주-청원의 주민자율 통합 모델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재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2010년 통합한 경남 창원시는 졸속 추진의 후유증으로 통합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아직도 내분을 겪고 있다. 시의회에서 통합 이전의 3개 시로 다시 분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낼 정도다. 행정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탈이 나게 돼 있다.

15. 이 사설에서 말하고자 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행정구역의 통합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행정구역의 통합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모아야 한다.
- ③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의 통합 시도는 취소되어야 한다.
- ④ 행정구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야 한다.

문항 번호	15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읽기 능력 가운데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이다. 여기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중심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일간 신문의 사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2년 6월 29일자 사설				
정답	④				
답지 해설	<p>①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 구역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p> <p>② 행정구역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는 필자의 중심 내용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언급되어 있을 뿐 이러한 사례를 더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 볼 수 없다.</p> <p>③ 이 사설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의 통합에서 청주-청원 통합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p> <p>④ 이 사설의 중심 내용은 제목은 물론 마지막 문단의 행정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주민 설득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뒤탈이 난다는 내용 등에서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p>				

16. 이 사설을 쓴 이의 입장에 대한 추측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이번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널리 권장할 만한 예로 보고 있구나.
- ②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구나.
- ③ 이전에 있었던 창원과 마산, 진해의 통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 ④ 주민과 관청 간의 의사소통을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 요건으로 보고 있구나.

문항 번호	16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글쓴이의 태도나 입장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를 읽으면서 글쓴이가 글의 대상이 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나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중심 내용의 사설을 대상으로 필자가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한국일보 2012년 6월 29일자 사설				
정답	②				
답지 해설	<p>① 글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에서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② 행정구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거주 환경을 바꾸는 그 자체가 불</p>				

	<p>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p> <p>③ 이전에 이루어진 경남 창원시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 추진의 후유증으로 현재도 내분을 겪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p> <p>④ 행정구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관청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p>
--	--

※ 다음 추천서를 보고 17번과 18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7~18]

추천서

피추천인 : 홍길동

저는 위 사람과 대학에서 사제 관계에 있으면서 수업이나 학교생활 등을 같이 했었기에 위 사람의 능력과 됴됨이를 잘 알고 있어 흔쾌히 추천서를 씁니다.

여러 졸업생 가운데 위 사람을 떠올리면 적극성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은 물론 학과 전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학과의 학생회 대표로서 적극적인 추진력과 책임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전체 행사인 체전 행사 기간 동안 학과 학생들을 이끄는 동시에 전체 행사 진행 요원으로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원만하게 행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또한 위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우들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섰는가 하면, 서먹해지기 쉬운 편입생들의 사정을 고려한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학과의 인화와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만, 위 사람은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학기 중에 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였음은 물론, 방학 중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품성과 됴됨이를 지니고 있기에 저는 위 사람이 귀교의 신입 교사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위 사람이 지닌 품성과 능력이 학생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발휘됨은 물론, 귀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적극 추천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대학교 교수 김○○

17. 이 추천서는 어떠한 순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나요?

- ①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밝힌 뒤, 추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피추천인의 장점을 밝힌 뒤,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피추천인이 교사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밝힌 뒤,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피추천인이 교사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밝힌 뒤,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문항 번호	17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글의 구조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정확한 읽기를 위해서는 텍스트가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 제자를 학교의 교사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대상으로 이 추천서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정답	①				
답지 해설	<p>① 이 추천서에서는 피추천인과 추천인의 관계를 먼저 밝힘으로써 추천 내용이 신빙성이 있음을 암시한 뒤, 추천하는 근거가 되는 피추천인의 성품,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p> <p>② 피추천인의 장점은 추천의 근거로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p> <p>③ 피추천인이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제시한 뒤에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교사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p> <p>④ 이 추천서는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 → 피추천인의 능력, 성품(장점) → 교사로 적합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p>				

18. 이 추천서를 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을 추측해 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대학교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을 마련하는 곳이다.
- ②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는 대학교 시절의 스승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 ③ 교사는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④ 조직의 인화와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

문항 번호	18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전제나 가정의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주장의 타당성이나 신빙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 작성 시 필자가 가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교 제자를 교사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바탕으로 그 추천서를 쓴 필자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정답	③				
답지 해설	<p>① 이 글이 피추천인의 장점을 밝혀 추천하는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가 사회생활의 기본 요건을 마련하는 곳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기본적인 주장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p> <p>② 피추천인과 추천인의 관계를 먼저 밝힌 이유는, 피추천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알 수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p>				

	<p>사람됨이나 능력을 대학 스승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p> <p>③ ‘타인에 대한 배려심, 자기 개발 노력’ 등은 피추천인의 장점으로 언급한 사실이며, 이렇게 볼 때 교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교사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자기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④ 조직의 인화,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은 피추천인의 장점으로 언급한 사실이므로 이 역시 교사에게 필요한 요소임을 전제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p>
--	--

※ 다음 공문을 보고 19번과 20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9~20]



○ ○ 구



수신자 국립국어원장
(경유)
제목 <표준 언어 예절> 책자 배부 요청

1.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귀원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덜고자 귀원에서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 책자를 우리 구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바른 언어생활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책자 배부 요청을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부수: 65권(구청 전 부서 36, 동 주민 센터 16, 기타 13). 끝.

○ ○ 구 청 장

담당자	총무계장	총무과장	03/14
홍길동	임격정	장길산	
협조자			
시행	총무과-4731	(2012. 03. 15.)	접수 국립국어원-257 (2012. 03. 15.)
우	121-711 서울시 ○○구 ○○로 212(○○동)		/ www.korea.go.kr
전화	(02)1234-4567	전송 (02)1234-7654	/ ki ldong@korea.go.kr / 대국민공개

19. 이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표준 언어 예절>은 맞춤법과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는 책이다.
- ② <표준 언어 예절>은 국민들의 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 ③ ○○구 관내의 동 주민 센터에 비치할 <표준 언어 예절> 책자는 총 65권이다.
- ④ ○○구청은 <표준 언어 예절> 책자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국립국어원에 밝히고 있다.

문항 번호	19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세부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은 정확한 읽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에 <표준 언어 예절> 책자 배부를 요			

	칭하는 공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국립국어원 수신 공문(2012년 3월 15일자)
정답	②
답지 해설	<p>①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을 덜고자 <표준 언어 예절>의 배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책은 ‘맞춤법, 표준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언어 예절’을 규정한 책이다.</p> <p>②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도움이 되는 책이 <표준 언어 예절>이므로 이 책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임을 알 수 있다.</p> <p>③ 이 공문에서 요청하고 있는 65권은 ‘구청 전 부서’에 비치할 36권과 ‘동 주민 센터’에 비치할 16권, ‘기타’ 13권을 합한 부수이다.</p> <p>④ 이 공문에서는 국립국어원에 <표준 언어 예절>의 배부를 요청한 것이지, 책자의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p>

20. 이 공문 작성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국립국어원은 공적인 목적의 일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② 공공 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책자를 배부 받을 수 있다.
- ③ 공공 기관은 기밀 사항이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국민들이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등의 사용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항 번호	20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전제나 가정의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주장의 타당성이나 신빙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 작성 시 필자가 가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표준 언어 예절> 책자의 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상으로 이 공문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국립국어원 수신 공문(2012년 3월 15일자)			
정답	③			
답지 해설	<p>① ○○구청에서 국립국어원에 이렇게 요청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공적인 목적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는 가정이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p> <p>②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책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 공공 기관이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배부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p> <p>③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책의 배부를 요청한 것은 국립국어원에 어떠한 기밀 사항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밀 사항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p> <p>④ ○○구청에서 <표준 언어 예절>의 책자를 배부 요청한 목적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덜고자’라고 했으므로 현재 국민들이 이러한 언어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p>			

※ 다음 편지를 보고 21번과 22번 물음에 답하세요.[21~22]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보낸 편지와 사진을 잘 받았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던데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아들을 낳았다고 산부인과에서 아빠가 외할머니와 열싸안고 만세 불렀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군인이 됐다니 대견하다. 논산 훈련소 연병장으로 씩씩하고 늠름하게 걸어 들어가는 네 뒷모습을 보고 엄마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아들아, 엄마는 훈련소란 용광로라고 생각한다. 각종 성분이 함유된 철광원석들이 한곳에 모여 뜨겁게 녹아내려 강한 철로 만들어지는 곳, 용광로. 훈련소가 바로 그 용광로다. 그동안 몸과 마음의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을 가슴에 새겨 강철처럼 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

삼인행필유야사(三人行必有我師),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다.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모인 친구들이 너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워라.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네가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 여름날 보름 동안 자전거로 해남 땅끝까지 완주한 불굴의 정신을 가진 아들이니까……, 마당에 있는 그 영광의 자전거가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주기도 한단다.

강하고 현명한 우리 아들 ○○, 파이팅!

3월 4일에 엄마가

21. 이 편지에서 ‘엄마’가 말하고자 한 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훈련 중에 부상을 조심해라.
- ② 훈련을 보람 있게 마치기를 바란다.
- ③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
- ④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문항 번호	21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읽기 능력 가운데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이다. 여기에서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아들에게 보낸 엄마의 편지를 대상으로, 이 편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개인 블로그의 글을 대상으로 대폭 운문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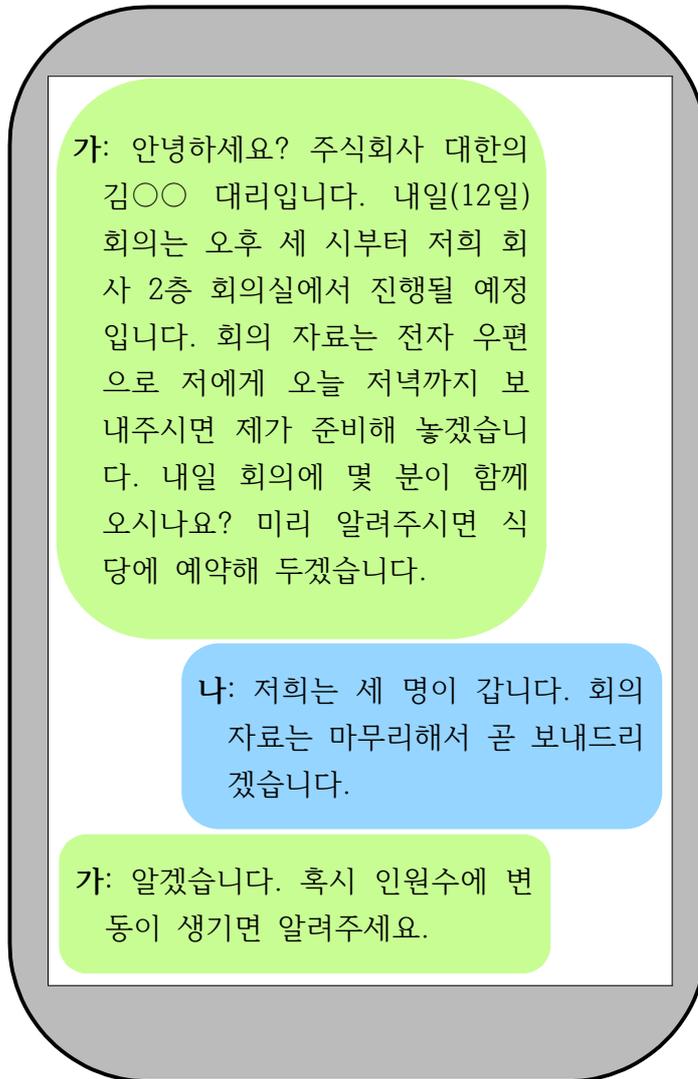
답지 해설	<p>① 편지 내용 가운데 부상을 당한 아들에 대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이 편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p> <p>② 편지가 군인인 아들의 모습에 대한 뿌듯함과 의미 있게 훈련을 받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편지는 훈련을 보람 있게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③ ‘삼인행필유아사’ 라는 말을 통해 훈련소에서 친구들에게 배우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당부하는 일부의 내용일 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p> <p>④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라는 내용은 이 편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p>
-------	---

22.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 ① ‘엄마’ 는 훈련소에서 아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다.
- ② ‘엄마’ 는 군인을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아들’ 은 훈련소에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 ④ ‘삼인행필유아사’ 는 이 가정의 가훈이다.

문항 번호	22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생략된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p>텍스트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론하여 읽을 때 텍스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보람 있게 훈련을 받기를 바란다는 엄마의 마음이 표현된 편지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p>				
자료 출처	개인 블로그의 글을 대상으로 대폭 운문				
정답	③				
답지 해설	<p>① 편지에서는 훈련소로 들어가는 아들을 본 사실과 그 이후 보내온 아들의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엄마가 직접 훈련소에서 아들의 훈련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p> <p>② 엄마는 훈련을 받는 아들에게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보람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을 뿐, 직업인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서도 알기 어렵다.</p> <p>③ 편지에 나타난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의 사진 등을 통해서 아들이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한 적이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p> <p>④ ‘삼인행필유아사’ 라는 말은 아들에게 당부하기 위해 인용한 말로서 이 말이 이 가정의 가훈이라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미루어 알기 어렵다.</p>				

※ 다음 문자 메시지를 보고 23번과 24번의 물음에 답하세요.[23~24]



23.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현재 회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 ② 회의 자료는 ‘주식회사 대한’에서 작성한다.
- ③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 ④ ‘주식회사 대한’의 사원과 외부인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문항 번호	23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세부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은 정확한 읽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 가운데 회의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와 그 답신을 대상으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정답	②				

답지 해설	<p>① ‘가’가 회의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면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회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p> <p>②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인 ‘가’가 회의 자료를 보내주기를 요청하였고, 상대인 ‘나’가 곧 회의 자료를 보내겠다고 말했으므로 회의 자료 작성은 ‘나’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p> <p>③ 회의 참석 인원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가 몇 명이 회의에 참석하는지를 묻고 있다.</p> <p>④ 회의를 안내한 ‘가’는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이고, 안내를 받은 ‘나’는 외부인임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이 회의에는 주식회사 대한의 사원과 외부인사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p>
--------------	--

24. 이 문자 메시지에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 ① ‘주식회사 대한’에서는 회의에 최소 인원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 ② ‘가’는 ‘나’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이다.
- ③ ‘가’와 ‘나’는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 ④ 회의는 저녁 식사 시간 무렵까지 진행될 것이다.

문항 번호	24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추론적 읽기 능력(생략된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론하여 읽을 때 텍스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많은 정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대상으로 생략된 내용을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정답	④				
답지 해설	<p>① 주식회사 대한의 직원 ‘가’는 식당 예약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물은 뒤 인원수에 변동이 있으면 알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최소 인원이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는 어렵다.</p> <p>② ‘가’는 내일 있을 회의를 안내하기 위해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내하고 있을 뿐,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p> <p>③ ‘가’는 주식회사 대한의 사원이고 ‘나’는 외부인사임을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이 둘 사이가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p> <p>④ ‘가’의 안내 내용 중 회의가 오후 세 시에 개최된다고 하였는데 식당을 예약한다는 사실은, 저녁 식사 시간 무렵까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p>				

25. 다음의 전자 우편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전자 우편을 보낸 시점은 방학 기간이다.
- ② 전자 우편을 보낸 사람의 직업은 교사이다.
- ③ 전자 우편을 보낸 목적은 방문 시각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전자 우편을 보낸 사람은 받는 사람의 오전 일정을 모르고 있다.

문항 번호	25	영역	읽기	예상 난이도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 능력(세부 내용 파악 능력)				
출제 의도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은 정확한 읽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는 대학 교수를 찾아뵙고자 하는 적합한 시간을 문의하는 교사의 전자 편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편집진 제작				
정답	③				

<p>답지 해설</p>	<p>① 내용 중, ‘지금 방학인지라 이 시간을 빌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전자 편지를 보낸 시점이 방학 기간임을 알 수 있다.</p> <p>② 내용 중, ‘제가 담임교사로서의 일이며’ 를 통해서 이 전자 편지를 보낸 사람이 교사임을 알 수 있다.</p> <p>③ 내용 중, ‘언제 찾아뵙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방문 시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p> <p>④ 내용 중, ‘내일 오전에 학교에 계시다면, 선생님 편한 시간에 잠시 찾아봐어도 될지요?’ 라는 내용으로 보아 전자 편지를 받는 사람(교수)의 오전 일정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

2) 문법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1.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재는 왜 저렇게 출씩대니?
- ② 더 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 ③ 그렇게 말하다니 참 어의가 없구나.
- ④ 그 옷에는 이 신발이 문안하게 어울려.

문항 번호	1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어문 규범(맞춤법)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낱말을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라 바르게 쓸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①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①: ‘출씩대니?’는 기본형 ‘출씩대다’의 의문형으로, 한글 맞춤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된소리로 적었으므로 바른 표기이다.</p> <p><오답지></p> <p>②: ‘낮은’이 바른 표기이다.</p> <p>③: ‘어의’가 바른 표기이다.</p> <p>④: ‘무난하게’가 바른 표기이다.</p>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그 도시는 별로 구경할 게 없다.
- ② 서울에서 부터 대전까지 걸어갔다.
- ③ 얼마나 많이 먹었는 지 아직도 배가 부르다.
- ④ 작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만 삼천오백 달러 이다.

문항 번호	2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어문 규범(띄어쓰기)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등의 띄어쓰기 등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바르게 띄어 쓸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①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①: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에 따라 의존 명사 ‘게’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었음.</p> <p><오답지></p> <p>②: ‘부터’는 조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에 따라 ‘서울에서부터’와 같이 붙여 써야 함.</p> <p>③: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에 따라 ‘지’가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에서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그러나 ‘먹었는지’에서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p> <p>④: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와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에 따르면 ‘이만 삼천오백 달러 이다’가 바른 표기이다.</p>				

3. 높임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 ② 이 상품은 정가가 이만 원이세요.
- ③ 선생님,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 ④ 손님, 모르는 것은 저한테 여쭙보세요.

문항 번호	3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어려움
평가 요소	문장(경어법)				
출제 의도	경어법은 우리말의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법 표지의 하나로서 어휘나 문법 표지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 문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높임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③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③: ‘말씀’은 남의 말을 높이는 경우와 자기의 말을 낮추는 경우 모두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저와 호응하여 자신의 말을 낮추는 데 사용되었다.</p> <p><오답지></p> <p>①: ‘-시-’는 주체 높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시래’는 ‘오다’의 주체인 ‘철수’를 높인 것이므로 어법에 맞지 않다. ‘오다’의 주체인 ‘철수’는 낮추고, 오라고 하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라셔’라고 표현하여야 한다.</p> <p>②: 가게에서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의 주체가 ‘상품’이 주체이므로 ‘이만 원이세요’가 바른 표현이다.</p> <p>④: 손님에 대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여쭙보세요’ 대신 ‘물어보세요’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p>				

4.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안절부절했다.
- ② 옷에 음식을 흘리다니 참 칠칠치 못하구나.
- ③ 새로 나온 휴대폰은 예전 것과 모양이 틀리다.
- ④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해야 한다.

문항 번호	4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어려움
평가 요소	어휘(단어의 의미와 용법)				
출제 의도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단어의 형식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기 쉬운 단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지식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②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②: ‘칠칠치 못하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라는 뜻의 ‘칠칠하다’라는 형용사와 ‘못하다’라는 보조 형용사가 결합한 형태로 문맥에 적절하게 쓰였다.</p> <p><오답지></p> <p>①: ‘안절부절못하다’가 적절한 낱말이다.</p> <p>③: ‘틀리다’는 ‘맞다’와 반대되는 낱말이다. 여기에서는 새로 나온 휴대폰과 예전 것의 모양을 비교하는 상황이므로, ‘다르다’가 적절한 낱말이다.</p> <p>④: ‘조장하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라는 뜻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야’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p>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값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 ① 가격 ② 비용 ③ 가치 ④ 대가

문항 번호	5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어휘(단어의 의미 관계)				
출제 의도	단어 간에는 상하의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 다양한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의 관계를 활용하면 문장에 쓰인 다의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문항에서는 단어의 유의 관계를 활용하여 다의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③				
선택지 해설	<p><정답지> ③: ‘값’은 다의어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ㄴ가문05(價文). 「2」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 「3」 어떤 일이나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4」 노력이나 희생에 따른 대가. 「5」 어떤 것에 합당한 노릇이나 구실. 「6」 『수학』 하나의 글자나 식이 취하는 수. 또는 그런 수치. 여기에서는 「3」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당한 낱말은 ‘가치’이다.</p> <p><오답지> ①: ‘가격’은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 ②: ‘비용’은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 ④: ‘대가’는 ‘값’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p>				

6. 극장 매표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다음 표현의 뜻은 무엇인가요?

만원사례(滿員謝禮)

- ① 정한 인원이 다 차서 혼잡하다.
- ② 정한 인원이 다 차면 선물을 주겠다.
- ③ 정한 인원이 다 찰 때까지 공연하겠다.
- ④ 정한 인원이 다 차게 해 주어서 고맙다.

문항 번호	6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어휘(단어의 의미와 용법)				
출제 의도	흔히 접하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언어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④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④: ‘만원사례(滿員謝禮)’는 만원을 이루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극장 같은 흥행장에서 만원이 되어 관객을 더 받지 못하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서, 흔히, 매표소에 써서 붙여 놓는다.</p> <p><오답지></p> <p>①: ‘혼잡하다’라는 뜻이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다.</p> <p>②: ‘사례’가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극장 매표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만원사례’의 경우 ‘선물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쓰지는 않는다.</p> <p>③: ‘만원사례’는 이미 관객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므로, 정한 인원이 다 찰 때까지 공연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p>				

7. 밑줄 친 표현의 쓰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형은 입이 짧아서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만 먹는다.
- ② 넌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하는 거냐?
- ③ 그날 시험에서 코가 납작해진 나는 더 이상 경기장에 가고 싶지 않았다.
- ④ 친구들과 놀고 싶어 오금이 저렸지만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나가지 못하였다.

문항 번호	7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어휘(관용 표현의 의미)				
출제 의도	관용 표현(또는 관용구)이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이다. 이 문항에서는 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④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④: ‘오금이 저리다’는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라는 뜻으로,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p> <p><오답지></p> <p>①: ‘입이 짧다’는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이다.</p> <p>②: ‘오지랖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이다.</p> <p>③: ‘코가 납작해지다’는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푹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이다.</p>				

8. 문장의 흐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이 일은 절대로 오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올해 우리 회사 실적은 아마 예년만 못할 겁니다.
- ③ 글을 잘 쓰려면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읽어야 한다.
- ④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문항 번호	8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문장(호응 관계)				
출제 의도	문장을 표현할 때에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과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은 어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 문항에서는 이러한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유의하여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②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②: ‘올해’ 라는 시간 부사어와 ‘못할 겁니다.’ 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다.</p> <p><오답지></p> <p>①: ‘절대로’ 라는 부정 부사어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긍정형의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p> <p>③: ‘텔레비전’ 이라는 목적어와 ‘읽어야 한다.’ 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p> <p>④: ‘것은’ 이라는 주어와 ‘이겨냈습니다.’ 라는 서술어 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p>				

9. 두 문장을 연결하고자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 오후가 되자 날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 ① 그래서 ② 그러면 ③ 그런데 ④ 왜냐하면

문항 번호	9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문장(접속 관계)				
출제 의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알맞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전환 관계로 이어진 두 문장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 부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③				
선택지 해설	<p><정답지> ③: 아침과 오후의 상황이 대조적이므로 ‘그런데’ 나 ‘그러나’ 와 같은 접속 부사가 의미상 적절하다.</p> <p><오답지> ①: ‘그래서’ 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②: ‘그러면’ 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④: ‘왜냐하면’ 은 ‘왜 그러냐 하면’ 의 뜻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p>				

10. <보기>의 ㉠, ㉡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보 기>

- 울타리에 (㉠)을 올려 심은 애호박을 땀다.
- 자기 자란을 저렇게 하다니, 참 (㉡).

- | | |
|------|------|
| ㉠ | ㉡ |
| ① 넝쿨 | 주책이다 |
| ② 덩굴 | 주책없다 |
| ③ 덩쿨 | 주책없다 |
| ④ 덩굴 | 주책이다 |

문항 번호	10	영역	문법	예상 난이도	어려움
평가 요소	표준어 규정				
출제 의도	<p>이 문항에서는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제25항, 제26항)에 따라 표준어를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제26항 항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연구진 제작				
정답	②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②: ‘넝쿨/덩굴’은 복수 표준어이고, ‘주책없다’는 단수 표준어임. 즉 ‘주책이다’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 ㉡에 각각 들어갈 낱말이 알맞게 짝지어져 있음.</p> <p><오답지></p> <p>①: ‘넝쿨’은 복수 표준어이나, ‘주책이다’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음.</p> <p>③: ‘주책없다’는 표준어이나, ‘덩쿨’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음.</p> <p>④: ‘덩굴’은 복수 표준어이나, ‘주책이다’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음.</p>				

3) 쓰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쓰기 능력 평가의 문항 수는 총 8개이며 500점 만점으로 한다. 1문장 쓰기 문제는 4문항이며 각 30점 만점, 두 세 문장 쓰기 문제는 2문항이며 각 60점 만점, 두 세 단락 분량의 400자 쓰기 문제는 2문항이며 각 130점 만점으로 한다.

각 문항의 난이도, 평가요소, 배점, 출제의도, 예시 답안 등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은 신문에 투고하기 위하여 쓴 글입니다. 글의 중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봄이 되니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등산은 정말 좋은 취미 생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봄철 등산 시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건조한 날이 지속되며 강풍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산을 오르다 보면 일부 등산객들이 산중턱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가끔 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메말라 있는 초목에 불씨를 옮겨 갑작스럽게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일단 산불이 일어나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인력이 진화에 투입되는 등의 행정력 낭비도 뒤따른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산이 산불 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까지 100여 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이다.

소방서에서 각종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산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스스로가 ‘후손에게 빌려 쓰는 자연’이란 생각을 가지고 등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山)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제목: _____

문항 번호	1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중
평가 요소	읽고 요약한 것을 기초로 쓰기(읽기 쓰기 연계 유형) 공적 담화 상황의 설득적 글 쓰기, 1문장 쓰기				
배점	30점				
출제의도	이 문항은 통합형 문제로서, 읽고 이해한 것을 새로운 문장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제시된 글을 읽고 요약하여 주제를 파악한 뒤 그것을 적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산불을 예방합니다. 봄철 등산 시 산불을 예방합니다. 봄에 산불이 나지 않게 조심합니다. 산불을 조심하여 산 사랑을 실천합니다.
------------------	--

2. 다음은 형이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같은 내용을 회사의 상사에게 쓴다면 어떻게 바꾸어 써야 할지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무슨 일이든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부탁하렴.”

→ _____

문항 번호	2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중
평가 요소	문체 바꾸어 쓰기 사적 담화 유형의 친교적 글 쓰기, 1문장 쓰기				
배점	30점				
출제 의도	화용적으로 상황이나 청자에 맞추어 문체를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윗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나’ 와 ‘저’ 의 화계 차이를 알고 있는지, 아랫사람이 윗사람더러 자기에게 ‘부탁하라’ 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화용적 능력과 관련한 판단을 묻는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무슨 일이든 저를 불러 시켜 주세요. 무슨 일이든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떤 일이든 좋으니까 저에게 시키세요.				

3.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아래의 문장에 이어질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보 기>
습관, 건망증, 실수

아침에 일어나면 일정표를 보고 오늘 일을 확인하자. _____
_____.

문항 번호	3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문장 만들기				
	사적 담화 유형의 설명적 글 쓰기, 1문장 쓰기				
배점	30점				
출제 의도	문장을 앞 문장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동시에 어휘를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개의 어휘를 주고 문장을 만들게 한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이 습관만 들여도 건망증에 따른 실수를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이 습관이 되면 건망증으로 인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4. 내용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문장을 쓰세요.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_____.

그래서 겨울에는 병원이 붐빈다.

문항 번호	4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중
평가 요소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쓰기				
	공적 담화 상황의 설명적 글 쓰기, 1문장 쓰기.				
배점	30점				
출제 의도	앞 뒤 문장들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앞 문장과의 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뒤 문장과의 논리적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간다.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병원을 찾는다.				

5.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적어 음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 뒤 맥락을 고려하여 가운데 들어갈 부분을 두 문장으로 쓰세요.

요즘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늦게 잠들었는데 너무 더워서 새벽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 보다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있노라니 옛날에 친구들과 즐거웠던 놀이가 하나씩 떠올랐어요.

역시 어린 시절은 아무 걱정이 없는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들던 노래 이용복의 <어린 시절>을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문항 번호	5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단락 전개 - 구체화				
	공적 담화 상황의 설명적 글 쓰기, 2문장 쓰기.				
배점	60점				
출제 의도	맥락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와 단락 구성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앞 뒤 문장과의 내용적 연결이 자연스럽게 글을 만들어 넣을 수 있는지, 또한 두 세 문장을 더 넣어 확대해야 한다고 할 때 ‘하나씩’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화’ 혹은 ‘열거’라는 글의 전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문제이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어릴 때에는 친구들과 해 질 때까지 골목에서 축구를 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겨울에는 썰매를 만들어 얼어붙은 논바닥에서 하루 종일 살구요.				

6. 등산 동호회의 송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임 참여를 권하는 이메일의 본문을 세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적: 송년회
 일시: 2012년 12월 21일(금) 저녁 6시
 장소: 마포 원조 주물럭
 회비: 2만원

문항 번호	6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하
평가 요소	상황에 맞는 완결된 짧은 글 쓰기 공적 담화 상황의 친교적 글 쓰기, 3문장 쓰기.				
배점	60점				
출제 의도	담화 상황과 텍스트 유형(공지글)의 성격에 맞추어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지의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공지글이라는 텍스트 유형의 사회적 기능을 잘 알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 등산 동호회원들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서로 축하하고 새해 맞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송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7. 군대를 다녀온 남자에게 취업 시 군 가산점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보세요(400자 이내).

문항 번호	7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상
평가 요소	상황에 맞는 논리적 긴 글 쓰기 공적 담화 상황의 설득적 글 쓰기, 400자 긴 글 쓰기.				
배점	130점				
출제 의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한 편 완성하게 함으로써, 내용의 통일성, 구조적 안정성, 표현의 적법성 등을 점검한다. 특히 주장을 분명히 드러내는지, 근거를 제대로 들어 주장할 수 있는지, 뒷받침 문장들을 세울 수 있는지 등의 논리적 텍스트 유형의 글쓰기 능력을 확인한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생략				

8. 여행 중에 다음 사진과 같은 집을 보았습니다. 이를 묘사하는 편지글을 친구에게 써 보세요(400자 내외).



문항 번호	8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상
평가 요소	상황에 맞는 설명적 긴 글 쓰기				
	사적 담화 상황의 설명적 글 쓰기, 400자 긴 글 쓰기.				
배점	130점				
출제 의도	친구에게 말하듯 쓰는 비격식적인 묘사 글을 한 편 완성하게 함으로써 내용적 통일성, 구조적 안정성, 표현의 적법성과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 기술의 텍스트 전개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또한 친구에게 쓰는 편지글의 문체적 적합성을 맞출 수 있는지 점검한다.				
자료 출처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sallysulbo/8057726				
예시 답안	생략				

4) 듣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 은행의 전화 자동 응답 안내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행복을 채우는 농협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금융 사기 신고는 331번, 이체 및 납부는 1번, 조회는 2번, 사고 신고는 3번, 신용 카드는 4번, 기타 서비스는 별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1. (물음)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눌러야 하는 서비스 버튼은 어느 것인가요?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

문항 번호	1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사실적 듣기 능력(지시의 이행 능력)				
출제 의도	안내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에서는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에 따라 안내하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시를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농협 안내 방송 1588-2100				
정답	②				
선택지 해설	<정답지> ②: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조회’에 해당하므로 ②번 버튼을 눌러야 한다. <오답지> ①: ①번은 이체 및 납부를 하고자 할 때 눌러야 한다. ③: ③번은 사고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눌러야 한다. ④: ④번은 신용 카드 관련 업무를 보고자 할 때 눌러야 한다.				

※ 라디오 방송의 전화 면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2번과 3번 물음에 답하세요.

남: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김철수 사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남: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데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에 불가피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이 있는데요. 자영업자 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직 지원입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 정리, 재취업, 재창업 준비 과정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남: 궁금한 건 보험료인데요. 다달이 얼마나 냅니까?

여: 보험료는 월 3만 5천 원 정도부터 5만 2천 원 정도까지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준 보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등급을 선택할수록 보험료도 높고 실업 급여액도 많아집니다.

남: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가입하죠?

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물음) 이 면담을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 ① 자영업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 ②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알아보려고
- ③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를 낮추려고
- ④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을 홍보하려고

문항 번호	2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의도의 파악 능력)				
출제 의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면담을 들을 때에는 면담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들려주는 취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에서는 라디오 방송 전화 면담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방송에서 이러한 면담을 하는 목적을 추론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iMBC 김창욱,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2012.6.12.방송분/본문 수정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				
정답	④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④: 진행자가 두 번째 발언에서, 고용노동부 담당관에게 고용보험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통해 이 면담의 목적을 추리할 수 있다.</p> <p><오답지></p> <p>①: 보험 상품 개발은 이 면담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p> <p>②: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언급은 있으나 면담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p> <p>③: 자영업자가 자신의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보험료를 낮추려는 한다고 볼 수 없다.</p>				

3. (물음) 다음 중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진영: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대.
- ② 수연: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대.
- ③ 철호: 실제 소득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대.
- ④ 건희: 실업 급여, 직업 훈련 비용, 전직 지원의 혜택이 있대.

문항 번호	3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사실적 듣기 능력(세부 정보의 파악 능력)				
출제 의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면담을 들을 때에는 면담의 중심 내용뿐만 아니라 청취의 목적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에서는 전문가가 고용 보험의 혜택, 보험료, 가입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iMBC 김창욱,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2012.6.12.방송분/본문 수정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				
정답	③				

<p style="text-align: center;">선택지 해설</p>	<p><정답지></p> <p>③: 자영업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낸다는 언급이 있다.</p> <p><오답지></p> <p>①: 여자의 세 번째 발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언급이 있다.</p> <p>②: 여자의 마지막 발언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다.</p> <p>④: 여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실업 급여, 직업 훈련 비용, 전직 지원 혜택이 있다고 언급하였다.</p>
--	---

※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18일 새벽 4시를 넘기며 사용자 쪽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급을 3.5%, 무사고 수당을 4만 원 올리는, 총액 기준 4.6% 임금 인상안에 사용자 쪽과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새벽 3시께 협상장인 용산구 동자동 버스 노조 회관을 찾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시의 대중교통 적자를 고려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4. (물음) 이 뉴스에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를 무엇인가요?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

- ① 돌입 ② 결렬 ③ 협조 ④ 타결

문항 번호	4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사실적 듣기 능력(핵심 정보의 파악)				
출제 의도	뉴스는 사회적 사건을 보도하는 담화 양식으로,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자는 뉴스의 핵심 정보와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항에서는 뉴스의 핵심 정보를 압축하여 제목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한겨레신문 2012.5.12.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33622.html				
정답	④				
선택지 해설	<p><정답지> ④: 뉴스에서 노조와 사용자 측이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리’을 뜻하는 ‘타결(妥結)’이다.</p> <p><오답지> ①: 돌입(突入)은 ‘세찬 기세로 갑자기 뛰어들’의 뜻이다. ②: 결렬(決裂)은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됨’의 뜻이다. ③: 협조(協調)는 ‘생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함’의 뜻으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p>				

※ 방송 시사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 학교에 경찰이 들어와서 학교 폭력을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여: 저는 학교에 경찰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배움터 아닙니까?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학교에서 즉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교권이 약화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의 권위가 높았던 과거에도 학교 폭력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사의 책무를 경찰에게 넘긴다면 교권이 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 저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금지된 후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주의를 주는 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을 단속한다면 학생들은 폭력이 법적인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분위기도 좀 더 안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폭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물음) 이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 ① 학교 폭력 단속을 위한 경찰 개입의 필요성
- ②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방법
- ③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입장
- ④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문항 번호	5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사실적 듣기 능력(핵심 정보의 파악)				
출제 의도	시사 토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토론자가 합리적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 담화 유형이다. 토론을 들을 때에는 토론의 논제와 쟁점을 파악하며 듣고 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항에서는 토론의 논제를 파악하며 듣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p>MBC 100분토론 지금, 학교에서는...(2012. 2. 21)(본문 대폭 수정)</p> <p>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42100000100000&pagenum=4&pagesize=5&cornerFlag=0&ContentTypeID=1&ProgramGroupID=0&search=&SubprogCode=&sdate=&edate=</p>
정답	①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①: 진행자와 토론자의 발언에서 ‘학교 폭력 단속을 위한 경찰 개입의 필요성’ 이라는 토론의 논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p> <p><오답지></p> <p>②: 남자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고 있지만 토론의 주제는 아니다.</p> <p>③: 학교 폭력에 대해 경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토론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p> <p>④: 이 토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자체가 토론 주제는 아니다.</p>

※ 공익 광고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약소합니다. 하하하.”
 “뭐 이런 걸 다……. 하하”

“우리 이제 한 배 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아무도 안볼 때 얼른 받으세요.”
 “아잇, 그럴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그런 거 우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6. (물음)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자.
- ②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
- ③ 대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자.
- ④ 허례허식을 없애고 검소하게 살자.

문항 번호	6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의도의 추리 능력)				
출제 의도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기업이나 단체의 정책이나 이미지 홍보, 사회적 의식의 계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 담화이다. 광고는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설득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청자는 광고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에서는 공익 광고를 듣고 광고의 의도를 추리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공익광고: 부정부패 방지-양심과 욕심(2012년 작)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adpublic_no=345&page=1&select_year=&select_flag=&Key=&Subject=&Matter=
정답	②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②: 깨끗한 양심을 지키자는 취지가 광고에 드러나 있으므로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광고임을 알 수 있다.</p> <p><오답지></p> <p>①: ‘접대 여행, 아무도 안 볼 때, 욕심’ 등의 표현으로 보아 이웃 간에 정을 나누자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p> <p>③: 대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자는 내용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p> <p>④: 허례허식과 관련된 내용도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p>

※ 반사회 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 1: 자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남 1: 지난주에 운동기구 놓고 헬스장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 1: 뭐 집에 러닝머신 같은 거 있는데 또 그걸 사야 하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남 1: 그럼 어떻게 쓰죠?

여 2: 택배실로 쓰면 안돼요? 우리 친정 아파트는 그렇게 하던데요.

남 1: 거기 택배를 모아 놓으면 누가 관리하죠?

여 2: 경비 아저씨나 뭐…….

남 1: 지금도 경비 아저씨가 좀 받아 주잖아요.

여 1: 분실하고 그럼 또 말 많아질 텐데……. 일단 뭐 그럼 택배실도 쓰고…….

남 1: 공부방은요? 애들 책상 갖다 놓고 독서실처럼 쓸 수 있게…….

여 1: 그것도 좋네요. 독서실 가봤자 애들 놀기만 할 텐데 거기 있으면 한 번씩 내려가 보면 되겠네요.

여 2: 아니 그럼 애들이 공부방 되겠어요? 괜히 신경만 쓰이죠.

7. (물음) 이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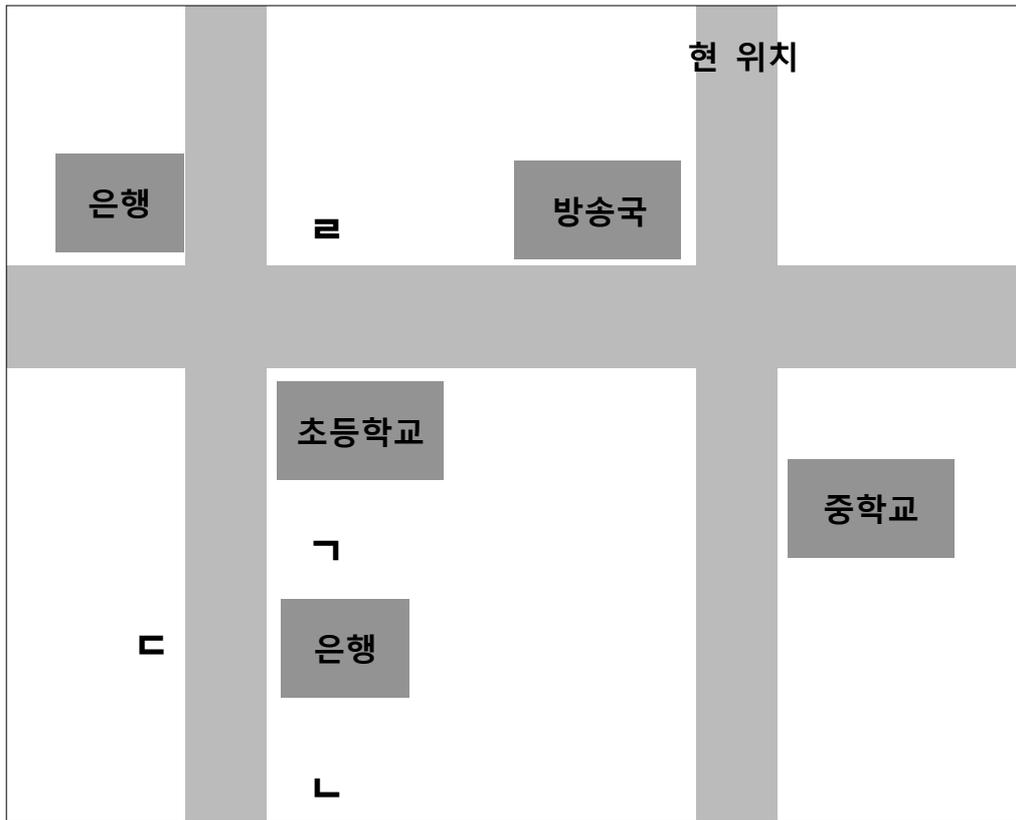
- ① 헬스장 ② 놀이방 ③ 택배실 ④ 공부방

문항 번호	7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사실적 듣기 능력(세부 정보의 확인 능력)				
출제 의도	반사회는 주민들이 주거생활과 관련한 일상적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이자 회의이다. 반사회에 참여하는 주민은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반사회에서 논의되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정답	②				
선택지 해설	<정답지> ②: 여 1, 2, 남 1의 대화에서 ‘놀이방’ 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지> ①: 남 1과 여 1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 ③: 여 2와 남 1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 ④: 남 1, 여 1, 2의 대화 중에 언급되었다.				

※ 길거리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 저기요, 말씀 좀 여쭙게요.
 남: 네, 말씀하세요.
 여: 여기에서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남: 이 아래로 쪽 내려가시다 보면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을 끼고 오른 편으로 돌아서 100미터쯤 곧장 가시면 초등학교가 보이는데요,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돌아서 50미터쯤 가시면 우측으로 우체국이 있을 거예요. 은행 건너편 건물이에요.
 여: 네, 좀 복잡하네요. 일단 방송국까지 갔다가 초등학교를 찾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남: 네, 잘 알아보셨네요. 가다가 못 찾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이 동네 우체국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쉽게 찾으실 거예요.
 여: 감사합니다.

8. (물음) 남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지도에서 우체국이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문항 번호	8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내용의 추리 능력)				
출제 의도	<p>낮선 동네에서 길을 묻는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안내자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의 방향과 거리를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길을 안내하는 말을 듣고 목적지가 있는 곳의 위치를 추리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p>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정답	③				
선택지 해설	<p><정답지> ③: 남자의 말에서 ‘은행 건너편 건물’이라는 한 가지 단서만으로도 ㄷ에 우체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오답지> ①: ㄱ은 은행 건너편이 아니라 옆이다. ②: ㄴ은 은행 건너편이 아니라 옆이다. ④: ㄹ은 은행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돌아간 곳이 아니다.</p>				

※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들: 아버지, 친구는 나이나 수준이 서로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 옛말에 보면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고, 혼인은 아래를 보고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그 말은 이왕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 말이지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닐 거야. 친구를 사귄다 하면 다 위로 보고 사귀는다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평생 사귄 수 없지 않겠니?
 아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자기보다 나은 친구, 못한 친구 얘기를 하는 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말이야. 또 나쁜 친구를 사귀면 함께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너희처럼 자랄 때는 말이지.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믿고 도울 수 있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

9. (물음) ‘친구’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 ①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는 게 좋다.
- ② 가까이 사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다.
- ③ 어렵거나 외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 ④ 서로 믿고 힘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문항 번호	9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내용의 추리 능력)				
출제 의도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의 말을 듣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말하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화자의 말을 들을 때에는 화자의 의도나 내용을 추론하면서 들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대화에서 주제에 대한 화자의 의도 즉 대화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이순원, ‘우정에 대하여’, 아들과 함께 걷는 길 / EBS라디오, 짧은 이야기 세상, 2012.7.20.방송분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short&menu_seq=4&enc_seq=3115253				
정답	④				
선택지 해설	<정답지> ④: 아버지가 끝 부분에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 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지> ①: 친구를 위로 보고 사귀는 게 좋다는 생각은 옛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②: 가까이 사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어렵거나 외로운 때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좋다는 것이지 어렵거나 외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출간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 책에 나온 실험을 보면, 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키운 생쥐들은 93%가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에서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목조 건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피곤도가 2배 이상 높았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아토피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 아파트 생활에서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아파트에서 탈출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생태 건축으로 보금자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짓기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나무도 사 가지고 미리 말려서 다듬기 시작하고, 3년 후인 2000년 5월 3일에 본격적으로 집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11월 4일에 아직 미완성인 집에 이사를 했지요. 그 집에서 살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집사람은 당시에 허릿병이 있었는데 황토방에서 지져서 그런지 짝 나았어요. 저도 만성 피로랑 아토피가 짝 없어졌고요. 그래서 “참 이 흙집이 대단하구나, 흙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자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흙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 새나 별도 자기 집은 스스로 짓잖아요. 여기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느라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제가 거의 독학으로 흙집을 짓고 흙집 짓기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흙집 짓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 (물음) 다음 중 이 강연을 듣고 연사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민재: 흙집 짓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 ② 동훈: 콘크리트 건물이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구나.
- ③ 경은: 강연자는 흙집에 살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구나.
- ④ 민정: 의사 선생님들도 흙집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셨구나.

문항 번호	10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보통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구체적 적용 능력)				
출제 의도	강연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하는 담화의 유형이다. 강연을 들을 때에는 강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재구성해보거나 적용해 보는 능동적인 듣기가 필요하다. 이 문항에서는 강연을 듣고 내용을 청자 나름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KBS 강연, 공감 100℃, 고제순, 흙이 삶을 살린다. http://asx.kbs.co.kr/player_56ad.html?title=%B0%AD%BF%AC+100%A1%C9&url=1tv%24100do%24120525_01_03_00.asf&type=202&chkdate=20120725084017&kind=56
정답	④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④: 연사가 “자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구나!” 라는 말은 하였지만, 의사가 흙집의 치료 효과를 인정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p> <p><오답지></p> <p>①: 연사가 흙집 짓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였다.</p> <p>②: 연사는 자신이 읽은 책에서 콘크리트 건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p> <p>③: 연사가 흙집에 살면서 자신과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p>

※ 점원과 고객 간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점원: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이 필요하세요?
 손님: 바지 하나 사려구요.
 점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바지는 어떠세요?
 손님: 이 바지는 너무 딱 달라붙지 않나요?
 점원: 요즘 이런 바지가 유행이에요.
 손님: 그래도 저는 불편한 바지는 싫은데……. 통이 좀 더 넓은 바지는 없어요?
 점원: 요새 누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요? 그냥 이거 입으세요. 입으시면 예쁘실 거예요.
 손님: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한번 입어 볼게요.
 (휴지)
 손님: 아,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끼어서 불편한데요. 좀 더 편한 바지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밝아서 좀 그래요.
 점원: 손님, 바지는 입다 보면 다 늘어나요. 그리고 이 색이 이번 가을에 제일 유행하는 색이에요. 다른 집 가 보세요. 다 이 색이 유행이라고 할 걸요?
 손님: 그래도 이 바지는 안 되겠어요. 다른 바지 보여 주세요.
 점원: 다른 바지도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 통 넓은 바지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않아요. 다른 가게 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이 바지로 하세요.

11. (물음) 상품을 추천하는 점원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① 비싼 옷을 싸다고 말하며 고객을 속이고 있다.
- ② 옷과 관련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
- ③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
- ④ 일관성 없이 옷을 추천하여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문항 번호	11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쉬움
평가 요소	비판적 듣기 능력(종합적 평가 능력)				
출제 의도	대화에 참여할 때에는 말의 내용과 형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항에서는 점원과 고객 간의 대화에서 점원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정답	③				
선택지 해설	<정답지> ③: 고객이 불편한 바지를 싫어하고 색깔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점원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다. <오답지> ①: 옷의 가격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다.				

	<p>②: 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옷의 재질이라든가 가격, 디자인, 세탁 방법 등 옷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p> <p>④: 점원은 일관되게 자신이 선택한 스타일의 바지만을 추천하고 있다.</p>
--	---

※ 토론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듣기 12번 물음과 말하기 1번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 최근 고령화 대책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저는 찬성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들은 고령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정년도 55세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도 회복되었으니 정년도 원상복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저는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아버지 세대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질 것입니다.

남: 그렇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고령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고령자들은 중소기업 기능직이 많아요.

여: 저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과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고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 (물음) 이 토론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정년 연장이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 ②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③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④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겹친다.

문항 번호	12	영역	듣기	예상 난이도	어려움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내용의 추리 능력)				
출제 의도	시사 토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토론자가 합리적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 담화 유형이다. 토론을 들을 때에는 토론의 논제와 쟁점을 파악하며 듣고 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항에서는 토론자가 공통으로 전제하거나 합의하고 있는 쟁점이나 입장을 추리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KBS 생방송 심야토론-정년연장, 고령화사회 대안인가?(2010. 10. 30)(전반부 일부 수정) http://www.kbs.co.kr/ltv/sisa/toron/vod/vod,1,list,7.html				
정답	②				

선택지 해설	<p><정답지></p> <p>②: 여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남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p> <p><오답지></p> <p>①: 남자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대체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여자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p> <p>③: 남자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았다.</p> <p>④: 남자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고 보았다.</p>
-------------------	---

5) 말하기 능력 평가 문항 및 문항 해설

※ 토론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듣기 12번 물음과 말하기 1번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 최근 고령화 대책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저는 찬성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들은 고령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정년도 55세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도 회복되었으니 정년도 원상복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저는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아버지 세대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질 것입니다.

남: 그렇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고령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고령자들은 중소기업 기능직이 많아요.

여: 저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과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고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물음) 이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1.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 가지 들어서 말씀하세요(들은 내용을 활용해도 무방함).

2. 준비 시간과 말하기 시간 각각 1분 이내입니다. 말할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문항 번호	1	영역	말하기	예상 난이도	상/중/하
평가 요소	설득(주장하는 말)				
출제 의도	이 문항에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을 듣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방식으로 설득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KBS 생방송 심야토론-정년연장, 고령화사회 대안인가?(2010. 10. 30)(전반부 일부 수정) http://www.kbs.co.kr/ltv/sisa/toron/vod/vod,1,list,7.html				
예시 답안	생략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미흡	보통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주장과, 근거 두 가지를 포함하여 말한다. -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1	2	3	0.4	0.6
	조직	- 한 단위의 생각을 완결지어 말한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1	2	3	0.2	
표현 및 전달	어휘와 문법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0.1	0.4
	반언어적 표현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1	2	3	0.1	
	유창성	- 말을 더듬지 않고 매끄럽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0.1	
	시간 활용	- 1점: 20초 미만 또는 1분 40초 초과 - 2점: 21~40초 또는 1분 21초~1분 40초 - 3점: 41초~1분 20초	1	2	3	0.1	

※ 2번부터 4번까지는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1분 간 준비한 후, 말할 준비가 되면 1분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문항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물음)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수를 하여 생긴 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날씨가 나빠서 예정보다 하루를 더 머물렀던 일

문항 번호	2	영역	말하기	예상 난이도	상/중/하					
평가 요소	설명(경험을 설명하는 말)									
출제 의도	경험을 설명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와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말 하여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잘 조직하여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생략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여행의 과정과 사건의 경위가 잘 드러난다.	1	2	3	0.4	0.6		
		조직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가 자연스럽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1	2	3	0.2			
	표현 및 전달	어휘와 문법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0.1	0.4		
		반언어 적 표현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1	2	3	0.1			
		유창성	- 말을 더듬지 않고 매끄럽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0.1			
		시간 활용	- 1점: 20초 미만 또는 1분 40초 초과 - 2점: 21~40초 또는 1분 21초~1분 40초 - 3점: 41초~1분 20초	1	2	3	0.1			

3. (물음) 사람들이 함부로 내다 버린 쓰레기로 집 앞 골목이 늘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담당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3	영역	말하기	예상 난이도	상/중/하				
평가 요소	설득(요청하는 말)								
출제 의도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담당 기관에 건의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항에서는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득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생략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1	2	3	0.4	0.6
		조직	- 문제 상황, 필요성, 요청 등 말의 짜임이 드러난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1	2	3	0.2	
	표현 및 전달	어휘와 문법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0.1	0.4
		반언어적 표현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1	2	3	0.1	
		유창성	- 말을 더듬지 않고 매끄럽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0.1	
		시간 활용	- 1점: 20초 미만 또는 1분 40초 초과 - 2점: 21~40초 또는 1분 21초~1분 40초 - 3점: 41초~1분 20초		1	2	3	0.1	

4. (물음) 다음 속담 중 하나를 골라 초등학생에게 예를 들면서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쇠귀에 경 읽기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문항 번호	4	영역	말하기	예상 난이도	상/중/하			
평가 요소	설명(개념을 설명하는 말)							
출제 의도	일상생활에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은 개념, 사물, 현상, 사건, 과정 등 다양하다. 설명의 내용이나 상대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친숙한 속담의 의미를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생략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미흡	보통	우수		
	내용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속담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속담이 적용되는 적절한 예를 제시한다.	1	2	3	0.4	0.6
		조직	- 설명과 예시의 짜임이 드러난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1	2	3	0.2	
	표현 및 전달	어휘와 문법	-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0.1	0.4
		반언어적 표현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1	2	3	0.1	
		유창성	- 말을 더듬지 않고 매끄럽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0.1	
		시간 활용	- 1점: 20초 미만 또는 1분 40초 초과 - 2점: 21~40초 또는 1분 21초~1분 40초 - 3점: 41초~1분 20초	1	2	3	0.1	

3. 예비 조사

1) 예비 조사 과정

예비 조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날짜	진행 단계
9월 21일	예비 조사 질문지 및 듣기 평가용 녹음 CD 발송
9월 24일~10월 4일	조사
10월 5일	예비 조사 질문지 수합 및 분류, 발송
10월 8일~10월 12일	교차 채점
10월 12일~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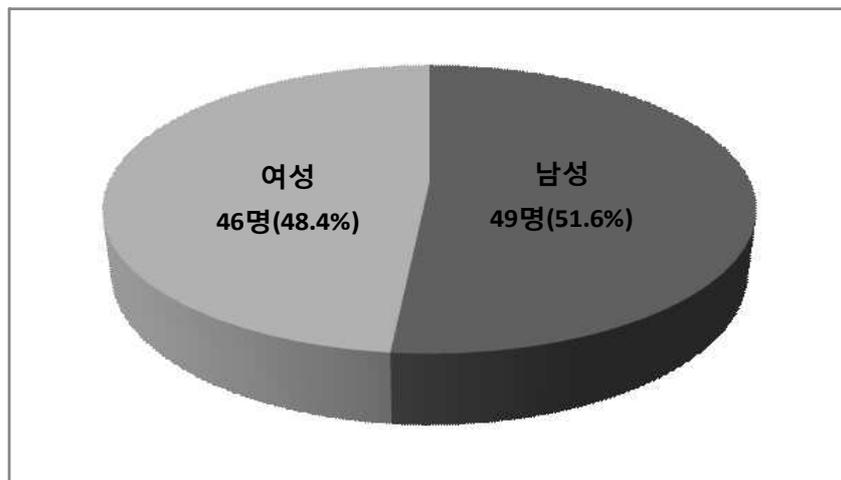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예비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총 100명이었으나 조사 도중 응답을 포기하여 두 영역 이상 응답하지 않은 사람, 배경 질문 전체에 대한 응답을 거부한 사람의 질문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총 95개의 질문지가 채점 및 결과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2) 피험자 정보

배경 질문을 통해 수합한 피험자 정보를 바탕으로 피험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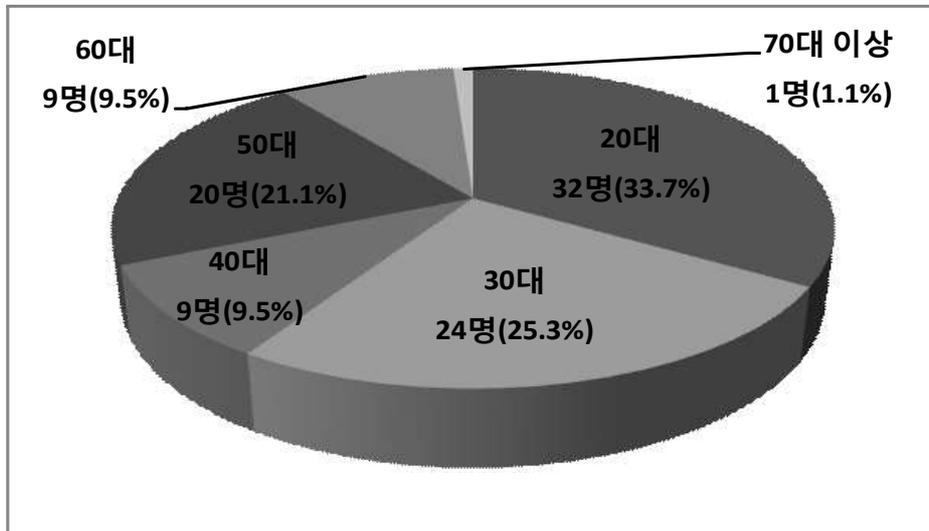
먼저, 피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총 95명의 피험자 중 49명(51.6%)이 남성, 46명(48.4%)이 여성이었다.

<피험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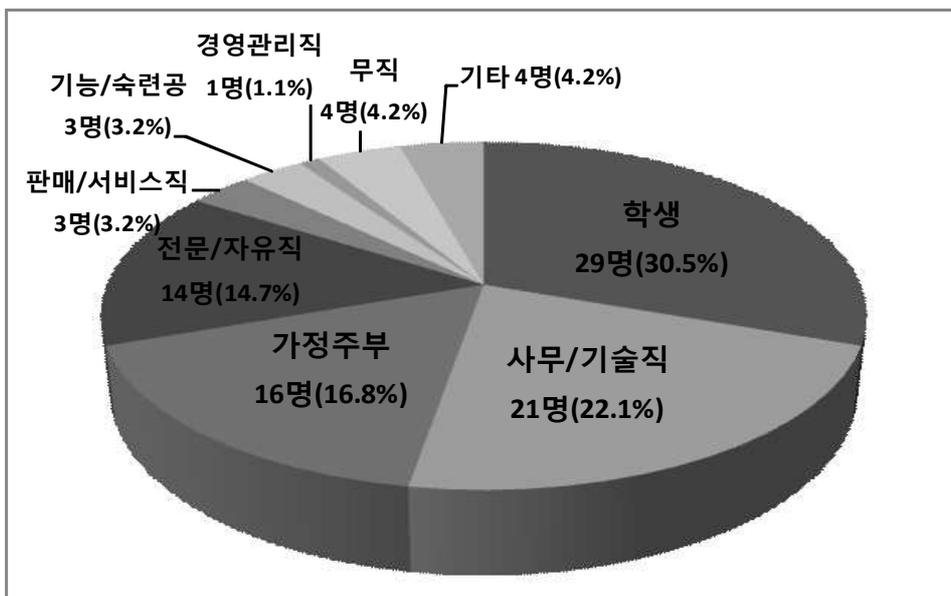
다음으로 피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95명의 피험자 중 20대 피험자는 32명(33.7%), 30대 피험자는 24명(25.3%), 40대 피험자는 9명(9.5%), 50대 피험자는 20명(21.1%)이었으며, 60대 피험자가 9명(9.5%), 70대 이상 피험자가 1명(1.1%)이었다.

<피험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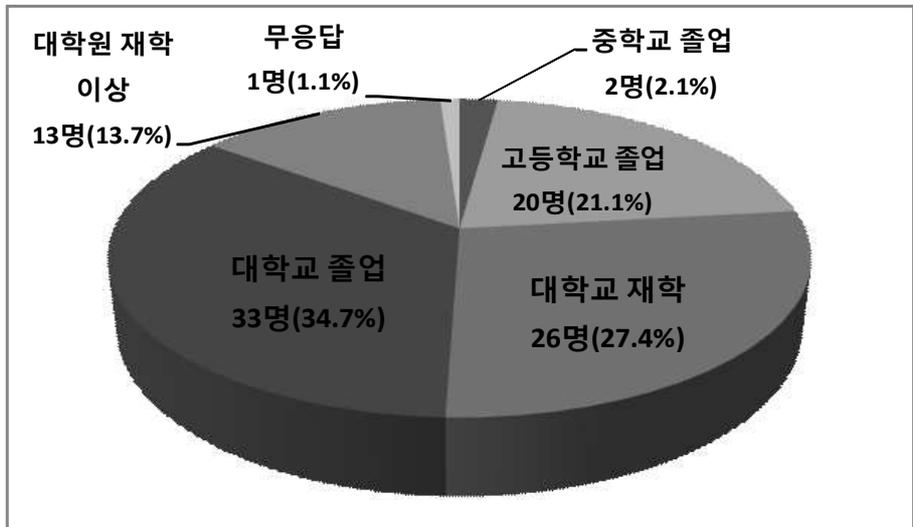
또한, 피험자의 직업은 학생이 29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기술직 21명(22.1%), 가정주부 16명(16.8%), 전문/자유직 14명(14.7%) 순으로 수가 많았다.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은 각각 3명(3.2%)이었으며, 경영관리직은 1명(1.1%)이었다. 그 외에 무직이 4명(4.2%), 기타 직업이 4명(4.2%)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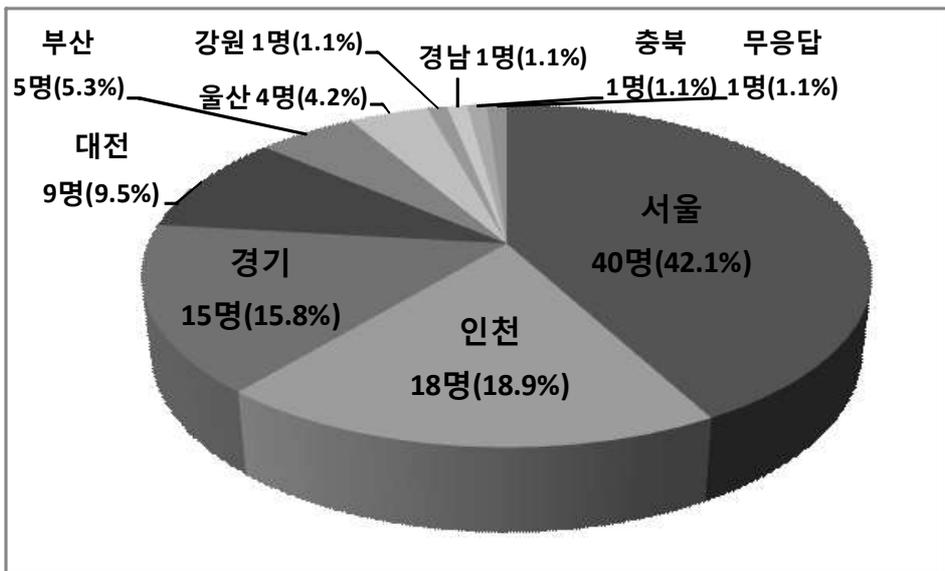
피험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총 95명 중 중학교 졸업이 2명(2.1%), 고등학교 졸업이 20명(21.1%), 대학교 재학이 26명(27.4%), 대학교 졸업이 33명(34.7%), 대학원 재학 이상이 13명(13.7%), 무응답이 1명(1.1%)이었다.

〈피험자의 학력〉



마지막으로 피험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40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거주자가 각각 18명(18.9%), 15명(15.8%)으로 많았다.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9명(9.5%), 부산광역시 거주자는 5명(5.3%), 울산광역시 거주자는 4명(4.2%)이었으며, 그 외에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거주자가 각 1명(1.1%)이었다. 거주지를 밝히지 않은 피험자도 1명(1.1%) 있었다.

〈피험자의 거주지〉



3) 예비조사 결과

예비조사의 평가 결과 점수를 세대별과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읽기 (300점)	문법 (100점)	쓰기 (500점)	듣기 (300점)	말하기 (300점)	문법 + 쓰기 표현 영역	총점 (1500점)
20대	232	70	384	276	212	184	1173
30~40대	228	70	406	286	198	189	1189
50대 이상	193	59	255	216	173	148	896
전체	218	66	351	261	195	175	1091

4. 평가 결과

1) 읽기 능력 평가 결과

□ 문항별 평가 결과

※ 다음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읽고 1번과 2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2]

		표준 코스 세탁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본코스입니다.
	1 빨랫감을 넣고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 자동으로 표준 코스가 선택됩니다.	
	2 [동작/일시 정지]버튼을 누르세요. 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판이 돌아간 후, 빨래 무게를 자동 감지하여 적당한 물높이를 표시해줍니다.	
	3 물높이에 맞게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	
	▶ 작동중 뚜껑을 열면 안전을 위해 모든 동작이 멈춥니다. (단, 뚜껑을 열어도 급수는 됩니다.) ▶ 온수만 사용시 뜨거운 물에 의한 옷감손상 방지를 위해 초기 20초간 온.냉수가 급수됩니다. ▶ 세탁진행중 세탁시간, 행굼횟수, 탈수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세척 코스 및 일부 코스 제외)	

1. ‘표준 코스’ 로 세탁하고자 합니다. 위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동작/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 ② **2** 과정을 마친 뒤, 이에 따라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었다.
- ③ **3** 과정을 마친 뒤, 원하는 세탁 시간과 행굼 횟수를 설정했다.
- ④ 작동을 시작한 뒤, 세탁물을 더 넣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눌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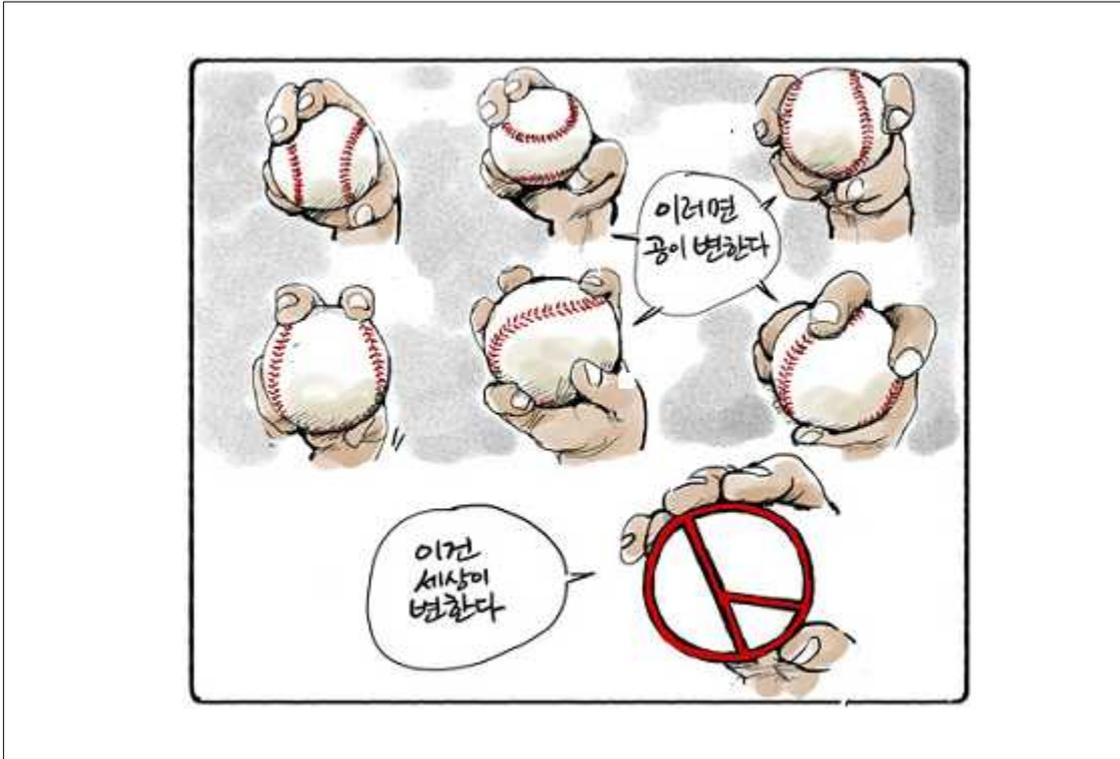
- 정답률: 0.86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36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 ③의 매력도는 0.01, 0.04, 0.08로서 매우 낮음.
- 제언: 오답지들의 매력도를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2. 이 설명서를 보고도 알 수 없어서 제조회사에 문의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온수만 사용해서 세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② 세탁기 조작을 위한 버튼은 어디에 있나요?
- ③ ‘표준 코스’로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④ 빨래 할 때 물높이를 어떻게 맞추나요?

- 정답률: 0.65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38 괜찮은 편임.
- 오답지: 매력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임.
- 제언: 무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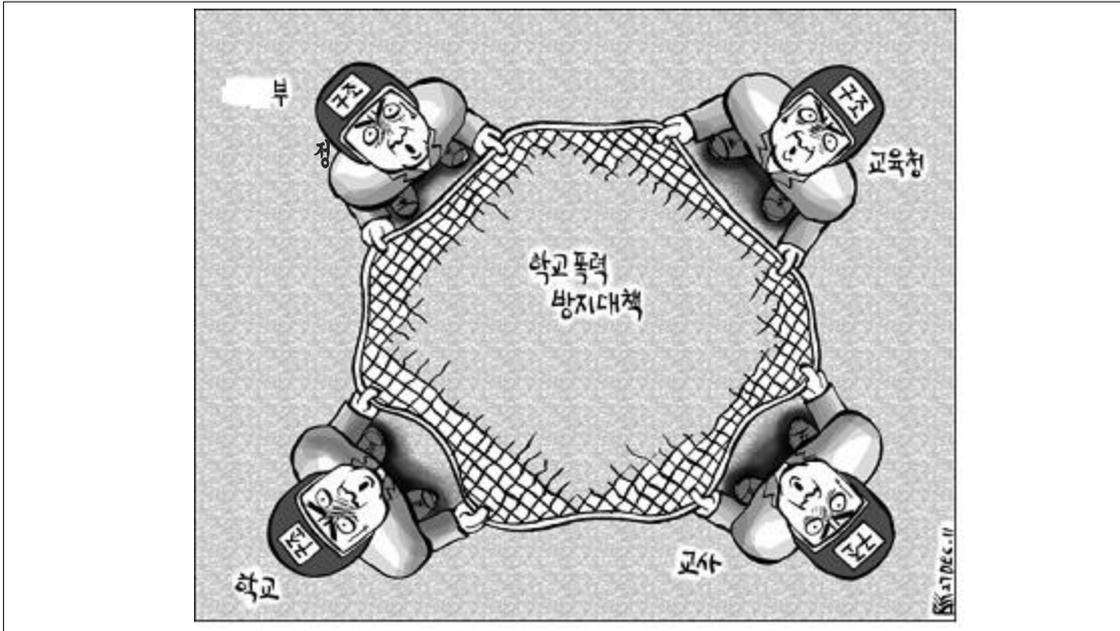
3. 다음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만평입니다. 이 만평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공의 변화를 알기 어렵듯이 선거의 결과도 알기 어렵다.
- ② 선거를 통해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③ 선거에서는 정확하게 기표하는 일이 중요하다.
- ④ 구질을 변화시키듯이 선거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 정답률: 0.79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3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④ 매력도가 0.01로 낮음.
- 제언: 오답지 ④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4. 다음은 계속되는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만평입니다. 이를 보고 한 말 가운데 만평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실효성이 없는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을 찢어진 그물망으로 표현했구나.
- ② 학교 폭력 방지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네 명의 사람으로 표현했구나.
- ③ 학교 폭력 방지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함을 구조대원으로 표현했구나.
- ④ 학교 폭력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는 태도를 바라보기만 하는 표정으로 표현했구나.

- 정답률: 0.59 정답률 괜찮은 문항임.
- 변별도: 0.30 괜찮은 편임.
- 오답지: 매력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임.
- 제언: 무난함.

※ 다음 가정 통신문을 보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세요.[5~6]

○○ 가정통신문 ○○중 2012 - 17호	<h2 style="margin: 0;">학부모총회 안내</h2>	부서담당자: 교무지원부 심순애 전화번호: 02)503-1234 홈페이지: http://○○○.ms.kr																											
<p>신입생의 입학과 재학생의 개학으로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입니다. 본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본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2012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며 학부모님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총회를 통해 학교에서 1년간 운영하려고 하는 교육방향과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2012학년도 ○○중학교를 함께 이끌어 주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 학부모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 시 : 2012. 3. 20(화) 14:00 2. 장 소 : 본교 대강당 3. 대 상 : ○○중학교 학부모 4. 일 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h style="width: 15%;">시 간</th> <th style="width: 45%;">내 용</th> <th style="width: 40%;">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30 ~ 14: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학부모 총회 ·등록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대강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00 ~ 14: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 ~ 15:30</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담임교사 ·학부모회 조직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각 교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30 이후</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와의 시간 ·학급 연간 운영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학생지도 상담 </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12년 3월 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중 학교 장 홍길동</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절 취 선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2012학년도 학부모총회 참석 동의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bbdefb;"> <th rowspan="2" style="width: 8%;">학년</th> <th rowspan="2" style="width: 8%;">반</th> <th rowspan="2" style="width: 8%;">번호</th> <th rowspan="2" style="width: 25%;">학생성명</th> <th colspan="2" style="width: 51%;">해당란에 참석여부를 ○로 표시</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bbdefb;"> <th style="width: 25%;">참석희망</th> <th style="width: 26%;">참석불희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학부모 성명 : _____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중학교장 귀하</p>			시 간	내 용	장 소	13:30 ~ 14:00	학부모 총회 ·등록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	대강당	14:00 ~ 14:50	15:00 ~ 15:30	담임교사 ·학부모회 조직	각 교실	15:30 이후	와의 시간 ·학급 연간 운영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학생지도 상담		학년	반	번호	학생성명	해당란에 참석여부를 ○로 표시		참석희망	참석불희망						
시 간	내 용	장 소																											
13:30 ~ 14:00	학부모 총회 ·등록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경과보고	대강당																											
14:00 ~ 14:50																													
15:00 ~ 15:30	담임교사 ·학부모회 조직	각 교실																											
15:30 이후	와의 시간 ·학급 연간 운영계획 안내 ·담임교사와의 학생지도 상담																												
학년	반	번호	학생성명	해당란에 참석여부를 ○로 표시																									
				참석희망	참석불희망																								

5. 이 가정 통신문의 내용을 잘 이해한 학부모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① 학부모총회에 참석해서 학부모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해야겠어.
- ② 학부모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으니 우리 아이의 반 교실로 가야겠어.
- ③ 학부모총회에 참석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승인해 줘야 하겠어.
- ④ 학부모회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학부모총회에도 참석할 필요가 없겠어.

- 정답률: 0.13 상당히 어려운 문항임.
- 변별도: 0.06 매우 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의 변별도가 정답 ②보다 훨씬 더 높음.
- 제언: 정답률과 변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오답지 ①의 매력도가 지나치게 강해서 나타난 문제로 보이므로 답지 ①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6. 학교에서 이 가정 통신문을 보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학교의 교육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학교 운영 방식의 특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③ 학부모총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 ④ 학교 행사에 도움을 준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 정답률: 0.87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37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④의 매력도는 0임.
- 제언: 오답지 ④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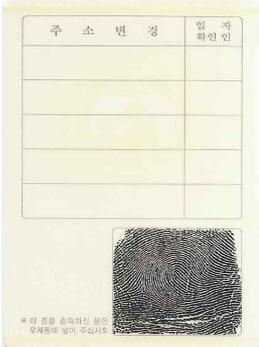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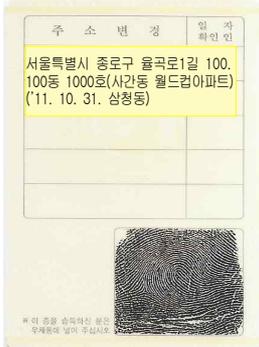
※ 다음 안내문을 보고 7번과 8번의 물음에 답하세요.[7~8]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새주소) 변경 사용 안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문서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번 주소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 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는 아래의 부착 요령을 참고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 전(A)	스티커 부착 후(B)	부착 요령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84 1167 954 1361" rowspan="2">홍길동</td> <td data-bbox="954 1167 1249 1256">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1길 100.</td> </tr> <tr> <td data-bbox="954 1256 1249 1361">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컴아파트) (11. 10. 31. 삼청동)</td> </tr> </table> <p>※ ‘성명’ 부분을 잘라 내어 스티커 뒷면을 떼어 내고 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그림(B)과 같이 붙이면 됩니다.</p>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1길 100.	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컴아파트) (11. 10. 31. 삼청동)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1길 100.				
	100동 1000호(사간동 월드컴아파트) (11. 10. 31. 삼청동)				

7. 이 안내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2011년 10월 3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써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네.
- ② 한 번 교부받은 스티커가 훼손되면 다시 교부받을 길이 없으니 조심해야겠어.
- ③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아서 내가 스스로 붙여야 하는구나.
- ④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으려면 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만 하는구나.

- 정답률: 0.82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3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과 ②의 매력도가 낮음.
- 제언: 오답지 ①과 ②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8. 이 안내문의 작성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으니 제목을 ‘주민등록증용 도로명 주소(새주소) 스티커 교부 안내’로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 ② 첫째 문단 내용은 셋째 문단 내용과 유사하니 셋째 문단 자리에서 합쳐서 한 문단으로 만드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 ③ 그림은 둘째 문단 내용과 관련된 것이니까 둘째 문단이 끝난 뒤에 오도록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 ④ 안내문 내용의 흐름을 보면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 정답률: 0.67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문항임.
- 변별도: 0.30 최소한의 기준임.
- 오답지: 선택지 ②, ④의 매력도를 다소 낮음.
- 제언: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나 오답지 ②와 ④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의 수정이 필요함.

※ 다음 기사를 보고 9번과 10번의 물음에 답하세요.[9~10]

“늘 줄 몰라” 한국 중장년 퇴직 후 하는 일이…
한국 중·장년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 … 64%가 “취미 없다”
복지부·연금공단 1035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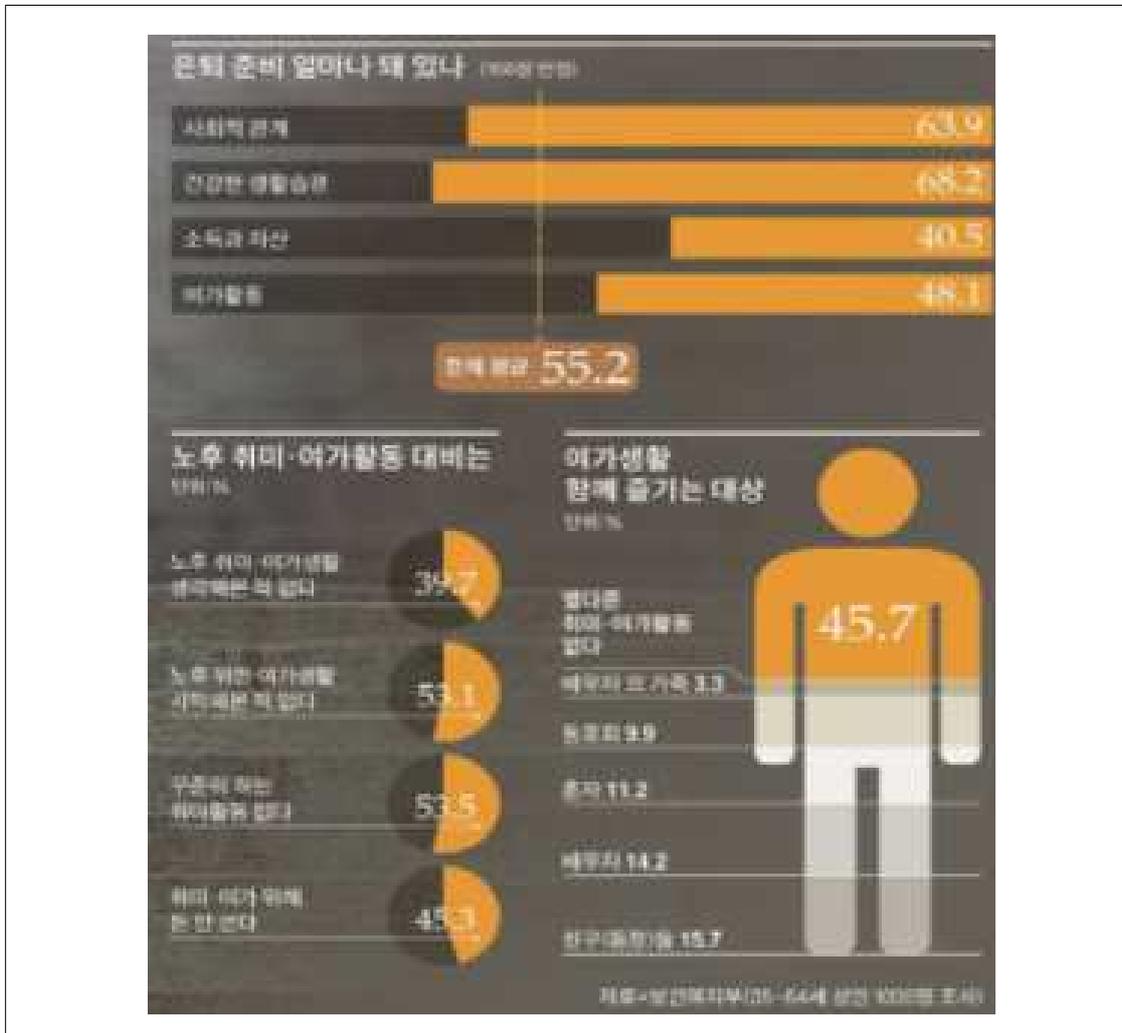
직장을 은퇴하면 경제 형편과 건강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즐길 게 있어야 하고 같이 즐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박 모(58) 씨는 지난달 32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 한 달여간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게 그의 유일한 여가생활이다. 취미 생활은 없다. 회사 다닐 때 평생 밤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 즐길 시간이 없었고 즐길 방법도 몰랐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책을 가끔 보는 정도였다. 사회적 관계도 그렇다. 회사 동료나 친구 몇몇 말고는 딱히 다른 모임을 갖고 있지 않다. 은퇴하고 나니 만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박 씨의 노후를 위한 여가생활 준비 점수는 21점.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가'에 해당한다. 박씨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은퇴 후 여가생활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모습은 한국의 중년 남녀를 상징한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35~64세)에게 적용해보니 여가활동 준비 점수가 48.1점(만점은 100점)에 불과했다(도표 참조). 소득과 자산이 40.5점으로 가장 낮았고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네 가지 분야 42개 지표를 따졌는데 평균 55.2점으로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득이나 건강 분야 준비 실태가 부실하다는 조사는 많았지만 여가나 사회적 관계를 따진 것은 처음이다.

여가생활 분야는 준비 현황과 의지 등 일곱 가지 세부 항목을 조사해 점수화했다. 응답자의 39.7%는 노후 취미나 여가생활을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거의 없었다. 53.1%는 노후를 고려해 취미·여가생활을 시작한 적이 전혀 없었고, 46.8%는 지금도 별다른 취미·여가 생활이 없다고 답했다. 일곱 가지 세부 항목을 종합하면 응답자의 64.1%가 노후 여가생활 인식과 준비에 관심이 적고 현재 여가생활에도 소극적인 유형에 속했다. 노후 여가 준비를 잘하고 지금도 적극적인 사람은 21.2%에 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직장에 다닐 때 일만 하다 보니 노후 여가활동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태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여가를 보낼지를 모른다. 봉사활동도 안 해본 것이어서 쉽게 발을 들여놓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 과장은 “시간을 쪼개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미리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9. 이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 주변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기사야.
- ② 실태 조사의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 조사의 배경을 소개한 기사야.
- ③ 도표를 적절히 활용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기사야.
- ④ 끝에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결론을 대신하고 있는 기사야.

- 정답률: 0.78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6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④ 매력도 낮음.
- 제언: 오답지 ①과 ④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함.

10.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의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 후 여가 생활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 ② 예로 든 박 모 씨의 경우는 기사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 ③ 퇴직 전에 여가 생활을 익힌다고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④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미리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정답률: 0.71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42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 매력도가 낮은 편임.
- 제언: 전체적으로 무난하나, 오답지 ②의 매력도를 다소 높이는 방향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다음 계약서를 보고 11번과 12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1~1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입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 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 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 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

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화,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9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11. 계약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제1조의 “중도금” 이나 “잔금” 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7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구나.
- ② 제4조의 “해지” 시에는 제8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구나.
- ③ 제5조의 “종료” 시점은 제2조에서 분명히 기재하는구나.
- ④ 제9조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제8조에 있는 ‘과실’ 이 되는구나.

- 정답률: 0.43 다소 어려운 편임.
- 변별도: 0.46 괜찮은 편임.
- 오답지: 매력도 전반적으로 괜찮음.
- 제언: 전반적으로 무난하나, 부동산 계약서 내용 하나 하나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답률을 약간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12. 주택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 ① 제1조와 제2조
- ② 제3조와 제4조
- ③ 제6조와 제7조
- ④ 제8조와 제9조

- 정답률: 0.71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33 최소 기준 이상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의 매력도 다소 낮음.
- 제언: 선택지들의 변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함.

※ 다음 공익광고를 보고 13번과 14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3~14]



뽑는 데 1초 자라는 데 20년

1톤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만 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

kobaco
한국환경공단(주) | 2014년 12월 24일

13. 이 공익광고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 ①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 ② 일회용 종이컵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 ③ 일회용 종이컵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습니다.
- ④ 일회용 종이컵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듭니다.

- 정답률: 0.88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9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 ③의 매력도 매우 낮음.
- 제언: 선택지 ②와 ③의 매력도를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정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14. 이 공익광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광고를 잘못 이해한 말은 무엇인가요?

- ① 광고의 글과 그림이 결합되어 광고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광고의 글 중 ‘뽑는 데’ 는 그림의 종이컵 인출 장치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 ③ 광고의 글 중 ‘자라는 데’ 는 그림의 나무 모양의 종이컵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 ④ 광고의 작은 글자로 된 글은 큰 글자로 된 글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답률: 0.49 다소 어려운 문항이나 괜찮은 수준임.• 변별도: 0.47 괜찮은 편임.• 오답지: 선택지 ①의 매력도 매우 낮음.• 제언: 전체적으로 무난하나 오답지 ①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
|---|

※ 다음 사실을 보고 15번과 16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5~16]

주민들이 나서서 매듭지은 청주-청원 통합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네 번의 도전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청원군은 그 해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6.8%, 찬성률 77.2%로 통합을 결정했다. 청주시가 이미 시의회 의결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2014년 통합 청주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첫 사례인 이번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官)보다 민(民)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여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반발을 샀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두 자치단체는 주민단체를 통해 통합의 기반을 다져왔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원-청주 통합 시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9개 사항 7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합의를 일궈나갔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전제조건 가운데 가장 예민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실시해 요금 인하 효과를 보여준 것이 주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두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준비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청주-청원의 주민자율 통합 모델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재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2010년 통합한 경남 창원시는 졸속 추진의 후유증으로 통합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아직도 내분을 겪고 있다. 시의회에서 통합 이전의 3개 시로 다시 분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낼 정도다. 행정구역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탈이 나게 돼 있다.

15. 이 사실에서 말하고자 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행정구역의 통합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행정구역의 통합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모아야 한다.
- ③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의 통합 시도는 취소되어야 한다.
- ④ 행정구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야 한다.

- 정답률: 0.91 매우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64 좋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 ③, 모두 매력도 낮음.
- 제언: 선택지 ①, ②, ③의 매력도를 모두 높여 정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함.

16. 이 사설을 쓴 이의 입장에 대한 추측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이번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널리 권장할 만한 예로 보고 있구나.
- ②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구나.
- ③ 이전에 있었던 창원과 마산, 진해의 통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 ④ 주민과 관청 간의 의사소통을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 요건으로 보고 있구나.

- 정답률: 0.81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7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의 매력도가 낮음.
- 제언: 오답지 ①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함.

※ 다음 추천서를 보고 17번과 18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7~18]

추천서

피추천인 : 홍길동

저는 위 사람과 대학에서 사제 관계에 있으면서 수업이나 학교생활 등을 같이 했었기에 위 사람의 능력과 됴됨이를 잘 알고 있어 흔쾌히 추천서를 씁니다.

여러 졸업생 가운데 위 사람을 떠올리면 적극성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은 물론 학과 전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학과의 학생회 대표로서 적극적인 추진력과 책임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전체 행사인 체전 행사 기간 동안 학과 학생들을 이끄는 동시에 전체 행사 진행 요원으로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원만하게 행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또한 위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우들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섰는가 하면, 서먹해지기 쉬운 편입생들의 사정을 고려한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학과의 인화와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만, 위 사람은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학기 중에 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였음은 물론, 방학 중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품성과 됴됨이를 지니고 있기에 저는 위 사람이 귀교의 신입 교사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위 사람이 지닌 품성과 능력이 학생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발휘됨은 물론, 귀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적극 추천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대학교 교수 김○○

17. 이 추천서는 어떠한 순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나요?

- ①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밝힌 뒤, 추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피추천인의 장점을 밝힌 뒤,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피추천인이 교사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밝힌 뒤,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피추천인이 교사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밝힌 뒤,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정답률: 0.84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6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④의 매력도 극히 낮음.
- 제언: 오답지 ④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18. 이 추천서를 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을 추측해 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대학교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을 마련하는 곳이다.
- ② 사람의 능력이나 됴됨이는 대학교 시절의 스승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 ③ 교사는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④ 조직의 인화와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

- 정답률: 0.73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33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의 매력도 극히 낮음.
- 제언: 오답지 ①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 다음 공문을 보고 19번과 20번의 물음에 답하세요.[19~20]



○ ○ 구



수신자 국립국어원장
(경유)
제목 <표준 언어 예절> 책자 배부 요청

1.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귀원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덜고자 귀원에서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 책자를 우리 구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바른 언어생활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책자 배부 요청을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부수: 65권(구청 전 부서 36, 동 주민 센터 16, 기타 13). 끝.

○ ○ 구 청 장

담당자	총무계장	총무과장	03/14
홍길동	임격정	장길산	
협조자			
시행	총무과-4731	(2012. 03. 15.)	접수 국립국어원-257 (2012. 03. 15.)
우	121-711 서울시	○○구 ○○로 212(○○동)	/ www.korea.go.kr
전화	(02)1234-4567	전송 (02)1234-7654	/ ki1dong@korea.go.kr / 대국민공개

19. 이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표준 언어 예절>은 맞춤법과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는 책이다.
- ② <표준 언어 예절>은 국민들의 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 ③ ○○구 관내의 동 주민 센터에 비치할 <표준 언어 예절> 책자는 총 65권이다.
- ④ ○○구청은 <표준 언어 예절> 책자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국립국어원에 밝히고 있다.

- 정답률: 0.82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48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의 매력도 매우 낮음.
- 제언: 오답지 ①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20. 이 공문 작성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국립국어원은 공적인 목적의 일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② 공공 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책자를 배부 받을 수 있다.
- ③ 공공 기관은 기밀 사항이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국민들이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등의 사용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답률: 0.87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48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의 매력도 극히 낮음.
- 제언: 선택지 ②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 다음 편지를 보고 21번과 22번 물음에 답하세요.[21~22]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보낸 편지와 사진을 잘 받았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던데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아들을 낳았다고 산부인과에서 아버지가 외할머니와 열싸안고 만세 불렀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군인이 됐다니 대견하다. 논산 훈련소 연병장으로 씩씩하고 늠름하게 걸어 들어가는 네 뒷모습을 보고 엄마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아들아, 엄마는 훈련소란 용광로라고 생각한다. 각종 성분이 함유된 철광원석들이 한곳에 모여 뜨겁게 녹아내려 강한 철로 만들어지는 곳, 용광로. 훈련소가 바로 그 용광로다. 그동안 몸과 마음의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을 가슴에 새겨 강철처럼 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

삼인행필유야사(三人行必有我師),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다.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모인 친구들이 너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워라.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네가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 여름날 보름 동안 자전거로 해남 땅끝까지 완주한 불굴의 정신을 가진 아들이니까……, 마당에 있는 그 영광의 자전거가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주기도 한단다.

강하고 현명한 우리 아들 ○○, 파이팅!

3월 4일에 엄마가

21. 이 편지에서 ‘엄마’가 말하고자 한 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훈련 중에 부상을 조심해라.
- ② 훈련을 보람 있게 마치기를 바란다.
- ③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
- ④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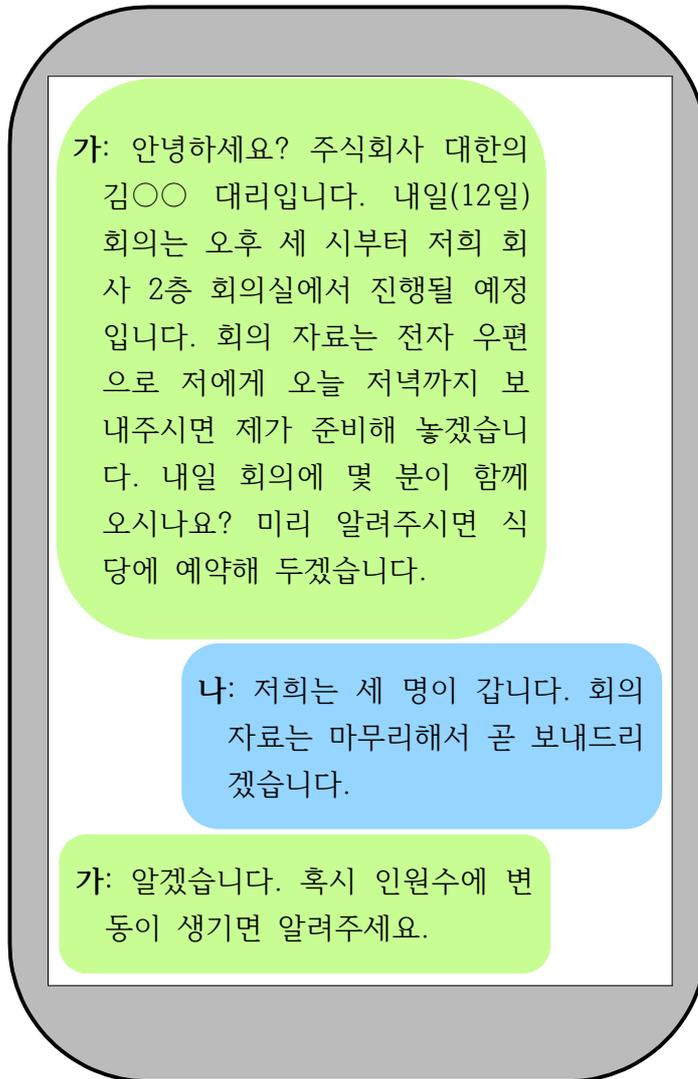
- 정답률: 0.71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5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④의 매력도 매우 낮음.
- 제언: 오답지 ①과 ④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문두를 “이 편지에서 ‘엄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요?”와 같이 수정하여 이 문항이 중심 내용을 묻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22.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 ① ‘엄마’ 는 훈련소에서 아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다.
- ② ‘엄마’ 는 군인을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아들’ 은 훈련소에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 ④ ‘삼인행필유아사’ 는 이 가정의 가훈이다.

- 정답률: 0.84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7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의 매력도 매우 낮음.
- 제언: 오답지 ①과 ②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 다음 문자 메시지를 보고 23번과 24번의 물음에 답하세요.[23~24]



23.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현재 회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 ② 회의 자료는 ‘주식회사 대한’에서 작성한다.
- ③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 ④ ‘주식회사 대한’의 사원과 외부인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 정답률: 0.64 다소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45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의 매력도 낮음.
- 제언: 오답지 ①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24. 이 문자 메시지에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 ① '주식회사 대한'에서는 회의에 최소 인원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 ② '가'는 '나'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이다.
- ③ '가'와 '나'는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 ④ 회의는 저녁 식사 시간 무렵까지 진행될 것이다.

- 정답률: 0.61 다소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6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의 매력도 극히 낮음.
- 제언: 오답지 ②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

25. 다음의 전자 우편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전자 우편을 보낸 시점은 방학 기간이다.
- ② 전자 우편을 보낸 사람의 직업은 교사이다.
- ③ 전자 우편을 보낸 목적은 방문 시각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전자 우편을 보낸 사람은 받는 사람의 오전 일정을 모르고 있다.

- 정답률: 0.72 다소 쉬운 문항임.
- 변별도: 0.55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는 역선택의 가능성 있음.
- 제언: 오답지 ②의 매력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교수인 수신인에 대해서도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일반인들이 수신인의 직업은 ‘교수’임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점에서 수신인을 ‘민OO 교수님께’와 같이 수정할 필요도 있어 보임.

□ 전반적 평가 결과 요약

- 신뢰도: 0.835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험에서 최소 0.8 이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괜찮은 편임.)
- 평균 정답률: 0.715 (쉬운 편이어서, 정답률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음)
- 평균 변별도: 0.457 (괜찮은 편임)

□ 피험자 속성별 평가 결과

○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원 포함)
문항 수	25	25	25
피험자 수	22	26	47
신뢰도	0.76	0.868	0.536
전체 정답률	0.636	0.752	0.768
전체 변별도	0.388	0.508	0.298

- 전체 정답률: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정답률 상승
- 전체 변별도: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으로 전체 변별도 가장 높음.
- 신뢰도: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이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낮음.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은 최소 기준인 0.6보다 낮음.
- 의미: 고학력자일수록 평가 문항이 쉬워 읽기 능력을 변별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체적인 정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령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문항 수	25	25	25
피험자 수	32	33	30
신뢰도	0.841	0.523	0.707
전체 정답률	0.772	0.777	0.643
전체 변별도	0.479	0.289	0.353

- 전체 정답률: 20-40대까지는 유사하며, 50대 이상이 다소 낮음.
- 전체 변별도: 20대에 가장 높고, 50대 이상이 중간이며, 30-40대에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신뢰도: 2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이 중간이며, 30-40대에 다소 낮게 나타났음.

- 문항의 제시글이 사회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40대가 친숙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음.

2) 문법 능력 평가 결과

□ 문항별 평가 결과

1.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재는 왜 저렇게 출씩대니?
- ② 더 낱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 ③ 그렇게 말하다니 참 어의가 없구나.
- ④ 그 옷에는 이 신발이 문안하게 어울려.

- 정답률: .78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49 괜찮은 편임.
- 오답지: 매력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임.
- 제언: 출제 의도도 명확하고 정답률, 변별도, 오답지 매력도도 양호한 문항이다. 다만 답지 구성에서 정답지인 ①번은 된소리되기와 관련된 단어인 데 비해, 오답지 ②, ③, ④번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성격이 있는 단어들이어서 답지 간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그 도시는 별로 구경할 게 없다.
- ② 서울에서 부터 대전까지 걸어갔다.
- ③ 얼마나 많이 먹었는 지 아직도 배가 부르다.
- ④ 작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만 삼천 오백 달러 이다.

- 정답률: .60 다소 쉬운 문항임.
- 변별도: .42 괜찮은 편임.
- 오답지: 매력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임.
- 제언: 출제 의도도 명확하고 정답률, 변별도, 오답지 매력도도 양호한 문항이다. 다만 ④번 답지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와 조사의 띄어쓰기의 두 가지 띄어쓰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답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한 가지 요소만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높임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 ② 이 상품은 정가가 이만 원이세요.
- ③ 선생님,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 ④ 손님, 모르는 것은 저한테 여쭙보세요.

- 정답률: .53 중간 정도 수준임.
- 변별도: .39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④의 매력도는 높은 편임. 선택지 ①, ②의 매력도 다소 제고 요망.
- 제언: 선택지 ①, ②의 매력도를 다소 높일 필요가 있음.

4.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안절부절했다.
- ② 옷에 음식을 흘리다니 참 칠칠치 못하구나.
- ③ 새로 나온 휴대폰은 예전 것과 모양이 틀리다.
- ④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해야 한다.

- 정답률: .47 중간보다 좀 더 어려운 문항임.
- 변별도: .49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의 매력도는 높은 편임. 선택지 ③, ④의 매력도 다소 제고 요망.
- 제언: 선택지 ③, ④의 매력도를 다소 높일 필요가 있음.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값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 ① 가격 ② 비용 ③ 가치 ④ 대가

- 정답률: .89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42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는 매력도가 전무이고, ①의 매력도는 매우 낮은 편이므로 조정 요망.
- 제언: 선택지 ①, ②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일반적으로 고유어의 의미를 한자어로 풀어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한자어의 의미를 고유어로 풀어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문항의 구성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6. 극장 매표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다음 표현의 뜻은 무엇인가요?

만원사례(滿員謝禮)

- ① 정한 인원이 다 차서 혼잡하다.
- ② 정한 인원이 다 차면 선물을 주겠다.
- ③ 정한 인원이 다 찰 때까지 공연하겠다.
- ④ 정한 인원이 다 차게 해 주어서 고맙다.

- 정답률: .51 중간 정도의 문항임.
- 변별도: .31 최소 기준 이상임.
- 오답지: 선택지 ③은 매력도가 전무이고, ②의 매력도는 매우 낮은 편이므로 조정 요
- 제언: 선택지 ②와 ③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7. 밑줄 친 표현의 쓰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형은 입이 짧아서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만 먹는다.
- ② 년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하는 거냐?
- ③ 그날 시험에서 코가 납작해진 나는 더 이상 경기장에 가고 싶지 않았다.
- ④ 친구들과 놀고 싶어 오금이 저렸지만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나가지 못하였다.

- 정답률: .80 상당히 쉬운 문항임. 오답지 ①, ②, ③의 매력도를 제고함으로써 정답률 조정 요망
- 변별도: .50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 ③의 매력도 제고 요망.
- 제언: 관용 표현의 사용 빈도나 뜻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선택지 ①, ②, ③의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문장의 흐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이 일은 절대로 오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올해 우리 회사 실적은 아마 예년만 못할 겁니다.
- ③ 글을 잘 쓰려면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읽어야 한다.
- ④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 정답률: .74 다소 쉬운 문항임.
- 변별도: .48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은 매력도가 전무이고, ④의 매력도는 낮은 편이므로 조정 요망.
- 제언: 문항의 평가 요소에 비추어 문두나 답지 구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다만 선택지 ①, ④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9. 두 문장을 연결하고자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 오후가 되자 날
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 ① 그래서 ② 그러면 ③ 그런데 ④ 왜냐하면

- 정답률: .91 매우 쉬운 문항임. 오답지 ①, ②, ④의 매력도를 제고함으로써 정답률 조정 요망
- 변별도: .60 높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는 매력도가 전무이고, 선택지 ④의 매력도는 거의 전무하므로 조정 요망.
- 제언: 문장 간의 의미 관계가 자명하여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임. 세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글에서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접속 부사를 두 개 이상 선택하도록 문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보기>의 ㉠, ㉡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 보 >

기>

- 울타리에 (㉠)을 올려 심은 애호박을 따다.
-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다니, 참 (㉡).

- | | |
|------|------|
| ㉠ | ㉡ |
| ① 넝쿨 | 주책이다 |
| ② 덩굴 | 주책없다 |
| ③ 덩쿨 | 주책없다 |
| ④ 덩굴 | 주책이다 |

- 정답률: .18 상당히 어려운 문항임.
- 변별도: .41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③ 매력도 제고 요망.
- 제언: 무작위 선택 시 정답을 맞힐 확률 .25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매우 어려운 문항이다. ‘넝쿨/덩굴’ 이 복수 표준어이고 ‘덩쿨’ 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만지 않고, ‘주책없다’ 대신 ‘주책이다’ 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일단 선택지 ③번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답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넝쿨/덩굴’, ‘*주책이다/주책없다’ 의 조합만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반적 평가 결과 요약

- 신뢰도: 0.534 (문항수가 작지만 신뢰도 제고 요망)
- 평균 정답률 0.640 (정답률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큰 문제는 아님)
- 평균 변별도 0.452 (괜찮은 수준)

□ 피험자 속성별 평가 결과

○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대학원 포함)
문항 수	10	10	10
수험자 수	22	26	47
신뢰도	0.372	0.532	0.165
전체 정답률	0.595	0.681	0.683
전체 변별도	0.393	0.491	0.348

- 전체 정답률: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정답률 다소 상승
- 전체 변별도: 대학교 재학 집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중간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신뢰도: 적은 문항수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읽기와 듣기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음.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중간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의미: 대학교 졸업 이상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의 배합을 통하여 정답률을 유지하면서도 연령대별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연령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문항 수	10	10	10
수험자 수	32	33	30
신뢰도	0.351	0.455	0.191
전체 정답률	0.70	0.691	0.59
전체 변별도	0.443	0.396	0.348

- 전체 정답률: 20-40대는 유사하며, 50대 이상이 다소 낮음.
- 전체 변별도: 20-3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40대이며, 50대 이상 집단이 좀 더 낮게 나타났음.
- 신뢰도: 30-40대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20대이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의미: 50대 이상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의 배합을 통하여 정답률을 유지하면서도 연령대별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3) 쓰기 능력 평가 결과

□ 문항별 평가 결과

1. 다음은 신문에 투고하기 위하여 쓴 글입니다. 글의 중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봄이 되니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등산은 정말 좋은 취미 생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봄철 등산 시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건조한 날이 지속되며 강풍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산을 오르다 보면 일부 등산객들이 산중턱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가끔 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메말라 있는 초목에 불씨를 옮겨 갑작스럽게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일단 산불이 일어나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인력이 진화에 투입되는 등의 행정력 낭비도 뒤따른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산이 산불 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까지 100여 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이다.

소방서에서 각종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산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스스로가 ‘후손에게 빌려 쓰는 자연’이란 생각을 가지고 등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山)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제목: _____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15점 만점에 11.43, 표현 영역 11.76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언: 답으로 한 문장을 요구하는 본 문항에서 표현력과 문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험자는 쓰기보다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험에서는 이 문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2. 다음은 형이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같은 내용을 회사의 상사에게 쓴다면 어떻게 바꾸어 써야 할지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무슨 일이든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부탁하렴.”

→ _____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15점 만점에 11.47, 표현 영역 13.5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언: 답으로 한 문장을 요구하는 본 문항에서 표현력과 문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험자가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답을 제시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으므로 향후 시험에서는 이 문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3.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아래의 문장에 이어질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보 기>

습관, 건망증, 실수

아침에 일어나면 일정표를 보고 오늘 일을 확인하자. _____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15점 만점에 12.83, 표현 영역 12.3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언: 답으로 한 문장을 요구하는 본 문항에서 표현력과 문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험자가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답을 제시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문제의 의도는 주어진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 연결되는 내용의 문장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피험자는 오답을 제시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향후 시험에서는 이 문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4. 내용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문장을 쓰세요.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_____.

그래서 겨울에는 병원이 붐빈다.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15점 만점에 9.83, 표현 영역 12.86으로 표현 영역에 비해 내용 영역의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언: 답으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문장을 요구하는 본 문항에서 피험자들은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창의성이 두드러지는 답을 제시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향후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좀 더 논리적인 추론을 강조하여야 할 듯함.

5.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적어 음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 뒤 맥락을 고려하여 가운데 들어갈 부분을 두 문장으로 쓰세요.

요즘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또 늦게 잠들었는데 너무 더워서 새벽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 보다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있노라니 옛날에 친구들과 즐겨 했던 놀이가 하나씩 떠올랐어요.

역시 어린 시절은 아무 걱정이 없는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들던 노래 이용복의 <어린 시절>을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42점 만점에 34.59, 표현 영역 18점 만점에 13.40으로 적절한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 제언: 향후 시험에서는 사용되기에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됨.

6. 등산 동호회의 송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임 참여를 권하는 이메일의 본문을 세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적: 송년회

일시: 2012년 12월 21일(금) 저녁 6시

장소: 마포 원조 주물럭

회비: 2만원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42점 만점에 33.22, 표현 영역 18점 만점에 13.18로 적절한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 제언: 향후 시험에서는 사용되기에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됨.

7. 군대를 다녀온 남자에게 취업 시 군 가산점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보세요(400자 이내).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104점 만점에 66.99, 표현 영역 26점 만점에 14.54로 적절한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 제언: 향후 시험에서는 사용되기에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됨.

8. 여행 중에 다음 사진과 같은 집을 보았습니다. 이를 묘사하는 편지글을 친구에게 써 보세요(400자 내외).



- 이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용 영역 104점 만점에 60.18, 표현 영역 26점 만점에 15.86으로 적절한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 제언: 향후 시험에서는 사용되기에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됨.
- 다만, 써야 할 양을 ‘400자 내외’에서 ‘300자 내외’로 조정해도 충분할 듯함.

□ 채점자간 신뢰도와 측정 영역별 간 상관관계

<측정 영역별 채점자간 신뢰도 및 상관관계>

		내용1	표현1	총점1	문법1
내용2	Pearson Correlation	.973**	.816**	.961**	.816**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표현2	Pearson Correlation	.847**	.952**	.896**	.952**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총점2	Pearson Correlation	.971**	.870**	.974**	.870**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문법2	Pearson Correlation	.847**	.952**	.896**	.952**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 측정 영역별 채점자간 신뢰도 :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 내용: .973
- ② 표현: .952
- ③ 총점: .974
- ④ 문법: .952

이와 같이 채점자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첫째, 본 채점 전의 모의 채점을 통해 채점자들의 채점 기준 동등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 둘째, 한 문장짜리 문항의 비율이 높아서 채점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측정 영역별간 상관관계 : 측정 영역간의 상관관계의 범위는 .816 ~ .974 로서 매우 높다.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 간 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짧은 글 쓰기일수록 감점 요인을 찾기 어려워 개인의 쓰기 능력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짧은 글 쓰기의 평균 점수가 긴 글 쓰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문항의 평가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번호	평가 영역	만점	평균		표준편차	
			채점자1	채점자2	채점자1	채점자2
1	내용	15	11.53	11.33	5.33	4.98
	표현	15	11.88	11.63	2.93	2.72
2	내용	15	11.25	11.69	4.70	4.33
	표현	15	13.68	13.33	2.07	1.98
3	내용	15	13.05	12.6	3.81	3.89
	표현	15	12.46	12.17	3.16	3.44
4	내용	15	9.89	9.77	5.94	5.22
	표현	15	13	12.77	2.92	3.07
5	내용, 구조	42	35.17	34	11.53	12.22
	표현	18	13.81	12.98	3.28	3.46
6	내용, 구조	42	33.48	32.95	9.32	8.58
	표현	18	13.55	12.8	2.75	2.63
7	내용, 구조	104	68.84	65.14	33.39	32.74
	표현	26	14.96	14.12	5.43	5.53
8	내용, 구조	104	61.92	58.44	28.14	28.77
	표현	26	16.09	15.63	5.92	6.21
	내용, 구조 합계	352	242.57	235.95		
	표현 합계	148	108.31	105.47		
	전체 총점	500	350.89	98.63		

○ 쓰기 능력의 채점 결과, 50대 이상의 쓰기 능력이 20~40대의 쓰기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이 주목된다. 20대와 30~40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30~40대 중년층의 쓰기 능력이 20대의 쓰기 능력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 모든 채점자의 채점 결과와 모든 평가 요소 측면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대부분인 20대가 대입 준비와 대학 수학 중의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 높은 언어 능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 연구단의 예상에 반한 것으로, 언어 능력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세련되어 질 수 있음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50대 이상의 낮은 쓰기 능력 수준은 이들이 교육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대라는 점에 말미암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각 평가 요소의 세대별 평균 점수>

평 균		채점자1			채점자2		
		20대	30~40대	50대 이상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내용, 구조	269.34	286.57	165.63	267.21	267.84	165.1
	표현	114.28	119.75	89.36	113.03	114.33	87.66
	총점	383.62	406.33	255	380.25	384.39	250.55

□ 쓰기 능력 평가의 표현 영역 결과 분석

쓰기 능력 평가에서 문법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표현’ 부분의 채점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 평가는 미흡, 보통, 우수의 3점 척도로 하였다.

표 221 > 쓰기 능력 평가 표현 요소의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평가 척도		
		미흡	보통	우수
표현	문장이 적법하다	1	2	3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1	2	3
	문체가 적절하다	1	2	3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키고 있다	1	2	3
	양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1	2	3

표현 영역의 채점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평균은 중간 점수를 상회하였으며, 짧은 글 쓰기의 점수가 긴 글 쓰기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짧은 글 쓰기의 문제 효율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현 부분의 표준편차는 내용 부분의 표준편차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수준이 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쓰기 영역의 개인간 편차가 표현 부분보다 내용 부문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표현 부분의 능력은 쓰기 능력 전반의 능력과 같이 50대 이상의 능력이 20~40대의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문법 능력 평가에서 20대, 30~40대, 50대 이상의 정답률이 각각 0.71, 0.691, 0.59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정답률이 20~40대에 비해 다소 낮은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실제 수행형 평가에서 50대 이상의 문법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항의 표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번호	평가 영역	만점	평균		표준편차	
			채점자1	채점자2	채점자1	채점자2
1	표현	15	11.88	11.63	2.93	2.72
2	표현	15	13.68	13.33	2.07	1.98
3	표현	15	12.46	12.17	3.16	3.44
4	표현	15	13	12.77	2.92	3.07
5	표현	18	13.81	12.98	3.28	3.46
6	표현	18	13.55	12.8	2.75	2.63
7	표현	26	14.96	14.12	5.43	5.53
8	표현	26	16.09	15.63	5.92	6.21
	표현 합계	148	108.31	105.47		

<표현 점수의 세대별 평균
점수>

	채점자1			채점자2		
	20대	30~40대	50대 이상	20대	30~40대	50대 이상
표 현	114.28	119.75	89.36	113.03	114.33	87.66

4) 듣기 능력 평가 결과

□ 문항별 평가 결과

※ 은행의 전화 자동 응답 안내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행복을 채우는 농협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금융 사기 신고는 331번, 이체 및 납부는 1번, 조회는 2번, 사고 신고는 3번, 신용 카드는 4번, 기타 서비스는 별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1. (물음)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눌러야 하는 서비스 버튼은 어느 것인가요?

① 1

② 2

③ 3

④ *

- 정답률: .85 상당히 쉬운 문항임. 오답지 매력도 조정 요망.
- 변별도: .61 높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③, ④ 전반적으로 매력도 제고 요망.
- 제언: 지문 길이가 매우 짧아 오답지 매력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항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듣기 지문의 복잡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라디오 방송의 전화 면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2번과 3번 물음에 답하세요.

남: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김철수 사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남: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데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에 불가피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이 있는데요. 자영업자 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직 지원입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 정리, 재취업, 재창업 준비 과정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남: 궁금한 건 보험료인데요. 다달이 얼마나 냅니까?

여: 보험료는 월 3만 5천 원 정도부터 5만 2천 원 정도까지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준 보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등급을 선택할수록 보험료도 높고 실업 급여액도 많아집니다.

남: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가입하죠?

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물음) 이 면담을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 ① 자영업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 ②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알아보려고
- ③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를 낮추려고
- ④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을 홍보하려고

- 정답률: .85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71 높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③의 매력도 제고 요망.
- 제언: 3번과 세트 문항으로서, 하나의 듣기 지문에서 두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앞에 제시되는 문항은 쉽게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택지 ③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을 수정이 필요함.

3. (풀음) 다음 중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진영: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대.
- ② 수연: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대.
- ③ 철호: 실제 소득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대.
- ④ 건희: 실업 급여, 직업 훈련 비용, 전직 지원의 혜택이 있대.

- 정답률: .76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72 높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②의 매력도 제고 요망.
- 제언: 2번 문항보다 정답률 낮게 나왔지만 보통 수준의 문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듣기 지문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선택지 ②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18일 새벽 4시를 넘기며 사용자 쪽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급을 3.5%, 무사고 수당을 4만 원 올리는, 총액 기준 4.6% 임금 인상안에 사용자 쪽과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새벽 3시께 협상장인 용산구 동자동 버스 노조 회관을 찾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시의 대중교통 적자를 고려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4. (물음) 이 뉴스에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

- ① 돌입 ② 결렬 ③ 협조 ④ 타결

- 정답률: .80 상당히 쉬운 문항임.
- 변별도: .53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는 매력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고 요망
- 제언: 현재의 문항 형태를 유지하면서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이거나, 선택지를 단어가 아닌 제목 형태로 제시하여 정답률을 조정할 수 있음.

※ 방송 시사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 학교에 경찰이 들어와서 학교 폭력을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여: 저는 학교에 경찰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배움터 아닙니까?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학교에서 즉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교권이 약화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의 권위가 높았던 과거에도 학교 폭력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사의 책무를 경찰에게 넘긴다면 교권이 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 저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금지된 후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주의를 주는 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을 단속한다면 학생들은 폭력이 법적인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분위기도 좀 더 안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폭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물음) 이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 ① 학교 폭력 단속을 위한 경찰 개입의 필요성
- ②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방법
- ③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입장
- ④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 정답률: .92 매우 쉬운 문항임. 오답지 매력도를 제고함으로 정답률 조정 필요함.
- 변별도: .70 높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③은 매력도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요망. 선택지 ②도 매력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고 요망.
- 제언: 현재와 같은 문두를 유지할 때에는 선택지 ②, ③의 매력도를 높여서 정답률을 조정할 수 있음. 듣기 지문에서 토론의 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주장의 근거나 전제 따위를 묻는 추론적 듣기 능력이나 입장이나 근거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요구하는 비판적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공익 광고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약소합니다. 하하하.”

“뭐 이런 걸 다……. 하하”

“우리 이제 한 배 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아무도 안볼 때 얼른 받으세요.”

“아잇, 그럴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그런 거 우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6. (물음)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자.
- ②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
- ③ 대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자.
- ④ 허례허식을 없애고 검소하게 살자.

- 정답률: .94 너무 쉬운 문항임. 오답지 매력도를 제고함으로 정답률 조정 필요함.
- 변별도: .44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③은 매력도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요망. 선택지 ④도 매력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고 요망.
- 제언: 선택지 ③과 ④의 매력도를 높여 정답률을 조정하거나, 광고에서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로 수정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 반사회 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 1: 자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남 1: 지난주에 운동기구 놓고 헬스장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 1: 뭐 집에 러닝머신 같은 거 있는데 또 그걸 사야 하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남 1: 그럼 어떻게 쓰죠?

여 2: 택배실로 쓰면 안돼요? 우리 친정 아파트는 그렇게 하던데요.

남 1: 거기 택배를 모아 놓으면 누가 관리하죠?

여 2: 경비 아저씨나 뭐…….

남 1: 지금도 경비 아저씨가 좀 받아 주잖아요.

여 1: 분실하고 그럼 또 말 많아질 텐데……. 일단 뭐 그럼 택배실도 쓰고…….

남 1: 공부방은요? 애들 책상 갖다 놓고 독서실처럼 쓸 수 있게…….

여 1: 그것도 좋네요. 독서실 가봤자 애들 놀기만 할 텐데 거기 있으면 한 번씩 내려가 보면 되겠네요.

여 2: 아니 그럼 애들이 공부방 되겠어요? 괜히 신경만 쓰이죠.

7. (물음) 이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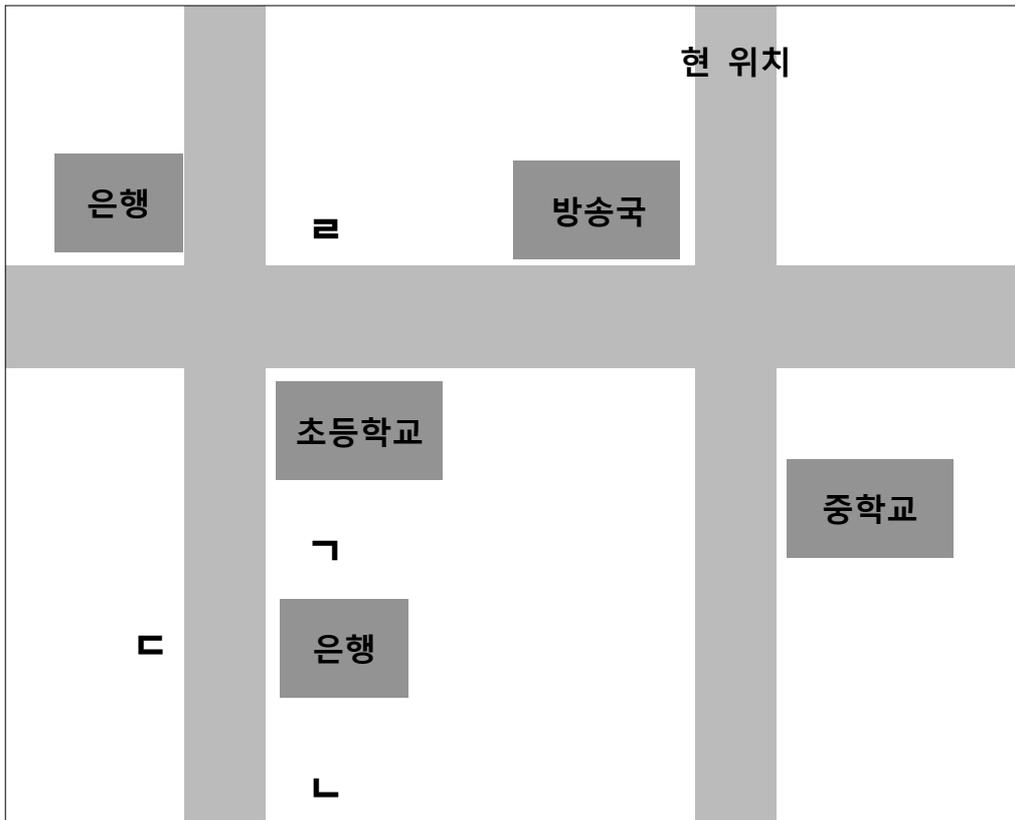
- ① 헬스장
- ② 놀이방
- ③ 택배실
- ④ 공부방

- 정답률: .95 매우 쉬운 문항임. 오답지 수정으로 정답률 조정 요망.
- 변별도: .51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④는 매력도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 요망. 선택지 ③도 매력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고 요망.
- 제언: 현재의 문항 구조에서는 답지의 변경을 통한 매력도 제고가 어려우므로, 듣기 지문에서 회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령 정답지인 ‘놀이방’이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가 아닌 다른 맥락에서 언급되게 한다든지, 지문 수정과 함께 선택지의 복잡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길거리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 저기요, 말씀 좀 여쭙게요.
 남: 네, 말씀하세요.
 여: 여기에서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남: 이 아래로 쪽 내려가시다 보면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을 끼고 오른 편으로 돌아서 100미터쯤 곧장 가시면 초등학교가 보이는데요, 초등학교를 왼쪽 편으로 끼고 돌아서 50미터쯤 가시면 우측으로 우체국이 있을 거예요. 은행 건너편 건물이에요.
 여: 네, 좀 복잡하네요. 일단 방송국까지 갔다가 초등학교를 찾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남: 네, 잘 알아들으셨네요. 가다가 못 찾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이 동네 우체국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쉽게 찾으실 거예요.
 여: 감사합니다.

8. (물음) 남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지도에서 우체국이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 정답률: .92 매우 쉬운 문항임.
- 변별도: .47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는 매력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고 요망.
- 제언: ㄱ, ㄴ의 위치가 은행 건너편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배제되므로, 정답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ㄱ, ㄴ의 위치를 수정하거나, 좀 더 복잡한 거리에서 길을 찾는 대화로 듣기 지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들: 아버지, 친구는 나이나 수준이 서로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 옛말에 보면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고, 혼인은 아래를 보고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그 말은 이왕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 말이지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닐 거야. 친구를 사귄다 하면 다 위로 보고 사귀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평생 사귄다 하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평생 사귄다 할 수 없지 않겠니?

아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자기보다 나은 친구, 못한 친구 얘기를 하는 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말이지. 또 나쁜 친구를 사귀면 함께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너희처럼 자랄 때는 말이지.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믿고 도울 수 있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

9. (물음) ‘친구’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 ①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는 게 좋다.
- ② 가까이 사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다.
- ③ 어렵거나 외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 ④ 서로 믿고 힘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 정답률: .92 매우 쉬운 문항임.
- 변별도: .47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는 매력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고 요망.
- 제언: 정답과 관련되는 내용이 지문의 끝 부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 선택지 ①, ②의 매력도가 낮다는 점이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다. 대화의 내용을 상호작용이 더 강하게 드러나도록 조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내용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정답률을 조정할 수 있음.

※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출간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 책에 나온 실험을 보면, 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키운 생쥐들은 93%가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에서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목조 건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피곤도가 2배 이상 높았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아토피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 아파트 생활에서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아파트에서 탈출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생태 건축으로 보금자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짓기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나무도 사 가지고 미리 말려서 다듬기 시작하고, 3년 후인 2000년 5월 3일에 본격적으로 집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11월 4일에 아직 미완성인 집에 이사를 했지요. 그 집에서 살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집사람은 당시에 허릿병이 있었는데 황토방에서 지져서 그런지 짝 나았어요. 저도 만성 피로랑 아토피가 짝 없어졌고요. 그래서 “참 이 흙집이 대단하구나, 흙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자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흙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 새나 별도 자기 집은 스스로 짓잖아요. 여기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느라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제가 거의 독학으로 흙집을 짓고 흙집 짓기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흙집 짓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 (물음) 다음 중 이 강연을 듣고 연사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민재: 흙집 짓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 ② 동훈: 콘크리트 건물이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구나.
- ③ 경은: 강연자는 흙집에 살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구나.
- ④ 민정: 의사 선생님들도 흙집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셨구나.

- 정답률: .97 지극히 쉬운 문항임. 오답지 수정으로 정답률 조정 요망.
- 변별도: .43 괜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은 매력도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요망. 선택지 ②, ③도 매력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고 요망.
- 제언: 현재의 답지는 구체적 적용보다는 강연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 수준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답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강연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묻는 문항을 수정하고 강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거나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는 문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점원과 고객 간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점원: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이 필요하세요?

손님: 바지 하나 사려구요.

점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바지는 어떠세요?

손님: 이 바지는 너무 딱 달라붙지 않나요?

점원: 요즘 이런 바지가 유행이에요.

손님: 그래도 저는 불편한 바지는 싫은데……. 통이 좀 더 넓은 바지는 없어요?

점원: 요새 누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요? 그냥 이거 입으세요. 입으시면 예쁘실 거예요.

손님: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한번 입어 볼게요.

(휴지)

손님: 아,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끼어서 불편한데요. 좀 더 편한 바지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밝아서 좀 그래요.

점원: 손님, 바지는 입다 보면 다 늘어나요. 그리고 이 색이 이번 가을에 제일 유행하는 색이에요. 다른 집 가 보세요. 다 이 색이 유행이라고 할 걸요?

손님: 그래도 이 바지는 안 되겠어요. 다른 바지 보여 주세요.

점원: 다른 바지도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 통 넓은 바지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않아요. 다른 가게 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이 바지로 하세요.

11. (물음) 상품을 추천하는 점원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① 비싼 옷을 싸다고 말하며 고객을 속이고 있다.
- ② 옷과 관련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
- ③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
- ④ 일관성 없이 옷을 추천하여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정답률: 1.00 지극히 쉬운 문항임. 오답지 수정으로 정답률 조정 요망.
- 변별도: 0.00 매우 낮은 편임.
- 오답지: 선택지 ①, ②, ④는 매력도 전무하므로, 수정 요망.
- 제언: 이 문항은 피험자 전원이 정답을 맞힌 문항이다. ①, ②, ④의 매력도를 높이고, 점원의 말에 여러 가지 설득 전략이 포함되도록 듣기 지문을 수정함으로써 정답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토론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듣기 12번 물음과 말하기 1번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 최근 고령화 대책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저는 찬성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들은 고령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정년도 55세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도 회복되었으니 정년도 원상복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저는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아버지 세대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질 것입니다.

남: 그렇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고령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고령자들은 중소기업 기능직이 많아요.

여: 저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과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고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 (물음) 이 토론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정년 연장이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 ②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③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④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겹친다.

- 정답률: .67 다소 쉬운 문항임.
- 변별도: .62 높은 편임.
- 오답지: 매력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임.
- 제언: 쉬운 문항이지만 듣기 능력 평가 전체 문항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이다. 답화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보다는 정보 간의 관계나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항의 수준을 참고하여 다른 문항의 정답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 평가 결과 요약

- 신뢰도: 0.785 (대 사회적 책임이 큰 시험으로서 .8이상 요구됨. 좀 더 제고할 필요 있음)
- 평균 정답률 0.868 (매우 쉬운 편이어서, 정답률 조정이 많이 필요함)
- 평균 변별도 0.526 (괜찮은 편임)

□ 피험자 속성별 평가 결과

○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원 포함)
문항 수	12	12	12
수험자 수	22	26	47
신뢰도	0.829	0.480	0.657
전체 정답률	0.708	0.907	0.922
전체 변별도	0.621	0.433	0.438

- 전체 정답률: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정답률 상승
- 전체 변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재학 집단에게 다소 낮게 나타났음. 즉, 학력이 낮은 집단에게 변별력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신뢰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중간이고,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의미: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너무 높고 특히 고학력자의 정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정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문항 수	12	12	12
수험자 수	32	33	30
신뢰도	0.517	0.313	0.79
전체 정답률	0.919	0.955	0.719
전체 변별도	0.405	0.432	0.583

- 전체 정답률: 20-40대까지는 유사하며, 50대 이상이 다소 낮음.
- 전체 변별도: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 20-40대는 다소 낮게 나왔음.

- 신뢰도: 5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그 다음이며, 30-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의미: 20대 및 30-40대의 경우 신뢰도가 낮는데 이는 문항이 지나치게 쉽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 이 연령대의 국어 능력을 변별하기에 적합하도록 정답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5) 말하기 능력 평가 결과

□ 문항별 평가 결과

※ 토론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듣기 12번 물음과 말하기 1번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 최근 고령화 대책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저는 찬성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들은 고령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정년도 55세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도 회복되었으니 정년도 원상복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저는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아버지 세대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질 것입니다.

남: 그렇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고령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고령자들은 중소기업 기능직이 많아요.

여: 저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과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고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물음) 이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1.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 가지 들어서 말씀하세요(들은 내용을 활용해도 무방함).

2. 준비 시간과 말하기 시간 각각 1분 이내입니다. 말할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언>

- ‘근거를 두 가지 들어서 말하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고려 등을 말하기 내용에 포함시키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토론을 들려주지 않고 논제를 선택하여 말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말하기 시간을 2분 내외로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함.
- ‘표현 및 전달’의 평가 항목을 ‘어휘와 문장 표현, 유창성(반언어적 표현, 유창성, 시간 활용 등

합)’의 두 가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 항목 및 요소별 비중은 추후 본검사에서 회귀분석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번부터 4번까지는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1분간 준비한 후, 말할 준비가 되면 1분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문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물음)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수를 하여 생긴 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날씨가 나빠서 예정보다 하루를 더 머물렀던 일

<제언>

- 경험을 말하게 할 때 말하기 상황이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즉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하는지를 명시), 사건의 경위와 느낌을 말하기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과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말하기 시간을 2분 내외로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함.
- ‘내용 구성’에 비해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및 전달’의 평가 항목이 더 세분되어 있어서 후자를 ‘어휘와 문장 표현, 유창성(반언어적 표현, 유창성, 시간 활용 통합)’의 두 가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 항목 및 요소별 비중은 추후 본검사에서 회귀분석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물음) 사람들이 함부로 내다 버린 쓰레기로 집 앞 골목이 늘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담당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언>

- 말하기 과제에서, ‘집 앞 골목이 늘 지저분한 상황’ 이 주거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실제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보편적인 말하기 상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몇 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말을 하도록 말하기 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말하기 시간을 2분 내외로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함.
- ‘내용 구성’ 에 비해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및 전달’ 의 평가 항목이 더 세분되어 있어서 후자를 ‘어휘와 문장 표현, 유창성(반언어적 표현, 유창성, 시간 활용 통합)’ 의 두 가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 항목 및 요소별 비중은 추후 본검사에서 회귀분석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물음) 다음 속담 중 하나를 골라 초등학생에게 예를 들면서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쇠귀에 경 읽기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제언>

- 말하기 과제 구성 시 설명할 내용과 상대를 어떻게 선정할지 고려하여야 함. 설명할 내용은 개념, 사물, 현상, 과정이나 절차 등에서 선택하게 하고, 말할 상대도 연령,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하여 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속담의 뜻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데에는 1분이 적절함. 단, 설명하는 대상을 달리 할 경우 말하기 시간을 조정할 필요 있음.
- ‘내용 구성’에 비해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및 전달’의 평가 항목이 더 세분되어 있어서 후자를 ‘어휘와 문장 표현, 유창성(반언어적 표현, 유창성, 시간 활용 통합)’의 두 가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 항목 및 요소별 비중은 추후 본검사에서 회귀분석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 평가 결과 요약

- 전체 정답률 48.7 (보통 수준임)
- 전체 표준편차 12.7

□ 피험자 속성별 평가 결과

○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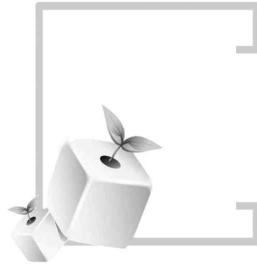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원 포함)		
문항 수	4		4		4		
수험자 수	22		26		47		
전체 정답률	43.7		52.9		48.8		
내용 구성	표현 및 전달	23.6	20.1	30.7	22.3	27.0	21.8
전체 표준편차	7.2		7.3		11.9		
내용 구성	표현 및 전달	5.1	2.6	5.4	2.6	7.7	4.6

- 전체 정답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순이었다.
- 평가 범주별 정답률: 평가 범주별로도 전체 정답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전체 표준편차: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비슷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졸업 이상 대상의 경우 50대 이상과 20-30대 연령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평가 범주별 표준편차: 평가 범주별로도 전체 표준편차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의미: 전체 정답률과 내용 구성, 표현 및 전달 정답률이 모두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높게 나왔다. 학력이 말하기 능력을 설명하는 데 영향력 있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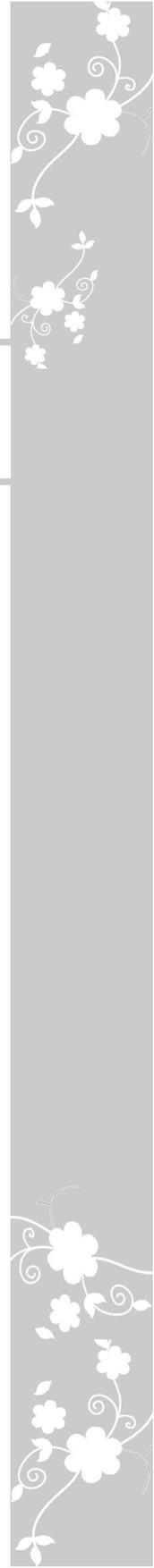
		20대		30-40대		50대 이상	
문항 수		4		4		4	
수험자 수		32		33		30	
전체 정답률		53.0		49.5		43.2	
내용 구성	표현 및 전달	31.0	22.0	27.2	22.3	23.0	20.2
전체 표준편차		10.3		13.6		12.2	
내용 구성	표현 및 전달	5.1	2.5	7.6	3.8	6.1	4.6

- 전체 정답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평가 범주별 정답률: ‘내용 구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표현 및 전달’의 경우 20-40대가 비슷하고 50대 이상이 약간 낮게 나왔음.
- 전체 표준편차: 20대, 50대 이상, 30-40대의 순으로 높게 나왔음.
- 평가 범주별 표준편차: ‘내용 구성’의 경우 전체 표준편차와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나 ‘표현 및 전달’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음.
- 의미: 내용 구성 능력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말하기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표현 및 전달 측면에서는 50대 이상의 경우 개인별 편차도 더 크고 전체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 4 장

문항 분석



1. 영역별 문항 분석

* 통계 수치 해석을 위해 참조할 내용

1. 정답률: 이상적 범위: .3 - .7 (숫자가 작을수록 어렵고, 숫자가 클수록 쉬운 문항임)
2. 변별도: 최소 범위: .3이상
3. 오답지: 최소한의 매력도 기준= (1-정답률)/(선택지 수-1)

아래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시험 개발의 방향을 수정하고, 시험 문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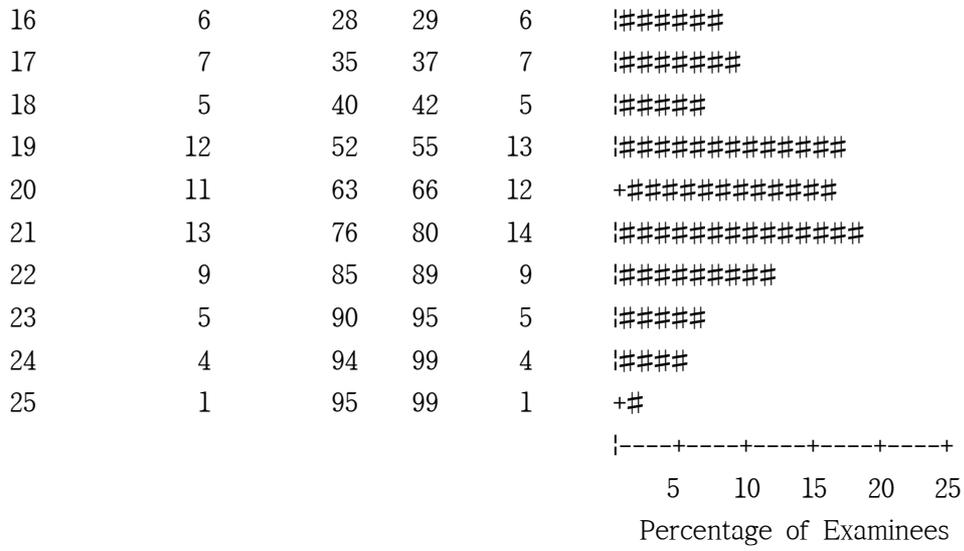
(1) 읽기 능력 평가

1) 전체 시험 속성 요약표

- 1) 신뢰도 0.835 => 괜찮은 편임. 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험에서 최소 .8이상은 요구 됨.
- 2) 평균 정답률 0.715 => 쉬운 편이어서, 정답률 다소 조정 요망됨.
- 3) 평균 변별도 0.457 => 괜찮은 편임.

2) 점수 빈도 분포표

정답개수	빈도수	누적빈도	백분위	퍼센트	
-----	-----	-----	----	----	
0	1	1	1	1	+ #
1	0	1	1	0	!
2	0	1	1	0	!
3	0	1	1	0	!
4	0	1	1	0	!
5	0	1	1	0	+
6	1	2	2	1	! #
7	3	5	5	3	! ###
8	0	5	5	0	!
9	1	6	6	1	! #
10	4	10	11	4	+ #####
11	2	12	13	2	! ##
12	0	12	13	0	!
13	3	15	16	3	! ###
14	3	18	19	3	! ###
15	4	22	23	4	+ #####



(2) 듣기 능력 평가

1) 전체 시험 속성 요약표

- 1) 신뢰도 0.785 => 대 사회적 책임이 큰 시험으로서 .8이상 요구됨. 좀 더 제고 있음.
- 2) 평균 정답률 0.868 => 매우 쉬운 편이어서, 정답률 조정이 많이 필요함
- 3) 평균 변별도 0.526 => 괜찮은 편임.

2) 점수 빈도 분포표

정답개수	빈도수	누적빈도	백분위	퍼센트	
-----	-----	-----	-----	-----	
1	0	0	1	0	
2	1	1	1	1	#
3	0	1	1	0	
4	3	4	4	3	###
5	0	4	4	0	+
6	2	6	6	2	##
7	2	8	8	2	##
8	8	16	17	8	#####
9	7	23	24	7	#####
10	11	34	36	12	+#####
11	19	53	56	20	#####
12	42	95	99	44	#####>

|-----+-----+-----+-----+-----+

5 10 15 20 25

Percentage of Examinees

(3) 문법 능력 평가

1) 전체 시험 속성 요약표

1) 신뢰도	0.534 => 문항수가 작지만 신뢰도 제고 요망
2) 평균 정답률	0.640 => 정답률은 다소 쉬운 편이지만 큰 문제는 아님.
3) 평균 변별도	0.452 => 괜찮은 수준

2) 점수 빈도 분포표

정답개수	빈도수	누적빈도	백분위	퍼센트	
-----	-----	-----	-----	-----	
0	1	1	1	1	+##
1	0	1	1	0	!
2	2	3	3	2	!###
3	4	7	7	4	!####
4	8	15	16	8	!#####
5	12	27	28	13	+#####
6	16	43	45	17	!#####
7	25	68	72	26	!#####>
8	17	85	89	18	!#####
9	7	92	97	7	!#####
10	3	95	99	3	+###

|-----+-----+-----+-----+-----+
 5 10 15 20 25
 Percentage of Examinees

2. 학력별, 연령별 문항 분석

(1) 읽기 능력 평가 - 학력별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원 포함)
문항 수	25	25	25
수험자 수	22	26	47
신뢰도	0.76	0.868	0.536
전체 정답률	0.636	0.752	0.768
전체 변별도	0.388	0.508	0.298

1. 전체 정답률: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정답률 상승
2. 전체 변별도: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으로 전체 변별도 가장 높음.
3. 신뢰도: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이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낮음.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은 최소 기준인 .6보다 낮음.

<표> 읽기시험 학력별 난이도(정답률)/변별도

문항번호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1	.82	.28	.81	.46	.91	.13
2	.64	.65	.54	.52	.72	.10
3	.50	.55	.81	.61	.94	.08
4	.36	.34	.73	.33	.60	.34
5	.09	.31	.15	.17	.11	-.05
6	.95	.31	.85	.51	.85	.58
7	.68	.10	.88	.61	.89	.58
8	.73	-.31	.69	.56	.70	.25
9	.50	.68	.85	.60	.87	.33
10	.55	.29	.62	.49	.85	.12
11	.23	.08	.42	.47	.53	.27
12	.64	.08	.81	.42	.74	.22
13	.91	.22	.88	.66	.96	.44
14	.23	.22	.73	.73	.55	.28
15	.91	.49	1.00	1.00	.96	.36
16	.77	.75	.77	.56	.89	.23
17	.82	.50	.88	.56	.87	.28
18	.68	.25	.77	.52	.72	.27
19	.77	.51	.81	.40	.87	.26
20	.86	.47	.92	.64	.91	.25
21	.64	.42	.73	.53	.77	.59
22	.77	.41	.88	.43	.91	.58
23	.55	.42	.81	.67	.64	.12
24	.64	.65	.62	.51	.66	.46
25	.68	.51	.85	.23	.74	.36

(2) 읽기 능력 평가 - 연령별

	연령		
	20대	30-40대	50대 이상
문항 수	25	25	25
수험자 수	32	33	30
신뢰도	0.841	0.523	0.707
전체 정답률	0.772	0.777	0.643
전체 변별도	0.479	0.289	0.353

1. 전체 정답률: 20-40대까지는 유사하며, 50대 이상이 다소 낮음.
2. 전체 변별도: 20대에 가장 높고, 50대 이상이 중간이며, 30-40대에 다소 낮게 나타났음.
3. 신뢰도: 2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이 중간이며, 30-40대에 다소 낮게 나타났음.

<표> 읽기시험 연령별 난이도(정답률)/변별도

문항번호	20대		30-40대		50대이상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1	.84	.50	.88	.21	.87	.26
2	.63	.47	.73	.10	.60	.49
3	.84	.60	.91	.22	.63	.48
4	.75	.20	.61	.47	.37	.29
5	.19	.26	.06	.16	.10	-.09
6	.81	.52	.91	.50	.90	.32
7	.91	.63	.88	.53	.73	.23
8	.69	.57	.73	.13	.70	-.18
9	.88	.63	.85	.43	.60	.57
10	.66	.42	.91	.13	.57	.26
11	.50	.47	.48	.24	.30	.52
12	.81	.25	.79	.37	.60	.05
13	.91	.68	.94	.44	.93	.32
14	.78	.67	.52	.35	.27	.15
15	1.00	1.00	.97	.24	.90	.47
16	.75	.53	.94	.19	.80	.71
17	.91	.53	.85	.30	.83	.50
18	.78	.54	.70	.11	.70	.35
19	.84	.38	.94	.24	.70	.33
20	.91	.58	.97	.10	.83	.36
21	.75	.52	.82	.44	.60	.49
22	.94	.43	.97	.24	.70	.49
23	.81	.54	.58	.17	.60	.42
24	.63	.48	.67	.59	.63	.56
25	.81	.09	.85	.33	.60	.46

(3) 듣기 능력 평가 - 학력별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원 포함)
문항 수	12	12	12
수험자 수	22	26	47
신뢰도	0.829	0.480	0.657
전체 정답률	0.708	0.907	0.922
전체 변별도	0.621	0.433	0.438

1. 전체 정답률: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정답률 상승
2. 전체 변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재학 집단에게 다소 낮게 나타났음. 즉, 학력이 낮은 집단에게 변별력이 더 높게 나타났음.
3. 신뢰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중간이고,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듣기시험 학력별 난이도(정답률)/변별도

문항번호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1	.77	.76	.85	.38	.89	.70
2	.64	.78	.96	.45	.89	.60
3	.36	.65	.92	.65	.85	.65
4	.55	.44	.73	.55	.96	.45
5	.68	.75	1.00	1.00	.98	.42
6	.86	.34	1.00	1.00	.94	.62
7	.86	.70	.96	.45	.98	.01
8	.82	.65	.88	.34	.98	.11
9	.91	.60	1.00	1.00	.98	.11
10	.64	.78	.85	.21	.87	.47
11	1.00	1.00	.96	-.02	1.00	1.00
12	.41	.40	.77	.88	.74	.68

(4) 듣기 능력 평가 - 연령별

	연령		
	20대	30-40대	50대 이상
문항 수	12	12	12
수험자 수	32	33	30
신뢰도	0.517	0.313	0.79
전체 정답률	0.919	0.955	0.719
전체 변별도	0.405	0.432	0.583

1. 전체 정답률: 20-40대까지는 유사하며, 50대 이상이 다소 낮음.
2. 전체 변별도: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 20-40대는 다소 낮게 나왔음.
3. 신뢰도: 5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그 다음이며, 30-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듣기시험 연령별 난이도(정답률)/변별도

문항번호	20대		30-40대		50대이상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1	.91	.44	.94	.61	.70	.61
2	.97	.44	.94	.14	.63	.77
3	.97	.44	.94	.61	.33	.60
4	.72	.75	1.00	1.00	.67	.46
5	.97	.44	1.00	1.00	.77	.72
6	1.00	1.00	1.00	1.00	.80	.33
7	.94	.32	1.00	1.00	.90	.66
8	.94	.11	.97	.31	.83	.57
9	1.00	1.00	.97	.31	.93	.56
10	.88	.24	.91	.30	.63	.69
11	.97	.00	1.00	1.00	1.00	1.00
12	.78	.87	.79	.74	.43	.44

(5) 문법 능력 평가 - 학력별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원 포함)
문항 수	10	10	10
수험자 수	22	26	47
신뢰도	0.372	0.532	0.165
전체 정답률	0.595	0.681	0.683
전체 변별도	0.393	0.491	0.348

1. 전체 정답률: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정답률 다소 상승
2. 전체 변별도: 대학교 재학 집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중간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3. 신뢰도: 적은 문항수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읽기와 듣기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음. 대학교 재학 집단 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중간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문법시험 학력별 난이도(정답률)/변별도

문항번호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1	.55	.64	.85	.80	.85	.21
2	.41	.59	.69	.54	.64	.26
3	.55	.09	.38	.40	.64	.46
4	.36	.71	.62	.23	.47	.53
5	.86	.39	1.00	1.00	.91	.19
6	.45	.36	.42	.32	.55	.55
7	.91	-.11	.81	.56	.81	.50
8	.68	.34	.81	.50	.83	.11
9	1.00	1.00	.96	.55	1.00	1.00
10	.18	.52	.27	.51	.13	.33

(6) 문법 능력 평가 - 연령별

	연령		
	20대	30-40대	50대 이상
문항 수	10	10	10
수험자 수	32	33	30
신뢰도	0.351	0.455	0.191
전체 정답률	0.70	0.691	0.59
전체 변별도	0.443	0.396	0.348

1. 전체 정답률: 20-40대는 유사하며, 50대 이상이 다소 낮음.
2. 전체 변별도: 20-3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40대이며, 50대 이상 집단이 좀 더 낮게 나타났음.
3. 신뢰도: 30-40대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20대이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문법시험 연령별 난이도(정답률)/변별도

문항번호	20대		30-40대		50대이상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난이도(정답률)	변별도
1	.91	.66	.97	-.01	.43	.67
2	.75	.40	.64	.39	.40	.43
3	.41	.31	.64	.55	.60	.27
4	.66	.27	.42	.62	.37	.48
5	1.00	1.00	.94	.06	.83	.34
6	.38	.40	.48	.74	.63	.38
7	.81	.44	.88	.50	.80	.14
8	.88	.45	.73	.18	.77	.40
9	.95	.62	1.00	1.00	1.00	1.00
10	.25	.45	.21	.54	.07	.02

3. 쓰기 능력 평가 측정 영역별 채점자간 신뢰도 및 상관관계

		내용1	표현1	총점1	문법1
내용2	Pearson Correlation	.973**	.816**	.961**	.816**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표현2	Pearson Correlation	.847**	.952**	.896**	.952**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총점2	Pearson Correlation	.971**	.870**	.974**	.870**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문법2	Pearson Correlation	.847**	.952**	.896**	.952**
	Sig. (2-tailed)	.000	.000	.000	.000
	N	95	95	95	95

1. 측정 영역별 채점자간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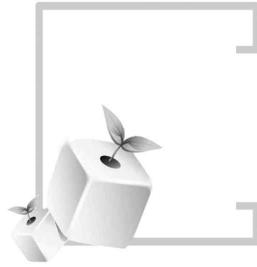
- 1) 내용: .973
- 2) 표현: .952
- 3) 총점: .974
- 4) 문법: .952

=> 모두 매우 높은 수준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2. 측정 영역별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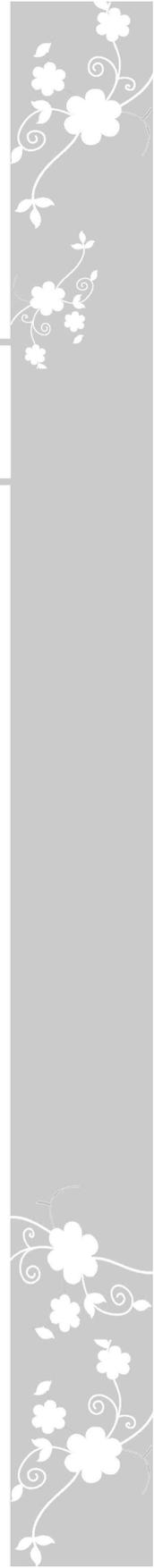
측정 영역간의 상관관계의 범위는 .816 ~ .974 로서 매우 높음.

=>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간 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예비조사 분석 결과

예비조사의 평가 결과 점수를 세대별과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전체 평점은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72.7점으로 전반적인 출제가 무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조사에 응한 피험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 결과로 세대별 국어 능력을 단정지어 평가할 수는 없지만, 20대와 30~40대의 국어 능력은 거의 대등하게 평가된 반면 50대 이상의 국어 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읽기 (300점/100점 환산점수)	문법 (100점)	쓰기 (500점/100점 환산점수)	듣기 (300점/100점 환산점수)	말하기 (300점/100점 환산점수)	문법 + 쓰기 표현 영역(248점 /100점 환산점수)	총점 (1500점 /100점 환산점수)
20대	232/77.3	70	384/76.8	276/92.0	212/70.7	184/74.2	1173/78.2
30~40대	228/76.0	70	406/81.2	286/95.3	198/66.0	189/76.2	1189/79.3
50대 이상	193/64.3	59	255/51.0	216/72.0	173/57.7	148/59.7	896/59.7
전체	218/72.7	66	351/70.2	261/87.0	195/65.0	175/70.6	1091/72.7

2. 영역별 제언

1) 읽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읽기 능력 평가 문항 개발 과정 관련 제언

○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역시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정도의 엄밀한 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출제진이 2~3일 정도의 합숙을 통한 집중 작업을 통해서 검사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사지 구성 체제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또한 이렇게 구성된 검사지에 대한 예비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지의 수정, 본검사의 절차

로 국민 국어능력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사가 완료된 뒤에 다시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한 시간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 읽기 능력 평가 문항 구성 제언

-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문항 구성의 원칙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항 구성 원칙에서 지나치게 노년층을 고려함으로써 청·장년층에게는 지나치게 쉬운 문항이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제 읽기 능력 검사에서는 최소한 청·장년층을 위한 읽기 능력 검사지와 노년층을 위한 읽기 능력 검사지를 따로 만드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읽기 능력 현황 분석이 따로 이루어져야만 이에 알맞은 검사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능력 검사지의 **정답률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 정답률이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결과 제시된 텍스트들의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 역시 위에서 제시한 제언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일 것이나, **문항을 위한 제시글의 함량을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문항이 구성될 필요는 분명하다.
- 피험자들이 ‘읽기, 문법, 듣기, 말하기, 쓰기’ 모든 영역을 해결하여 피로도가 높고 거부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험자의 피로도와 거부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향의 하나로 읽기 능력 평가 문항의 수도 현재의 **25문항에서 20문항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 문항을 위한 제시 글의 ‘설명적 텍스트’ 가운데 **공문**은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텍스트임에는 틀림없으나, 글의 구조나 표현 등이 상대적으로 명시적이어서 잘못 해석되는 일이 드물 뿐만 아니라, 공문을 접하는 경험의 유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문’ 텍스트는 평가 대상 글에서 제외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이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보다 많이 접하는 ‘설명적 텍스트’의 하나인, 각종 회원 가입이나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약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또한 ‘친교적 텍스트’ 가운데 전자 우편 글은, 충분한 함량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읽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자 우편** 글의 함량을 높이든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보다는 각종 행사나 모임의 **감사의 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설득적 텍스트’의 광고로 공익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종 상업 광고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상업 광고**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 이상의 사실과, 예비 평가의 결과를 고려할 때 본 검사를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읽기 능력	평가 요소	문항 수		문항 비율
가. 사실적/축자적 읽기 능력	① 세부 내용 파악 능력	4	10	50%
	② 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		
	③ 글의 구조 파악 능력	2		
	④ 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2		
나. 추론적 읽기 능력	① 비명시적 중심 내용 파악 능력	1	6	30%
	② 전제나 가정의 파악 능력	1		
	③ 글 쓴 목적이나 동기 파악 능력	1		
	④ 생략된 내용 파악 능력	2		
	⑤ 글쓴이의 태도나 입장 파악 능력	1		
다. 비판적 읽기 능력	① 구성의 적절성 파악 능력	1	4	20%
	② 표현의 적절성 파악 능력	1		
	③ 내용의 타당성 파악 능력	1		
	④ 내용의 효용성 파악 능력	1		
		20		100%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안문	가정 통문	사용 설명서	기사 문	약관	계좌 책	논설사 설	추천서	만평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감사 글
가①					●			●				●	●
가②		●									●		
가③				●			●						
가④			●			●							
나①										●			
나②									●				
나③		●											
나④							●		●				
나⑤											●		
다①	●												
다②										●			
다③				●									
다④			●										
총20	1	2	2	2	1	1	2	1	2	2	2	1	1

□ 문항 수정 예

예비 평가의 결과 오답지의 매력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의 오답지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여 전체적인 정답률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평가 대상 텍스트 유형과 평가 요소의 수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텍스트 유형과 평가 요소가 동일하기 유지된 문항들을 대상으로 답지를 수정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 이 설명서를 보고도 알 수 없어서 제조회사에 문의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온수만 사용해서 세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② 세탁기 조작을 위한 버튼은 어디에 있나요?
- ③ ‘표준 코스’로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력도 낮음)
→ 넣어야 하는 세제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 ④ 빨래 할 때 물높이를 어떻게 맞추나요?

* 정답: ①

* 평가 요소: 사실적 읽기(내용의 타당성 파악) 능력

6. 학교에서 이 가정 통신문을 보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학교의 교육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학교 운영 방식의 특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③ 학부모총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 ④ 학교 행사에 도움을 준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매력도 0)
→ 학교의 운영 방침에 대해 동의해 주기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 정답: ③

* 추론적 읽기(글 쓴 목적이나 동기 파악) 능력

13. 이 공익광고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 ①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 ② 일회용 종이컵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매력도 낮음)
→ 일회용 종이컵은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합니다.
- ③ 일회용 종이컵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맙시다. (매력도 낮음)
→ 일회용 종이컵은 나무가 아닌 재료로 만듭니다.
- ④ 일회용 종이컵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듭니다.

* 정답: ①

* 평가 영역: 추론적 읽기(비명시적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1. 이 편지에서 ‘엄마’가 말하고자 한 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요? (발문 수정 필요)

→ 이 편지에서 ‘엄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요? (발문 수정)

- ① 훈련 중에 부상을 조심해라. (매력도 낮음)
→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네 모습에 가슴 아프다.
- ② 훈련을 보람 있게 마치기를 바란다.
- ③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
- ④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매력도 낮음)
→ 군인인 네가 자랑스럽다.

* 정답: ②

* 평가 영역: 사실적 읽기(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 문법 능력 평가 관련 제언

□ 문법 능력 평가 문항 개발 과정 관련 제언

-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 문법 능력 평가를 위한 영역을 별도로 구성하고, 쓰기 능력 평가에 일부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문법 능력을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문법 영역과 타 영역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출제할 필요가 있다.
- 본 검사 문항을 개발할 때에는 (1) 언어 자료의 범위를 주로 어휘와 문장 단위에 한정할 것인지 담화 및 텍스트 수준의 비중을 높일 것인지, (2) 문법 용어나 지식, 국어 탐구 방법 등을 어느 정도 문항에 반영할 것인지, (3)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 문법 능력 평가 문항 구성 제언

- 문법 능력 평가의 정답률은 약간 높거나 보통 수준인 0.640으로 분석되었다.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적정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사용 빈도가 낮은 표현이나 복잡한 문법 규칙이 적용되는 언어 사용의 예를 자료로 삼는다면 정답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택형 문항이 아니라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하였을 때, 예컨대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 포함된 언어 자료에서 오류를 지적하고 바른 표현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문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항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는 문법 능력 평가 단독으로 10문제를 구성하였으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평가에서 문장 범위를 넘어서서 문법 지식이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시키거나, 문법 능력 평가에서 담화 수준의 언어 자료를 더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언어 사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문법 지식을 평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법 지식을 표상하는 문법 용어나 개념 또는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자세나 태도를 평가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다양한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내재된 국어의 규칙을 발견하게 하는 유형의 문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문법 능력 평가의 신뢰도는 0.534로 다소 낮게 나왔다. 문항 수를 좀 더 늘리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사 도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법 능력 평가의 평균 변별도는 0.452로 적정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예비 조사 때 사용한 유사한 문항들과 추가될 새로운 문항 유형들의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변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검사에 앞서 예비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사실과, 예비 평가의 결과를 고려할 때 본 검사를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법 능력	평가 요소	문항 수		문항 비율
가. 규범 (5문항)	① 맞춤법	2	5	33.3%
	② 띄어쓰기	1		
	③ 표준어	1		
	④ 외래어 표기법	1		
나. 어휘 (5문항)	① 의미와 용법	3	5	33.3%
	② 의미 관계	1		
	③ 관용 표현의 의미	1		
다. 문장 (5문항)	① 경어법	1	5	33.3%
	② 시상	1		
	③ 호응 관계	1		
	④ 지시 관계	1		
	⑤ 접속 관계	1		
		15		100%

언어 자료 능력	어휘	문장	담화/글	계
가①		○○		2
가②		○		1
가③		○		1
가④	○			1
나①	○	○	○	3
나②		○		1
나③		○		1
다①		○		1
다②		○		1
다③			○	1
다④			○	1
다⑤			○	1
계	2	9	4	15

□ 문항 수정 예

예비 평가의 결과 오답지의 매력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의 오답지를 수정하거나 단답형 또는 약술형 문항으로 수정하여 전체적인 정답률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값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 ① 가격(매력도 낮음)
- ② 비용(매력도 없음)
- ③ 가치(정답)
- ④ 대가

* 정답: ③

* 평가 요소: 어휘(단어의 의미 관계)

[수정안]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값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 ① 명분(수정)
- ② 비중(수정)
- ③ 가치
- ④ 대가

6. 극장 매표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다음 표현의 뜻은 무엇인가요?

만원사례(滿員謝禮)

- ① 정한 인원이 다 차서 혼잡하다.
- ② 정한 인원이 다 차면 선물을 주겠다.(매력도 낮음)
- ③ 정한 인원이 다 찰 때까지 공연하겠다.(매력도 없음)
- ④ 정한 인원이 다 차게 해 주어서 고맙다.(정답)

* 정답: ④

* 평가 요소: 어휘(관용표현)

[수정안] 6. 극장 매표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다음 표현의 뜻은 무엇인가요?

만원사례(滿員謝禮)

- ① 정한 인원이 다 차서 혼잡하다.
- ② 정한 인원이 다 차면 사례하겠다.(수정)
- ③ 정한 인원이 다 차서 할인해 주겠다.(수정)
- ④ 정한 인원이 다 차게 해 주어서 고맙다.

8. 문장의 흐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일은 절대로 오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매력도 없음)
- ② 올해 우리 회사 실적은 아마 예년만 못할 겁니다.(정답)
- ③ 글을 잘 쓰려면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읽어야 한다.
- ④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매력도 낮음)

* 정답: ②

* 평가 요소: 문장(호응관계)

[수정안] 8. 문장의 흐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다.(수정)
- ② 올해 우리 회사 실적은 아마 예년만 못할 겁니다.
- ③ 글을 잘 쓰려면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읽어야 한다.
- ④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수정)

9. 두 문장을 연결하고자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 오후가 되자 날
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 ① 그래서
- ② 그러면(매력도 없음)
- ③ 그런데(정답)
- ④ 왜냐하면(매력도 낮음)

* 정답: ③

* 평가 요소: 담화(접속 관계)

[수정안] 9. 두 문장을 연결하고자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비바람에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 오후가 되자 날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하늘은 높푸르고 바람은 선선하여 가을의 정취가 가득했습니다.

- ① 결국(수정)
- ② 한편(수정)
- ③ 그런데
- ④ 그래서(수정)

3) 쓰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 쓰기 능력 평가 문항 개발 과정 관련 제언 및 문항 구성 제언

- 쓰기 문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짧은 글 쓰기는 긴 글 쓰기 속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긴 글 쓰기만으로도 쓰기 능력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장의 논리적 연결이나 문체 바꿔 쓰기 등도 긴 글 쓰기 속에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격을 달리하는 두 편 정도의 긴 글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쓰기 능력 평가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과 묘사하는 글을 쓰게 했던 7번과 8번의 두 편 정도를 좀 더 시간을 충분하게 주어 작성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피검자들은 여러 영역 가운데에서 특히 쓰기 영역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예비 검사지 쓰기 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많고 읽기 지문까지 있어서 더욱 부담을 느끼고 쓰기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
- 예비 조사에서 답안 작성의 양을 ‘문장’ 단위로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반인들은 ‘문장’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양적 조건을 맞추는 데 혼란이 있었다.
학문적으로도 복문과 단문을 구분하여 계량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글 쓰기의 경우에도 ‘20자, 50자 이내’와 같은 양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
- 내용적 측면보다는 구조와 표현과 관련된 언어적 측면에 평가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글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것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적 부분이지만, 배경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겸하는 보통의 논술 시험과는 달리 이 조사는 ‘언어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주제) 면의 평가 가중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평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여 채점 요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① 문법·표현 => 표현 정확성 (Grammatical competence) 30%
 - ② 구조 => 구성/조직능력 (Discourse competence) 30%
 - ③ 내용 => 사회화용적 능력 (Sociopragmatic competence) 25%
 - ④ 유창성 (구문의 다양성, 글의 길이/양) (Fluency) 25%
- 하나의 문항에 대한 채점 요소가 너무 많아 채점자 자신의 채점의 일관성과 교차 채점자 간의 채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따르므로, 채점 요소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평가 척도가 3점 척도인 경우 Pass or Fail 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5점 척도로 한다.
- 수험자가 원고지 양식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듯하므로, 원고지 형식은 아니면서도 글자 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양식으로 답안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필체 또한 쓰기 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짧은 사람들일수록 필체가 엉망인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차후 이 조사가 컴퓨터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평가 요소가 되기 어렵다.

○ 이상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비 문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담화 유형과 사적, 공적 담화 상황을 최대한 포괄하는 아래와 같은 문항 개발 틀에 따라 세 개의 문항을 제시한다.

〈쓰기 능력 평가 문항의 담화 유형〉

담화 상황 \ 담화 유형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사적	● 문항2		
공적		● 문항3	● 문항1
계	1	1	1

- 문항은 쉽게 쓸 수 있는 짧은 답안을 요구하는 문항을 1번에 배치하고, 설명적 텍스트를 2번, 설득적 텍스트를 3번에 배치하여 사고와 쓰기 부담이 적은 것부터 풀게 유도한다.
- 쓰기 문항의 수가 줄므로 쓰기 능력 평가 시간도 50분에서 40분으로 줄인다.

〈쓰기 능력 평가의 문항 규모와 시험 시간〉

문항	담화 유형	쓰기 규모	제한 시간
1번	공적/친교적	50자 내외	5분
2번	사적/설명적	300자 내외	15분
3번	공적/설득적	400자 내외	20분

□ 문항 수정 예

쓰기 능력 평가 문항과 각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산 동호회의 송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임 참여를 권하는 이메일의 본문을 50자 내외로 작성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적: 송년회
 일시: 2012년 12월 21일(금) 저녁 6시
 장소: 마포 원조 주물럭
 회비: 2만원

문항 번호	1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하																
채점 요소	공적 담화 상황에 맞는 친교적 짧은 글 쓰기																				
출제 의도	담화 상황과 텍스트 유형(공지글)의 성격에 맞추어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지의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공지글이라는 텍스트 유형의 사회적 기능을 잘 알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료 출처	연구진 제작																				
예시 답안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 등산 동호회원들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서로 축하하고 새해 맞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송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채점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평가 항목</th> <th colspan="2">평가 요소</th> <th colspan="5">평가 척도</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 colspan="2">주제(모임 공지)를 분명하게 제시</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척도					내용	주제(모임 공지)를 분명하게 제시		1	2	3	4	5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척도																		
내용	주제(모임 공지)를 분명하게 제시		1	2	3	4	5														

	(25%)	하고 있다. 통일성 있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	2	3	4	5
	구조 (30%)	공지문의 특성에 맞게 ‘인사말-용건-참여촉구 및 끝인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표현 정확성 (30%)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1	2	3	4	5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1	2	3	4	5
	유창성 (25%)	양적 요건을 충족한다.	1	2	3	4	5

2. 여행 중에 다음 사진과 같은 집을 보았습니다. 이를 묘사하는 편지글을 친구에게 써 보세요(300자 내외로 작성).



문항 번호	2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중																					
채점 요소	사적 담화 상황에 맞는 설명적 긴 글 쓰기																									
출제 의도	친구에게 말하듯 쓰는 비격식적인 묘사 글을 한 편 완성하게 함으로써 내용적 통일성, 구조적 안정성, 표현의 적법성과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 기술의 텍스트 전개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또한 친구에게 쓰는 편지글의 문체적 적합성을 맞출 수 있는지 점검한다.																									
자료 출처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sallysulbo/8057726																									
예시 답안	생략																									
채점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항목</th> <th>평가 요소</th> <th colspan="5">평가 척도</th> </tr> </thead> <tbody> <tr> <td>내용 (25%)</td> <td>집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여, 집의 구성 요소들을 충실히 설명</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r> <td>구조</td> <td>단락 의식 가지고 서-본-결론을</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척도					내용 (25%)	집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여, 집의 구성 요소들을 충실히 설명	1	2	3	4	5	구조	단락 의식 가지고 서-본-결론을	1	2	3	4	5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척도																								
내용 (25%)	집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여, 집의 구성 요소들을 충실히 설명	1	2	3	4	5																				
구조	단락 의식 가지고 서-본-결론을	1	2	3	4	5																				

	(30%)	적절 한 비중으로 구성					
		공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1	2	3	4	5
	표현 정확성 (30%)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1	2	3	4	5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1	2	3	4	5
	유창성 (25%)	친구에게 쓰는 편지글 문체로 자연스러우며, 수사적으로 독창적이다.	1	2	3	4	5
		양적 요건을 충족한다.	1	2	3	4	5

3. 군대를 다녀온 남자에게 취업 시 군 가산점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보세요(400자 내외로 작성).

문항 번호	3	영역	쓰기	예상 난이도	상		
채점 요소	상황에 맞는 논리적 긴 글 쓰기						
출제 의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한 편 완성하게 함으로써, 내용의 통일성, 구조적 안정성, 표현의 적법성 등을 점검한다. 특히 주장을 분명히 드러내는지, 근거를 제대로 들어 주장할 수 있는지, 뒷받침 문장들을 세울 수 있는지 등의 논리적 텍스트 유형의 글 쓰기 능력을 확인한다.						
예시 답안	생략						
채점 기준	내용 (25%)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1	2	3	4	5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예시, 구체화, 인용 등 뒷받침 자료가 풍부하다.	1	2	3	4	5
		통일성 있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	2	3	4	5
	구조 (30%)	단락 의식 가지고 서-본-결론을 적절 한 비중으로 구성	1	2	3	4	5
		단락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	2	3	4	5
	표현 정확성 (30%)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1	2	3	4	5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1	2	3	4	5
유창성	논리적 텍스트에 맞는 문어체 어	1	2	3	4	5	

(25%)	휘와 표현을 사용한다.					
	양적 요건을 충족한다.	1	2	3	4	5

4) 듣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 듣기 능력 평가 문항 개발 과정 관련 제언

-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 듣기 지문을 선정한 후 어휘, 문장, 담화 구조를 다듬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담화의 속도, 어조, 발음 등을 듣기 쉽게 개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문 구성 방식은 듣기의 실제성을 떨어뜨리는 과정이기도 하고 정답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되는 실제성 높은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 자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듣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 목적에 맞게 편집하거나 유사한 상황 설정을 바탕으로 녹음하여 실제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 듣기 대본 중심으로 문항의 제작과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듣기 자료를 들어보면서 그 실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듣기 능력 평가 문항 구성 제언

- 듣기 능력 평가 문항의 평균 정답률이 0.868로 전체적으로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하고자 했던 문항 구성의 방향을 고려하더라도 정답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 대상 중 노년층에 대한 지나친 고려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 조사에서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도 정답률이 높게 나오게 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실제 듣기 능력 검사에서는 쉬운 문항, 보통 수준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적절한 비율로 1 : 2 : 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고수한 결과 듣기 지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짧은 경우도 있었다. 사실적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은 지문의 길이나 복잡도를 높이고, 추론적 듣기 능력이나 비판적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은 지문의 길이는 짧더라도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거나 적용하거나 말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문항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평가 요소의 배분에서도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 검사 시간의 한계로 충분한 문항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비판적 듣기 문항의 비중이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 문항 수를 늘리고 듣기 능력의 세 수준 간 비율을 대략 4 : 4 : 2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문항의 신뢰도(.785)와 변별도(.526)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재출제하게 되면 정답률은 더 낮게 조정될 수 있으나 신뢰도나 변별도 문제는 새롭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검사 실시에 앞서 예비 검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검사에 앞서 실시할 예비 검사에서는 성별, 연령 등에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듣기 평가의 실제성을 높이고 정답률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을 선다형이 아닌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듣기 과정이므로 일부 문항에서는 메모하기의 과정이 반영되도록 문항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 이상의 사실과, 예비 평가의 결과를 고려할 때 본 검사를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듣기 능력	평가 요소	문항 수		문항 비율
가. 사실적 듣기 (5문항)	① 세부 정보의 확인	3	6	50%
	② 핵심 정보의 파악	2		
	③ 지시의 이행	1		
나. 추론적 듣기 (5문항)	① 내용의 추리	2	4	33%
	② 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	1		
	③ 적용	1		
다. 비판적 듣기 (2문항)	① 내용의 평가	1	2	17%
	② 형식의 평가	1		
		12		100%

담화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 교적	계
	대화	면담	안내 방송	강연	방송 뉴스	대 화	회 의	토의 토론	광 고	대 화	
가①	○	●					●				3
가②					●			●			2
가③			○								1
나①									●	○	2
나②		●									1
나③				●							1
다①						○					1
다②								●			1
계	1	2	1	1	1	1	1	2	1	1	12

※ ○: 개인적 상황, ●: 공적 상황

□ 문항 수정 예

예비 평가의 결과 오답지의 매력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의 오답지를 수정하거나 단답형 또는 약술형 문항으로 수정하여 전체적인 정답률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2. (물음) 이 면담을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 ① 자영업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 ②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알아보려고
- ③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를 낮추려고(매력도 낮음)
- ④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을 홍보하려고(정답)

* 정답: ②

*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의도의 추리)

[수정안] 2. (물음) 이 면담을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 ① 자영업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 ②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알아보려고
- ③ 자영업자의 고용 실태를 개선하려고(수정)
- ④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을 홍보하려고

6. (물음)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자.
- ②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정답)
- ③ 대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자.(매력도 없음)
- ④ 허례허식을 없애고 검소하게 살자.(매력도 낮음)

* 정답: ②

* 평가 요소: 추론적 듣기 능력(의도의 추리)

[수정안] 6. (물음) 이 광고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수정)

- 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자.
- ②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
- ③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지키며 살자.(수정)
- ④ 양심과 의리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수정)

7. (물음) 이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헬스장
- ② 놀이방(정답)
- ③ 택배실(오답 매력도 낮음)
- ④ 공부방(오답 매력도 낮음)

* 정답: ②

* 평가 요소: 사실적 듣기 능력(세부 정보의 파악)

[수정안] 7. (물음) 이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로 언급된 것 세 가지는 무엇무엇인
가요?

(, ,)

11. (물음) 상품을 추천하는 점원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① 비싼 옷을 싸다고 말하며 고객을 속이고 있다.(매력도 없음)
- ② 옷과 관련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매력도 없음)
- ③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정답)
- ④ 일관성 없이 옷을 추천하여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매력도 없음)

* 정답: ③

* 평가 요소: 비판적 듣기 능력(내용의 평가)

[수정안] 11. (물음) 상품을 추천하는 점원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5) 말하기 능력 평가 관련 제언

□ 말하기 능력 평가 문항 검사 시행 및 채점 관련 제언

- 말하기 평가의 경우, 들려주기(또는 보여주기) 및 녹음하기가 용이한 전자 장비(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말하기의 경우 관심 주제에 따라 4문항 중 두 문항만 선택하여 반응하는 방식으로 검사 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말하기 평가 문항의 채점은 적어도 2인 이상의 채점자가 참여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 채점, 채점자 간 협의 및 채점 기준 수정·보완 및 상세화, 채점자 훈련 등의 절차에 따라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말하기 평가에서 평가 요소별 비중은 본 검사를 통하여 측정 영역이 최종 결정되고 다수의 채점 결과를 확보한 후 회귀분석 등을 통해서 좀 더 타당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말하기 능력 평가 문항 구성 제언

- 말하기 평가를 위한 채점 요소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 내용 선정 => 과제 수행력(Task comprehension)
 - 어휘·문법 => 표현 정확성(Grammatical competence)
 - : 여기에서 grammar는 syntax(구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형태소, 구문, 발음 등을 합한 개념임
 - 내용 구성 => 구성/조직 능력(Discourse competence)
 - 반어적 표현 => 사회화용적 능력(Sociopragmatic competence)
 - 유창성 => 원래대로 유창성 (Fluency)
- 채점 척도는 예비 조사에서는 ‘미흡, 보통, 우수’의 3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평가 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 방법의 일반적 척도인 Likert 5단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문항에서 동일한 평가 요소를 측정하는 대신, 문항에 따라 평가할 요소를 초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사실과, 예비 평가의 결과를 고려할 때 본 검사를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기 능력	평가 요소
가. 내용 구성	① 과제 수행 능력
	② 조직 및 구성 능력
나. 표현 및 전달	① 표현의 정확성
	② 사회화용적 능력
	③ 유창성

능력	답화 유형	설명적		설득적		계
		경험을 설명하는 말	개념이나 의미를 설명하는 말	주장하는 말	요청하는 말	
		○	○	●	●	
가①						
가②						
나①						
나②						
나③						
계		1	1	1	1	4

□ 문항 수정 예

예비 평가의 결과 반응 조건 및 채점 기준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1. (물음) 이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1.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 가지 들어서 말씀하세요(들은 내용을 활용해도 무방함).

2. 준비 시간과 말하기 시간 각각 1분 이내입니다. 말할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문항 수정안] 1. (물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과 청년층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소집단 토론에 참여하여 토론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2분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채점기준 수정안]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과제 수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을 충실하게 한다. -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여 말한다.(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는다.) 	1	2	3	4	5
	구성 및 조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전개,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다. -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말한다. 	1	2	3	4	5
표현 및 전달	표현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이 정확하다. - 어휘 사용이 정확하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4	5
	사회화 용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는 이에 알맞은 표현이나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말한다. 	1	2	3	4	5
	유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의 빠르기가 적절하다. - 끊김 없이 유창하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4	5

※ 2번부터 4번까지는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1분간 준비한 후, 말할 준비가 되면 2분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문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물음)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수를 하여 생긴 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수정안] 2. (물음) 일상생활 중에 또는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하고, 2분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채점기준 수정안]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과제 수행 능력	-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충실하게 한다. -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여 말한다.(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는다.)	1	2	3	4	5
	구성 및 조직 능력	- 시작, 전개,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경위가 잘 드러난다. - 실수의 경험과 그 일에 대한 느낌을 적절하게 말한다.	1	2	3	4	5
표현 및 전달	표현의 정확성	- 발음이 정확하다. - 어휘 사용이 정확하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4	5
	사회화 용적 능력	- 듣는 이에 알맞은 표현이나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말한다.	1	2	3	4	5
	유창성	- 말의 빠르기가 적절하다. - 끊김 없이 유창하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4	5

3. (물음) 사람들이 함부로 내다 버린 쓰레기로 집 앞 골목이 늘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담당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항 수정안] 3. (물음) 아래 상황 중 하나를 가정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함부로 내다 버린 쓰레기로 집 앞 골목이 늘 지저분한 상황
- 아파트 위층에서 자주 쿵쿵거리서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서 신호 대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상황

☞ 담당자(구청, 경비실, 경찰서)가 전화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1분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채점기준 수정안]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과제 수행 능력	-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충실하게 한다. -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여 말한다.(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는다.)	1	2	3	4	5
	구성 및 조직 능력	- 시작, 전개,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 요청 등의 내용이 잘 드러난다.	1	2	3	4	5
표현 및 전달	표현의 정확성	- 발음이 정확하다. - 어휘 사용이 정확하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4	5
	사회화 용적 능력	- 듣는 이에 알맞은 표현이나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말한다.	1	2	3	4	5
	유창성	- 말의 빠르기가 적절하다. - 끊김 없이 유창하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4	5

4. (물음) 다음 속담 중 하나를 골라 초등학생에게 예를 들면서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쇠귀에 경 읽기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문항 수정안] (물음) 다음 속담 중 하나를 골라 예를 들면서 뜻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쇠귀에 경 읽기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초등학교 학생이 속담의 뜻을 몰라 질문하였다고 생각하고, 1분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채점기준 수정안]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과제 수행 능력	-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충실하게 한다. -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여 말한다.(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는다.)	1	2	3	4	5
	구성 및 조직 능력	- 시작, 전개,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 속담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맞은 예를 제시하였다.	1	2	3	4	5
표현 및 전달	표현의 정확성	- 발음이 정확하다. - 어휘 사용이 정확하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4	5
	사회화 용적 능력	- 듣는 이에 알맞은 표현이나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말한다.	1	2	3	4	5
	유창성	- 말의 빠르기가 적절하다. - 끊김 없이 유창하게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1	2	3	4	5

6) 문항의 구성

문항의 개발은 읽기, 문법, 쓰기, 듣기, 말하기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되, 각 영역별 문항수와 평가시간, 그리고 배점은 아래와 같이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영역	문항수	평가시간	배점
읽기	20	40분	250점
문법	15	15분	150점
쓰기	3	40분	400점
듣기	12	15분	250점
말하기	4	20분	250점
누계	54문항	130분	1,300점

3. 정책 제언

1) 평가의 절차

본 연구를 통해 내년에 시행할 전 국민 대상 국어 능력 평가는 충분한 시간과 경비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기초연구를 시행한 것이므로 이론적 배경 조사와 문항개발 그리고 문항의 타당도 평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대규모 평가가 행해져야 하므로 가능한 한 사업을 일찍 시작해야 할 것이다.

출제: 검사지 구성 체제의 마련

다수의 출제진이 2~3일 정도의 합숙을 통한 집중 작업을 통해서 검사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비조사의 시행

신뢰도가 높은 타당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지의 수정

본검사

세대별 500명씩 1,500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통상적으로 언어 능력 평가의 경우 전 국민

대상 평가 시 효율적인 피험자 수는 1,000명이지만 세대별, 지역별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검사 결과의 분석

객관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읽기, 듣기, 문법 영역은 평가에 그다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주관식으로 3인이 교차 채점을 해야 하는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경우 충분한 평가 기간과 경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 사후 연구

본 검사 결과가 얻어진 후에 연구진은 다시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5년 후의 전 국민 대상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매우 요긴하게 기능할 것이다.

2) 조사 기간 및 범위

2013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2013년 3월 국어능력 평가 사업 용역 수주
- 2013년 4월 출제 및 검사 문항 확정
- 2013년 5월 예비조사 실시
- 2013년 6월 예비조사 분석 및 검사지 수정, 확정
- 2013년 7월~9월 전 국민 대상 평가 실시
- 2013년 10월 ~11월 검사 결과 분석
- 2014년 검사 결과 분석 연구 시행

3) 기타 제언

□ 출제진 및 채점자군의 풀 구성

안정성 있는 문항 개발 및 채점을 위해서는 국어 능력 평가 문항을 개발할 출제진의 풀을 구성하여야 한다.

□ 영역별 평가의 분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영역에서의 능력을 한 해에 모두 평가하는 것은 너무 대규모의 작업으로 영역별로 적어도 2집단으로 분리하여 기간을 달리 하여 2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검자군 별로 차별화된 평가의 실시

모든 국민을 획일적인 문항으로 검사하여 국어능력을 발표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별, 혹은 직업군별로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상이한 문항을 구성하여 군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 영역별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표준화

매번 상이한 문항과 평가지표로 실시하는 국어 능력 평가는 그 결과를 상호간에 비교하는 데 문제점을 지니므로 각 영역별로 평가지표를 표준화함으로써 5년마다 실시하는 국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 국어 능력 평가 결과 활용

1. 국어 능력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어 능력 수준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 1) 국민의 국어 능력 수준은 크게 탁월, 우수, 보통, 기초, 누리 등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우수, 보통, 기초' 등급의 경우에는 각각 1수준과 2수준으로 나누어 총 8개의 수준으로 나눈다. 국립국어원에서 2013년에 실시하는 국민의 국어 능력 검사는 대체로 우수, 보통, 기초 등 세 등급에서 각 1, 2 수준을 구별하여 총 3등급 6수준으로 구분한다. 이는 1종으로 개발되는 국어 능력 시험의 문항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탁월 및 누리 등급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은 자국어 및 외국어 능력 시험을 대상으로 한 주요 검사 도구의 등급과 비교하여 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 체계를 모형화한 것으로, 본 검사 과정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국어				외국어			
국어 능력 시험		KBS 한국어 능력시험	KBS 말하기 능력시험	국어 학업 성취도 평가		TOPIK	CEFR
탁월		(S급)	탁월	우수학력			
		1급					
		2+급					
우	2	2-급	우수	보통학력			
수	1	3+급	보통				
보	2	3-급	미흡				
통	1	4+급		6급	고급	C2	숙달된

기 초	2	4-급	저조	기초학력			C1	언어 사용
	1	무급		기초학력				
누 리	2	(누리급)		미달	4급	중급	B2	자립적 언어 사용
					3급		B1	
	1				2급	초급	A2	기초적 언어 사용
					1급		A1	

2) 각 등급의 평가 기준에 대한 상세한 기술 및 등급 간 컷오프 점수는 2013 본 검사 시 구체화한다. 등급 결정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등급 수를 결정하고 등급별 평가 기준을 개략적으로 진술한다.
- 본 검사 결과에 따라 산출한 문항별 점수를 활용하여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Bookmark 방식) 등급별 분할 점수(cut score)를 결정한다. 북마크 방식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달 기준선 설정 방법으로, 영역별 문항을 평균 정답률에 따라 배열한 후 전문가 집단에서 각 등급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맞힐 수 있는 문항을 협의하여 결정한 후, 해당 문항의 평균 점수를 분할 점수로 산출한다(남명호 외, 2008).
- 분할 점수에 따라 국민 전체, 배경 변인별(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군, 지역 등)로 국민의 국어 능력을 등급별로 산출한다.

3) 국민 전체, 배경 변인별(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군 등) 국어 능력 등급에 대한 보고는 다음과 같이 영역별 등급과 종합 등급 프로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 국어능력시험 영역별 등급 표시(예시)

등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종합
우수2						
우수1	■					
보통2			■			
보통1	■	■	■		■	■
기초2				■		
기초1	■				■	■

2. 국민의 국어 능력을 5년 주기로 검사하고 그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검사 동등화의 필요성

- 국어 능력 검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2013년 검사 결과를 원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그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검사 간 동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검사 동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척도 개발

- 검사 간의 동등화는 검사 점수의 동등화(equating) 또는 검사 점수의 동일 척도화(common scaling)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동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무선 집단 설계, 동일 집단 설계, 공통 문항-비동등 집단 설계 등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항 반응 이론을 이용한 동등화 기법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약 20% 정도의 공통 문항이 있어야 한다. (남명호 외, 2008)
- 검사 동등화를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원점수를 척도 점수로 변환하고, Bookmark와 같은 전문가 협의 방식을 통하여 척도 점수 산출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문항의 개발

- 검사 간 동등화를 위해서는 예비 검사 단계에서 본 검사 문항보다 최소 20% 정도 더 많은 문항이 최종 검사 문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양호도 높은 충분한 수의 문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20%의 문항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주기 검사에서 검사 간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영민(2002), 국어 능력 평가의 의미,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 김동환 외(2007), 국어 능력 평가 조사 문항 개발, 국립국어원.
- 김동환 외(2008), 국어 능력 검정 모의 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성규 외(2006), 국어 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재현(2003),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위한 모의 평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원 외(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김희선(2011), 국어능력의 개념과 평가 문항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환(2002), 국어 교육과 국어 능력,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 남명호 외(2000),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기준 조정 및 문제은행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외 10인(2008), 2007년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연구: 종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류철균 외(2007), 영화 및 게임물 언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민광준(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일본의 노력,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 민현식(2002), 한국인의 국어 능력 실태,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09), 공공기관 서식, 문서의 국어사용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박무익 외(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박수일 외(2006), 연령별 계층별 언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박재현 외(2008), 국군 장병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박창원 외(2010), 국제 언어정책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배동준 외(2010), 2009 국어 능력 시험 결과 보고, 국립국어원.
- 안태숙 외(2010), 표준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양정환 외(2010),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우해령(2002), 한국어 능력 시험의 문항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김대행·김광해(1999), 국어 능력 측정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6-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윤준채 외(2009), 한국인의 언어활동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이관규 외(2009),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국립국어원.
- 이삼형 외(2004), 국어 능력 검정 시행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이선웅 외(2010),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본 방송 언어 연구, 국립국어원.
- 이순영 외(2010),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용역, 국립국어원.
- 이창덕 외(2009), 표준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이천희(2005), 국어 능력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 외(2010), 다문화 사회의 언어정책 사례와 효과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5),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6), 말하기 능력 측정 도구 개발 1,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9), 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2011),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 장후석 외(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 전태현 외(2007), 세계의 언어정책기관 조사, 국립국어원.
- 정용민 외(2010), 뉴미디어통합커뮤니케이션 전략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하광호(2002),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영어 교육,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 한선혜(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 한재영(2011), 외국의 표준어 정책,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 Becker-Mrotzel, Michael & Brünner, Gisela (2004) Der Erwerb kommunikativer Fähigkeiten: Kategorien und systematischer Überblick. In: Michael Becker-Mrotzel & Gisela Brünner (Hg.) (2004) Analyse und Vermittlung von Gesprächsforschung. Frankfurt/Bern: Lang, 29-46.
- Bendel, Sylvia (2004) Gesprächskompetenz vermitteln - Angewandte Forschung? In: Michael Becker-Mrotzel & Gisela Brünner (Hg.) (2004) Analyse und Vermittlung von Gesprächsforschung. Frankfurt/Bern: Lang, 67-86.
- Berend, Nina (2009) Standardsprache - Alltagssprache. Eine Aufnahmeaktion zur Untersuchung der Variation im gesprochenen Standarddeutsch. In: Felder, Ekkehard (Hg.), Sprache. Berlin & Heidelberg: Springer, 2009, 215-234. (Heidelberger Jahrbücher 53, 2009).
- Bührig, Kristin/ten Thijje, Jan D. (2005) Diskurspragmatische Beschreibungen. In: Ammon, Ulrich/Dittmar, Norbert/Mattheier, Klaus/Trudgrill, Peter (Hg.) Soziolinguistics/Soziolinguistik. Berlin: de Gruyter, 1225-1250.
- Chomsky, Noam (1980) Regeln und Repräsentationen: Sprache und unbewußte Erkenntnis. In: Hoffmann, Ludger (1996) (Hg.) Sprachwissenschaft. Ein Reader. Berlin: de Gruyter, 81-97.
- Deppermann, Arnulf (2004) 'Gesprächskompetenz' - Probleme und Herausforderungen eines möglichen Begriffs. In: Becker-Mrotzel, Michael/Brünner, Gisela (Hg.) Analyse und Vermittlung von Gesprächskompetenz. Frankfurt/Bern: Lang, 15-27.
- Ehlich, Konrad (1983) Text und sprachliches Handeln. Die Entstehung von Texten aus dem Bedürfnis nach Überlieferung. In: Assmann, A./Assmann, J./Hardmeier, Ch. (Hg.) (1983) Schrift und Gedächtnis. München: Fink, 24-43.
- Ehlich, Konrad et al. (2005) Anforderungen an Verfahren der regelmäßigen Sprachstandsfeststellung als Grundlage für die frühe und individuelle Förderung von Kindern mit und ohne Migrationshintergrund.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ildungsreform Band 11).
- Ehlich, Konrad/Rehbein, Jochen (1977) Wissen, kommunikatives Handeln und die Schule. In: Goeppert, H. C. (1977) (Hg.) Sprachverhalten im Unterricht. Zur Kommunikation von Lehrern und Schülern in der Unterrichtssituation. München: Fink, 36-114.
- Ehlich, Konrad/Rehbein, Jochen (1979) Sprachliche Handlungsmuster. In: Soeffner, H.G. (Hg.) (1979) Interpretative Verfahren in den Sozial- und Textwissenschaften. Stuttgart: Metzler, 243-274.
- Fiehler, Reinhard (2005) Gesprochene Sprache. In: Dudenredaktion (Hg.) Die Grammatik. Mannheim: Dudenverlag, 1175-1256.
- Fiehler, Reinhard & Schmitt, Reinhold (2004) Die Vermittlung kommunikativer Fähigkeiten als Kommunikation. Kommunikationstraining als Gegenstand der Gesprächsanalyse. In: Michael Becker-Mrotzel & Gisela Brünner (Hg.) (2004) Analyse und Vermittlung von

- Gesprächforschung. Frankfurt/Bern: Lang, 113-136.
- Hartung, Martin (2004) Wie lässt sich Gesprächskompetenz wirksam und nachhaltig vermitteln? Eine Erfahrungsbericht aus der Praxis. In: Michael Becker-Mrotzel & Gisela Brünner (Hg.) (2004) Analyse und Vermittlung von Gesprächforschung. Frankfurt/Bern: Lang, 47-66.
- Herrmann, Theo/Grabowski, Joachim (1994) Sprechen. Psychologie der Sprachproduktion. Heidelberg: Spektrum.
- Hoffmann, Ludger (2000) Thema, Themenentfaltung, Makrostruktur. In: Brinker, K./Antos, G./Heinemann, W./Sager, F.S. (Hg.) Text- und Gesprächslinguistik. 1. Halbband. Berlin: de Gruyter, S. 344-356.
- Jude, Nina/Klieme, Eckhard (2007) Sprachliche Kompetenz aus Sicht der pädagogischpsychologischen Diagnostik. In: Beck, Bärbel/Klieme, Eckhard (Hg.) Sprachliche Kompetenzen. Konzepte und Messung. DESI-Studie. Weinheim: Beltz, 9-22.
- Koch, Peter/Oesterreicher, Wulf (1994) Schriftlichkeit und Sprache. In: Günther, H./Ludwig, O. (Hg.) Schrift und Schriftlichkeit. (2 Bde.) Berlin: de Gruyter (HSK 10), 587-604.
- Lalouschek, Johanna (2004) Kommunikatives Selbst-Coaching im beruflichen Alltag. Ein sprachwissenschaftliches Trainingskonzept am Beispiel der klinischen Gesprächsführung. In: Michael Becker-Mrotzel & Gisela Brünner (Hg.) (2004) Analyse und Vermittlung von Gesprächforschung. Frankfurt/Bern: Lang, 137-158.
- Mönnich, Annete (2004) Gesprächsführung lernen. Welche impliziten Konzeptualisierungen des Kommunikationslernens sind in Methoden zur Entwicklung der Gesprächsfähigkeiten zu finden? In: Michael Becker-Mrotzel & Gisela Brünner (Hg.) (2004) Analyse und Vermittlung von Gesprächforschung. Frankfurt/Bern: Lang, 87-112.
- Rehbein, Jochen (1977) Komplexes Handeln. Elemente zur Handlungstheorie der Sprache. Stuttgart: Metzler.
- Rehbein, Jochen (1984) Beschreiben, Berichten, Erzählen. In: Ehlich, K. (Hg.) (1984) Erzählen in der Schule. Tübingen: Narr, 57-124.
- Rickheit, Gert/Sichelschmidt, Lorenz/Strohner, Hans (Hg.) (2002) Psycholinguistik. Tübingen: Stauffenburg.
- Sacks, H./Schegloff, E.A./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in conversation. In: Language 50/1974, 696-735.
- Sutter, Tilmann/Charlton, Michael (2002) Medienkompetenz - einige Anmerkungen zum Kompetenzbegriff. In: Groeben, Norbert/Hurrelmann, Bettina (Hg.) Medienkompetenz. Voraussetzungen, Dimensionen, Funktionen. Weinheim, München: Juventa, 129-147.
- Weinert, Franz E. (2002/2) Vergleichende Leistungsmessung in Schulen - eine umstrittene Selbstverständlichkeit. In: Weinert, Franz E. (Hg.) (2002) Leistungsmessung in Schulen. Weinheim und Basel: Beltz, 17-31.